현대불교

THE HYUNDAE BULKYO 불기 2546년(서기 2002년) 9월 4일 수요일(주간) 제385호

山村한과
전통 사찰식으로 만든
주문전화 : 02)720-8829 / 오픈몰 : www.sanchon.com

법석 조대 **벽봉 스님** 대구 대원사 조실



"바른 마음 바른 생각 바른 행동으로 정진하는 것. 이것 말고 또 무슨 가르침이 더 있겠노. 불자의 삶은 그 자체가 기도이고 수행이어야 하는 것이지."

"작고 보잘 것 없는 사소한 일 하나에도 온 마음을 쏟아 바라보면 온 우주 생명의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이 이치를 알고 스스로 정진해야 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12 · 13면

비구니회관 '법룡사' 가족전법도량 선언

"엄마 아빠 손잡고 절에 오세요"

23일부터 영어강좌 · 음식만들기 · 선무도 등 진행
관음사 · 화계사 등 30여 사찰도 '일요가족법회'

주5일 근무제가 도입되면서 가족 단위의 여가문화가 활성화되고 있는 가운데 사찰과 직장불자회에서 가족법회나 수련회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전국비구니회관 법룡사 등을 '가족 전법도량'을 선언하고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온 가족 불자화'를 위한 포교방안들이 마련되고 있다.

전국비구니회는 서울 강남 수서동에 소재한 비구니회관을 이웃-가족과 함께하는 '열린 전법도량'을 만들기 위해 23일부터 본격적인 프로그램 운영에 들어간다. 비구니회관은 참선센터, 법룡불교대학, 법룡봉사회, 법룡상담센터 등을 두고 일요일 가족이 법당에 모여 법회에도 참석해 함께 공양을 부르고, 아이들은 한자와 산무도를 배우도록 하는 등 가족중심의 법회를 운영한다. '가족이 함께 음식 만들기', '부모와 함께하는 영어 이야기반', '어린이와 어머니를 위한 바이올린 레슨', '가족이 함께 쓰레기 줍기' 등 많은 프로그램이 부모와 자녀가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대구 관음사는 지난 7월 감포에 가족수련원을 개원하고, 중고생과 학부모를 위한 릴레이 강좌를 열어 호응을 얻고 있다. 5000여 평의 부지에 법당, 수련장, 주말 농장, 도자기 공장 등 시설을 갖춘 관음사 감포분원은 매주 100여 명을 모집해 1박2일 주말 수련법회를 운영, 주5일근무제 확산에 대비한 바람직한 수련 시설로 각광받고 있다. 9월15일까지 매주 열리는 중고생과 학부모를 위한 릴레이 강좌 역시 '알고보니 수학도 쉬워요'(9월 1일), '빠르고 쉬운 사회 학습'(8일), '성(性)바르게 알기'(15일)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 강사로 나서 호응을 얻고 있다.

한편 사찰 및 직장불자회의 가족법회는 가족간의 종교갈등이나 고부갈등, 자녀 인성교육 등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일석삼조'의 효과로 관심을 끌고 있다. '일요 가족법회'를 실시하고 있는 사찰은 서울 화계사, 길상사를 비롯 30여 곳 정도. '일요가족법회'는 예불과 기도, 좌선을 비롯 연령대별 불교기초교리 강좌, 레크레이션 등이 실시된다. 특히 서울 화계사의 '영어강좌', 불영사의 '한문강좌', 부산 혜원정사의 사경 공부, 청주 관음사의 가족 수계법회, 안성 도피안사의 가족포살법회 등도 참여자가 많다. 이밖에 화성 용주사, 예산 수덕사, 대구 동화사, 서울 진관사, 홍천 칠불선원은 여름 가족수련회를 성황리에 회향했다.

성북승무사무소법우회, 서초(법조인)반야회, 한국전력반야회, 한국항공우주산업불자회, 대한중석초경 석불회 등 30여 직장불자회가 가족단위로 법회를 진행하고 있다. 일부 단체(성북승무사무소, 월성원자력, 울진원자력 등)들은 부인들의 별도 모임이 구성되어 자체법회와 가족법회를 열기도 한다. 석불선양회 등 답사 모임들은 가족이 함께 석불 천견 뒤 강의를 듣는 등 온 가족이 즐거운 휴일을 보내고 있다.

각 사찰과 단체의 가족법회나 모임이 확산되고 있으나, 부모와 함께 할 프로그램이 부족해 전문강사 양성과 불교적 문화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비구니회 기획실장 본각스님은 "어린이와 부모님이 손잡고 찾아와 배우고 즐기는 사찰, 가족 및 이웃과 함께하는 열린 공간을 만들면 포교는 저절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경 · 남동우 기자

뉴스속뉴스 news in news

이주일씨의 아름다운 회향

"뭔가를 보여드리겠다"며 "일단 한번 보시라"던 희극인 이주일(본명 정주일). 8월 27일 폐암으로 사망하기까지 그의 62년 일생은 '아름다운 회향'으로 막을 내렸다.

유랑극단의 막간배우로 출발한 그의 희극인 인생 가운데 가장 화려하고 감동적인 연기는 투병중의 행적들로 모아진다. 폐암 말기라는 비참한 현실을 딛고 금연 홍보대사로 변신해 250만명이 담배를 끊게한 것은 국민훈장 모란장보다 값지고 빛나지 않는가. 그가 떠난 지금, 대한민국은 그의 죽음이 부메랑되어 다시 금연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고인의 금연홍보 활동에 대해 국립암센터 박재갑 원장은 "암환자의 30%가 담배 때문에 죽어가는데 이 현실을 막아보자는 암센터 설립취지의 30%를 혼자 감당해 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80년대 중반부터 20년 가까이 고향땅 강원도 고성군과 제주도 서귀포시 보목 어촌마을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해왔고 낙도 어린이 돕기 등 남모를 선행을 해왔다. 그의 이같은 선행이야말로 우리사회에 진정한 희극인이 무엇인가를 온몸으로 보여준 것이다.

살아생전 이주일씨는 봉은사 상조회인 지장연화회에 가입하고 자신이 죽으면 화장해줄 것을 유언했다. 유족들은 고인의 뜻에 따라 장례를 불교식으로 치르고 그의 유해를 화장했다.



사진제공 '스포츠서울'

49재는 9월 2일부터 10월 14일 서울 강남 봉은사에서 봉행된다. 불자로서의 바른 길도 흐트러짐없이 걸었던 것이다. 그래서 빈소에서 울려퍼지는 봉은사 주지 원혜스님의 독경과 합창단의 '고운님 잘가소서'라는 제목의 조가는 조문객의 마음을 숙연하게 했다. 빈소를 지키고 있는 유가족들과 지인들도 왕생극락의 염원이 더욱 간절했다. 아마도 고인은 자신의 어머니와 7대 독자인 아들의 위패가 모셔진 강남 봉은사에서 활짝 웃고 있을런지도 모른다.

희극인 이주일. 그는 비록 얼굴이 못생겨서 죄송했을지는 몰라도 세상을 사랑하고 인간을 아름답게 여기는 마음만은 이세상에 사표가 될 것이다.

김두식(뉴미디어부 기자)

태고종 초대 원로회의 개원

의장 일우, 부의장 보봉 · 원법 스님 추대

태고종 초대 원로회의 개원법회가 8월 27일 서울 63빌딩 3층 코스모스홀에서 봉행됐다.

17명의 원로의원들과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스님, 총무원 부 국장 스님 등 1백여명이 참석한 이날 법회에서는 초대 원로의장에 일우(청도 보현사 주지)스님, 부의장에 보봉(서울 법혜사 홍법원) 원법(대전 보은정사) 스님을 만장일치로 추대했다.

☞ 일우스님 인터뷰 3면

의장 일우스님은 취임사에서 "원로회의 결성을 계기로 전체 종도들이 종단에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기울였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원로의원들은 △원로회의는 종단의 최고 협의기구로서 의원 각자가 종도의 사표가 되어 종단의 법계와 위계질서를 바로세우고 종풍진작에 신명을 다 바치겠다 △총무원, 중앙종회, 중앙호법위원회 등 각 기관의 간부를 비롯한 종단 지도자들은 종단의 발전에 사명감을 가지고 종무를 사심없이 추진함은 물론 화합승가를 이루는데 적극 노력해 달라 △태고종도는 종도의 책임과 의무를 다함으로써 공존공영의 태고승가 공동체 실현에 동참해달라 등 3개항의 선언문을 채택했다.

태고종 원로회의는 종단의 최고 상의회 기관으로 종정 추대권, 종헌 개정안 인준권, 총무원장 인준권 등 종단 중요사안에 대한 최종 승인권을 갖는다.

태고종 초대 원로회의 의원은 청암, 혜경, 연운, 금봉, 자광, 행법, 청경, 혜봉, 남파, 청은, 혜종, 혜암, 용수, 벽파, 도운, 보안, 덕화, 혜초, 지족 스님 등 모두 22명이다.

이경숙 기자 gslee@buddhapa.com



법륜스님, 막사이사이상 수상 정토회 지도법사 법륜스님(오른쪽에서 세 번째)의 막사이사이상 평화 및 국제이해 부문 시상식이 8월 29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렸다. 이날 스님은 "평화운동은 개인에게서 시작되어 세계적으로 넓어져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온갖 갈등과 분쟁, 고통이 사라질 것입니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단청전문가 등 10월 방북 초청

조선불교도연맹, 신계사 복원 논의

조선불교도연맹 박태화 위원장은 8월 26일 한국불교종단협의회와 조계종 총무원에 팩스를 보내 단청전문가 초청 및 단청재료지원, 신계사 복원계획 등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하자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종단협의회에 보낸 공문을 통해 "10월경 단청전문가 2명을 포함한 6~7명의 방북대표단을 초청하겠다"며 "우선 가능하다면 먼저 일정량의 단청재료를 보내주던지 그렇지 못할 경우 단청불사 지원의사를 명백히 알려 달라"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또 조계종 총무원에도 공문을 보내 "현대 아산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신계사 복원계획을 구체적으로 알려달라"며 "가까운 시일내 금강산에서 신계사 복원불사와 관련한 협의를 했으면 한다"는 의사를 타진했다. 김원우 기자

'불교정보화' 강연회 6일 조계사 교육관서

불교계의 정보화 현황을 짚어보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강연회가 열린다.

(가칭)불교정보화협의회는 6일 오후 4시 조계사 문화교육관에서 '불교정보화 현황과 비전'을 주제로 강연회를 개최한다. 강사는 중앙승가대 김응철교수, 한국불교종단협의회와 불교계 언론사 등이 지난 4월 공동 주최한 '불교정보화실태조사'의 설문 분석 작업을 맡았던 김교수는 이날 강연에서 불교계의 정보화관련 현황을 상세하게 소개하며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KT와 (주)에플웨어 정보통신이 협찬하는 이날 강연은 불교계 각종단과 단체의 전산관련 실무 부서장과 실무자, 불교계 사이트 운영자, IT 업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열린다.

(가칭)불교정보화협의회는 불교계 정보화 분야 발전을 위한 연구와 공익사업 등을 시행하기 위한 실무자 모임으로 현재 18개 종단 및 단체가 동참하고 있다.

임연태 기자 ytlim@buddhapa.com

불자의 생각

금주의 주제: 찬불가 보급

1. 지난주 설문에서 대부분의 불자들이 법회시간외에 찬불가를 부르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는데 그 이유는?
①의식에서만 부르는 것으로 생각 ②재미가 없어서
③아는 곡이 많지 않아서 ④흥이 안 나서

2. 찬불가의 보급이 불자의 신행과 포교에 얼마나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①큰 도움이 된다 ②약간 도움이 된다
③별로 도움 되지 않는다 ④전혀 도움이 안된다

설문 참여: 9월 5일까지 buddhanews.com에서 참가하세요. 푸짐한 경품이 기다립니다. 설문결과는 현대불교 386호 9면에 싣습니다.

사령

승 상임논설위원 차차석

2002년 9월 1일부

부산지사 이전

새주소: 부산시 동구 범일2동 830-501번지 정목빌딩 503호
전화: 051) 632-0064

구독신청 (02)737-0090



"스님·불자님"
부다피아 외환카드 만들어 드립니다.

현대불교신문사
외환카드

부다피아 가입과 동시에 자동으로 보시금이 적립됩니다.
스님, 종무원, 불자 누구나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존의 외환카드 회원도 추가, 교체가 가능합니다.

부다피아카드만의 특전

- 동국대의료원 산하 5개 양 · 한방 병원 진료비 5-20%감면
- 불교전문서점 "여시아문" 할인
- 불교전문쇼핑몰 "마하몰" 할인
- 전국 유명호텔, 콘도 최고 88%할인
- 유명백화점및 할인점 무이자 할부 2-3개월
- 외식업체할인서비스(까르네스테이션 등)
- 국.내외 항공권 3% 할인
- 현대정유 오일뱅크 리터당 30원 적립
- 물품구매 누적금액에 따라 1,000원당 3원에서 10원 적립

가입문의
현대불교신문사 불교 카드 사업단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직통)02-725-1132
대표)02-737-8881

사 설

비구니회관의 '가족도량' 선언

서울 강남 수서지구의 요지에 우람한 초현대식 사찰 겸 회관이 있다. 전국비구니스님들의 염원으로 탄생된 '법룡사'이다.

요즘 이곳에서는 이웃 주민들과 사찰이 호흡을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준비해 주민들에게 사찰을 개방했다. 기도와 정진 등 사찰의 고유 영역 이외에 어린이, 청소년, 주부, 그리고 이웃 가족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경전, 문화, 수련, 상담 등 종합문화센터의 역할을 자임하고 나선 것이다. 이웃과 가족의 정신적 귀의처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 하다.

최근 들어 주5일 근무제가 확산되면서 가족단위의 여가문화가 활성화되고 있다. 이를 위해 대구 관음사 등 일부 사찰들이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늘어나는 '수요'에 비해 '공급'은 충분치 못한 상황이다. 가족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더욱 그렇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할 수 있는 사경, 한문강좌, 레크리에이션, 교양강좌 같은 프로그램이 마련된다면 자녀의 인성교육이나 가족간의 화합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된다. '온 가족 불자화'를 위해서 이보다 더 나은 것은 없다. 미래불자를 키우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몇몇 사찰의 관심만으로는 부족하다. 더 많은 사찰들이 나서야 한다. 부모와 자녀, 이웃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도 절실하다. 또한 프로그램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전문강사 양성도 필수적이다. 비구니회관 '법룡사'의 '가족전법도량' 선언이 보다 많은 사찰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환경영향평가 제대로 해야

북한산과 수락산, 불암산을 터널로 관통하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엉터리로 실시되었다는 사실이 감사원의 감사 결과 밝혀졌다. 그 동안 불교계와 시민·환경단체들은 환경영향평가가 매우 부실하게 이뤄졌고, 형식적으로 협의가 진행됐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북한산 국립공원 관통도로 반대운동을 펼쳐왔다.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개발에 앞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1981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제도는 여러 미비점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한 개발로부터 자연환경을 지키는 유용한 법적 장치이다. 그런데 이 제도의 운영마저 무력화시키는 관행이 정부에 의해 저질러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며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도 국토개발을 관장하는 건교부는 물론 환경영향평가를 감독하는 환경부의 그 누구도 엉터리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일언반구의 사과도 없다. 환경영향평가를 마치기 전에 공사를 시작했고, 부실하기 그지없는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를 협의해줬는데도, 담당 공무원과 책임자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얘기도 들리지 않는다. 이런 정부에 국토개발과 환경보전이라는 업무를 맡겨도 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번 감사원의 지적을 계기로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소리가 드높다. 우리는 법 개정에 앞서 정부당국의 환경보전 의지를 다지는 일이 더 시급하다고 본다. 지금이라도 건교부와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한 취지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다짐을 국민 앞에 내놓아야 한다. 아울러 수행 문화관련 평가항목을 신설하고, 그 규제치를 강화해야 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 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김광삼
인 쇄 인 : 김규석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인터넷 日刊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정보센터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13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 : 다-3379
대표전화 02-737-8881

편집국 (02)722-4162 FAX (02)737-0698
광고국 (02)732-1522 FAX (02)737-0697
구독신청·배달안내 (02)737-009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110-170

구독료 : 1개월 4천원 1년 4만원 영구 50만원

미등록 조계종표방 사찰 2,300곳

호법부조사 무적승려운영 300, 타종단도 282곳

조계종, 종단 등록 촉구…불응땐 제재

승적도 없는 가짜승려가 종단에 등록도 하지 않은 채 사찰을 운영하며 종교행위를 하고 있는 사찰이 300개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1,184곳 사찰간을 조사한 것이어서 전국사찰을 모두 조사할 경우 1천여 곳이 넘는 사찰이 무적사찰일 것으로 추정돼 이에 따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조계종 호법부(부장 종지)는 8월27일 불교회관 1층에서 교구 호법국장단 간담회를 갖고, 지난해부터 조계종을 표방하는 미등록 사찰 2,300여곳에 대한 전화조사를 실시한 결과 1,184곳 응답사찰 중 어느 종단에도 가입하지 않는 무적사찰이 300곳에 이른다는 조사내용을 발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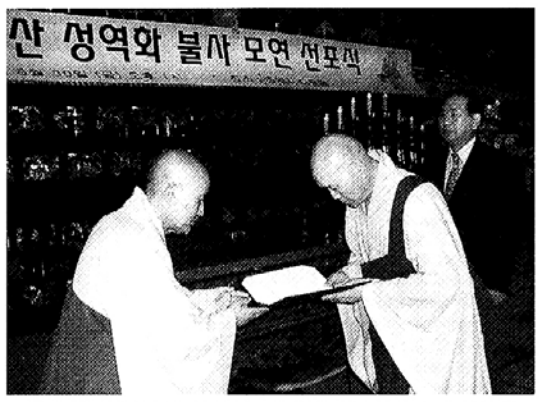
이 조사 내용에 따르면 조계종을 표방 미등록 사설사암은 여타 종단 282곳, 선학원 205곳, 조계종 승려 소유 172곳, 조계종 사찰 소유 77곳, 대각회 69곳, 분한신고(10년에 한 번씩 조계종 승려임을 총무원에 신고하는 것) 미필 승려 소유 33곳, 제적승려 소유 27곳, 소속종단 확인이 불가능한 사찰 소유 11곳 등의 순이었다.

이에 따라 호법부는 9월부터 1차로 조계종 스님 소유 미등록 사설사암 200여곳부터 일제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사설사암의 사찰등록을 유도하고, 종단 사찰등록에 대한 당위성 확보, 사찰의 거래방지 및 경각심 고취, 종단명의 무단사용 방지 차원에서 이뤄진다.

이와 함께 300곳 무적사찰과 종단명의를 무단으로 도용한 여타 종단 282곳 사찰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조계종이 지난해 9월 경찰청의 자료협조를 받아 4,000~5,000곳 사찰에 대한 조사를 실시, 조계종 표방사찰 2,300여곳에 대한 명단을 작성하고, 12월까지 사찰의 주소 및 대표자, 조계종 여부를 확인했다. 호법부는 현재 1,184곳에 이르는 조계종 표방사찰의 재산 및 대표자 승적을 조사하고, 호법종무 프로그램에 전산입력해둔 상태다.

조계종은 1차 조사 후 미등록 사설사암에 대한 종단등록 촉구 공문을 발송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종무행정 차원에서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김원우 기자



◇성역화 불사 추진위원장 정대스님(조계종 총무원장 · 왼쪽) 성광스님(화계사 주지)에게 추진위원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

"대가람역사에 수희 동참하라"

조계종정 법전스님, '성역화 불사' 모연선포

조계종은 8월30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원로회의 의장 도원, 총무원장 정대, 종회의장 지하스님을 비롯, 중앙종무기관 부국장스님, 직할사암 주지, 백창기 중앙신도회장 등 사부대중 5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한국불교 총본사 성역화불사 모연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날 선포식에서 종정 법전스님은 "이제 시절인연이 도래하여 조계종단 중심도장을 중창함이니 종도와 사부대중은 불법을 만고에 빛낼 대가람의 역사에 수희 동참하라"는 종정교시를 발표했다.

한편 조계종은 8월 27일 한 번 통화에 5천원이 적립되는 ARS 전화(060-700-0482)를 개통했다. 김원우 기자

법계구분 가사·휘장 시안제작

의제실무연 25일 3차 회의서 구체검토키로

조계종 의제실무연구회는 8월28일 조계종 총무원 4층 회의실에서 제2차 회의를 열고 철우스님(계단위원회 위원)이 제안한 휘장 디자인 및 법계에 따른 가사 구분안과 복식연구가 김경숙씨가 제안한 휘장 디자인 안을 채택하는 한편, 이날 채택된 안에 따라 시안을 제작해 이달 25일 열리는 3차 회의에서 검토키로 했다

철우스님은 이날 회의에서 휘장에는 법륜마크가 들어가도록 도안할 것과, 법계에 따른 가사구분은 연봉매듭(연봉우리 모양으로 단추 역할을 하는 매듭)의 색깔을 다르게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김경숙씨가 제안한 휘장 디자인은 타원형 안에 상구보리 하화중생을 의미하는 원을 배치하는 모양으로, 법계에 따라 가사색, 녹색, 적색, 황색, 청색, 황금색으로 구분하도록 돼 있다.

한편, 가사의 재질과 색깔에 대해서는 일반 의류법에 따른 색과 소재를 기준으로 삼기로 했으며, 법계에 따라 가사 조수를 구분하는 문제는 다음 회의 때까지 제출키로 한 연구위원들의 연구안을 검토해 확정짓기로 했다. 한명우 기자

'현대' 만평

김 영 민



온가족이 부처님과 함께…

생태·문화기행·봉사 등 주말수련프로그램 개발

조계종 포교원(원장 도영)이 생태기행, 주말 농장, 문화기행, 자원봉사 등 다양한 형태의 주말 수련 프로그램 개발에 나선다.

포교원은 오대산 월정사(9월 13~15일), 천마산 보광사(8월 30일~9월 1일)와 공동으로 주말 수련회를 시범실시(384호 1면 참조)하는 것을 계기로 본격적인 주말 수련프로그램 개발에 나서겠다고 최근 밝혔다. 포교원은 기존의 수련회 형식의 주말 프로그램 외에도 생태기행, 주말 농장, 문화기행, 복지기관 자원봉사 등 다양한 형식과 가족수련, 테마수련 등 대상별, 시기별 특성을 살린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이다.

김재경 기자

교구본사 포교국장협 회장에 오심스님 선출

조계종 포교원(원장 도영)이 주최하는 교구본사 포교국장 워크숍이 8월 29~30일 공주 감사유스호스텔에서 열렸다.

14개 교구본사의 포교국장, 총무국장 스님들이 참석한 이번 워크숍에서는 주말수련회, 여름수련회 등과 관련한 포교활성화 방안에 대해 집중 토론이 진행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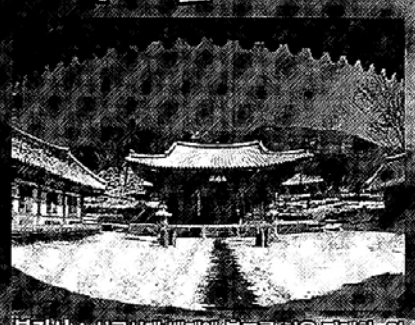
이어 포교국장 스님들은 교구본사 포교국장협의회 회장에 봉도사 포교국장 오심스님을 선출했으며, 교구본사별 주요 군법당 자매결연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의했다.

김재경 기자

제보받습니다

현대불교신문이 보다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전하기 위해 제보창구를 상설하고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화됐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사안(사건, 사고, 미담, 사진 등)에 대한 취재요청은 물론, 각종 행사나 모임에 관한 소식도 좋습니다. 기사화되는 제보 가운데 불교발전과 기사로서의 가치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합니다. 또한 지면제작과 관련한 문의나 투고, 의견개진은 물론 출판과 관련한 각종 제안도 환영합니다.
제보자의 신원은 한국전문신문협회 윤리강령에 의거해 철저히 보호됩니다.
제보전화 : 722-4162 FAX : 737-0698 인터넷 주소: buddhanews.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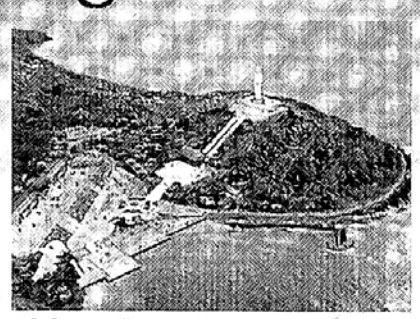
영광 법성포! 생각보다 가깝습니다.(서해안 고속도로 개통)
"진품 명품 영광 법성포 굴비, 칠산 앞 바다 환상의 해안도로 일주, 백제불교의 최초 도래지 불갑사와 상사화"



불갑사 : 삼국시대 백제에 불교를 처음 전래한 인도스님 마라난타존자가 남중국 동진을 거쳐 백제 침류왕 1년에 영광땅 법성포로 들어와 모악산에 최초로 사찰을 창건하였는데, 이 절이 제불사의 시원이요 으뜸이 된다고 하여 불갑사라고 이름지었다고 한다.



상사화 : 꽃이 피어날 때는 잎이 없고 잎이 나올때는 꽃이 피지 않으므로 꽃은 잎을 생각하고 잎은 꽃을 그리워한다는 애틋한 사연을 간직하고 있는꽃



백제 불교 최초 도래지



영광 법성포(영광 굴비):
법성포의 법은 불교를 성은 성인인 마라난타를 가리킨 것으로 인도승 마라난타가 중국 동진을 거쳐 백제에 불교를 전하면서 최초로 발을 디딘것으로 알려져 있다.

초특가
25,000원
(왕복교통비+3식제공+입장료+간식+봉사료 일체 포함)
일정 : 9/7~9/30(매일출발)

※현지사정으로 일정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체(30인 이상)시 단독 행사 가능 (출발장소 단독 출발)

● 출발장소

장 소	출 발 지	시 간
잠 실	너구리동상 앞	06:30
서울역	대우빌딩 앞	07:00
영등포	경방필백화점앞	07:30

전세버스 대여

코스 : 서울 → 영광법성포 → 백제불교최초도래지 → 해안도로일주 → 불갑사 → 서울

외도/해금강[1박 2일] 일시 : 9월 7일, 14일, 24일 회비 : 85,000원
코스 : 합천 해인사 - 부곡(숙박) - 외도/해금강

양지여행사(주) 02)3477-0533
※친목 단체 환영(문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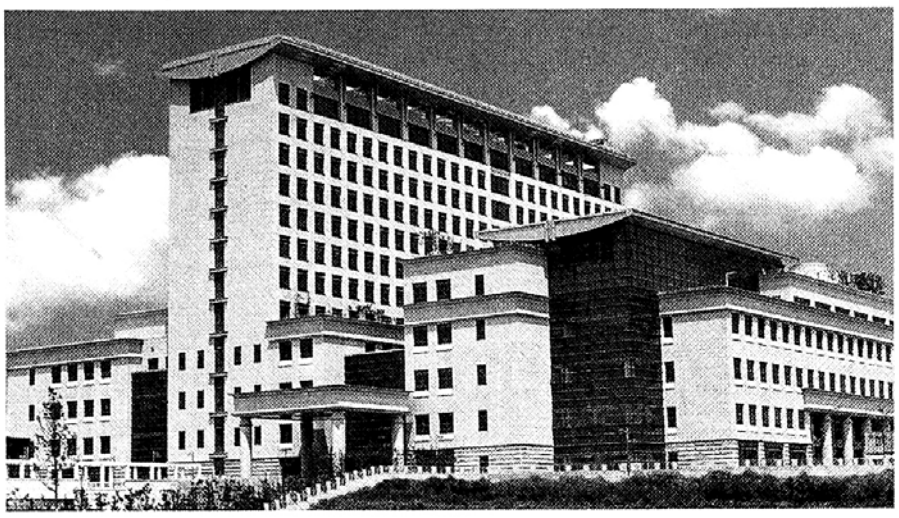
준비 미흡, 의료인력 · 장비 수급 차질
동국대 일산병원 12월 개원 어려울 듯

빨라야 내년 3~5월 … 공신력 추락 우려

12월 개원을 목표로 했던 동국대 일산 불교종합병원의 연내 개원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 동안 '5월 준공, 12월 개원'을 대 대적으로 홍보했던 불교종합병원의 개원 연기는 건립 기금 마련에 동참했던 불자들의 실망은 물론 직원 채용 공모에 참여했던 응시자들의 불만이 겹치면서 동국대의 대외 신뢰도와 공신력 추락에 대한 우려까지 낳고 있다.

동국대와 학교법인 동국학원은 8월 28일 조계종 중앙종회 동국학원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세영)에 일산병원 개원 준비 현황을 보고하면서 "개원 준비 미흡과 의료전문인력 수급차질로 12월 개원은 불가능하며 빨라야 내년 3~5월경 개원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8월 26일 열린 동국학원 제186회 이사회에서도 학교측은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의료장비구입과 시험가동을 하는 기간이 필요하다며 연내 개원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특히 이날 이사회는 일산병원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문제로 논란을 벌였으나 직제와 인원 등을 규정한 정관 개정안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에 따라 전체 인원 576명 가운데 280여 명에 대한 채용을 결정하고서도 합격여부를 통보 못하는 사태가 발생, 응시자들의 불만이 쌓여가고 있다.



◇외관공사가 완료된 동국대 부속 불교종합병원 전경.

동국대 홈페이지 게시판에도 여러 건의 항의성 글이 올라와 있다. '병원지원자'로 밝힌 한 응시자는 "한번도 공식적인 게시 없이 발표를 2달이나 연기하고 있다가 이제는 아예 무기한 연기라니요? 아무리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지만 너무한 처사 아닙니까?"라고 울분을 토했다.

동국학원 이사인 영배 스님은 이와 관련 8월 28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동국대뿐 아니라 교계의 숙원 불사로 많은 불자들의 기대를 받고 있는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현재까지 진행된 병원 건립 사업을 재검토하고 그 내용을 공론화하여 학내 구성원과 종단의 이해를 구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재단 사무처장 장윤스님도 "합격 여부를 통보받지 못해 기다리는 사람들에 대한 대책 등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식사동에 지하 2층 지상 12층 규모로 들어설 동국대 부속 불교종합병원은 1998년 5월 기공식을 갖고 1999년 10월 착공에 들어가 27일 준공식을 앞두고 있다.

권형진 기자 jinny@buddhapia.com

8월 27일 개원한 태고종 원로회의 초대 의장에 일우(一宇)스님이 만장일치 추대됐다. 1927년 경북 청도에서 태어난 일우스님은 1943년 적천사에서 김용택스님을 은사로 득도하고 44년 동화사 강원을 수료했다. 스님은 대구 동화사 주지, 태고종 경북교구종무원장, 중앙종회의장 등을 역임했다. 다음은 8월 27일 가진 기자들과의 일문일답.

"종도 교육 · 재원 확보에 온힘"

태고종 원로회의 초대의장 일우 스님



◈원로회의 개원이 갖는 의미는?

"태고종은 전통종단으로서 수행과 경륜을 쌓은 원로들이 많이 생존해 있다. 또 이 원로들은 태고종 창종의 1세대로서 그 누구보다도 부종수교(扶宗樹敎) 정신이 충만해 있다. 1세대들인 원로들이 앞장서 종단을 개혁시키고 이끌어 가는 견인차 역할을 하겠다는 뜻이다."

◈내분을 겪은 태고종이 신뢰받는 종단이 되기 위해선 원로회의 역할이 클 것으로 기대된다.

"태고종의 원로들은 조계종과 또 다르다. 주지나 종회의장, 교구종무원장 등 주요 소임을 오랫동안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사판의 경험들이 풍부하다. 이러한 경륜을 살려 종단의 현실을 잘 파악하고 정통종단으로서의 위계질서와 종풍진작에 앞장설 것이다. 또 종단의 발전방향과 여러 행정전반에 관해서도 집행부에 조언할 것이다."

◈태고종이 새롭게 분발해야 할 부분은.

"태고종은 승려수도 많고 사찰도 많지만 사설사암이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종도들의 종단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도가 떨어지는 편이다. 따라서 재정 등에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제 종헌종법을 새롭게 정비하고 전 종도가 새로운 마음으로 환골탈태하겠다고 나선 만큼 종단이 새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전 종도가 힘을 모아야 한다. 우리 종단은 무엇보다도 출가때 다짐한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초발심을 견지할 수 있도록 종도들의 교육과 연수에 온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선교육 후득도' 제도가 정착되도록 함과 동시에 우리 종단의 가장 취약점이랄 수 있는 재원 확보에도 원로들이 솔선수범할 예정이다."

◈요즘 사회가 갈수록 각박해 경쟁이 심화되고 물질만능주의가 판을 치고 있다. 원로로서 불자들에 당부할 말은.

불자들부터 자비행 · 봉사 많이 하길

"불자들부터 봉사를 많이 하고 자비행을 많이 했으면 한다. '무주상보시'라는 좋은 말을 누구나 다 알것이다. 이것을 말로만 새길 것이 아니라 불자들이 대대적으로 실천했으면 한다. 마음공부로 자신을 닦고 부처님말씀을 실천에 옮겨 사회를 맑게 해야 한다. 요즘같이 물질이 풍부한 시대에는 외부에 관심을 갖고 소유에 대한 집착이 경쟁적으로 심해지기 마련이다. 남보다 많이 가지려고 하는데서 불행이 온다. 물질에 치우친 삶을 경계해야 한다. 불자들이 본을 보인다면 이 사회는 밝아지고 한층 살기 좋아질 것이다."

이경숙 기자 gslee@buddhapia.com

'북한산 도로' 환경영향평가 미흡

감사원 지하수위 변동 · 회룡사 인근 소음 조사안돼
불교계 평가기준 · 항목조정, 국민참여 등 바람직

최근 감사원의 감사결과, 불교계와 환경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는 북한산 관통도로 건설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 평가가 미흡하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8월 26일 환경부는 "감사원이 북한산 관통도로 건설사업의 환경영향평가를 검토한 결과 지하수위 변동 여부와 회룡사 인근의 소음영향 등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감사 결과를 통보해 왔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서에서 이산화질소의 환경기준(연간 0.05ppm) 초과를 억제하는 데 대한 건설회사의 대책도 불충분하다고 지적하고, 북한산 관통도로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재검토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7월 22일 건설교통부에 △완공 후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환경기준 이상의 배기가스가 배출되는 지역에 대해 근본적인 저감 대책을 수립할 것 △길이 4km의 터널 건설이 지하수에 미치는 영향과 지하수 하강으로 인한 상부계곡 및 지표샘물에 미치는 영향, 이에 따른 대책을 수립해 제출할 것 △회룡사 인근 지역을 포함해 공사완공 후 소음영향을 조사하고 기준초과시 대책을 강구할 것 등을 요청했다.

이러한 환경부의 발표에 대해 불교계에서는 "공사 완공 이후에 소음 및 배기가스 대책을 수립하라는 것은 환경 보호를 외면한 처사"라며 "환경부가 나서서 환경파괴를 조장하고 있다"는 반응이다. 불교계는 이와 관련한 대규모의 항의시위를 4일 경에 벌일 계획이다.

환경영향평가가 불교계를 비롯한 국민들의 불신을 받는 이유는 환경영향평가가 본연의 목적인 자연환경 보호보다 건설업계의 공사를 합리화했다는 평가를 받기 때문이다. 대규모 사업을 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를 비롯한 교통영향평가, 인구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에너지 사용 계획 등 다양한 제도적 보완장치들이 존재한다. 하지만 이들 평가제도들은 건설계획이 이미 수립된 상황에서 이에 맞추어 형식적으로 실시되거나 건설공사 관련 당사자들의 의견 수렴이 불충분한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 시민환경단체의 주장이다.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관통구간의 경우, 환경영향평가는 천성산 인근에 있는 수많은 자연늪들을 평가대상에서 제외시켜버려서 말썽을 빚었다. 또한 수락산 · 불암산 관통도로의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를 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때문에 수락산 · 불암산 관통도로 반대운동을 하고 있는 노원도봉시민연대는 "배기가스 등 환경오염이 1백만 노원 도봉 상계 지역주민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며 이 노선의 백지화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자 최근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를 보완할 여러 가지 방법 마련에 나서고 있다.

기존의 환경영향평가를 보완할 대안 중 대표적인 것이 문화환경영향 평가. 문화환경영향평가는 최근 북한산 관통도로, 천성산 · 금정산 관통고속철도 문제가 불거지는 과정에서, 대규모 개발사업시 기존의 환경영향평가 이외에 '전통사찰보존법'과 '문화재보호법' 등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종교문화시설과 비지정문화재, 매장문화재 등에 대한 영향평가도 사전에 실시해 이에 대한 훼손을 막자는 제도다.

그 다음으로 관심을 끄는 것은 사전환경성검토. 사전환경성검토는 현행 환경영향평가제도가 대부분의 사업이 타당성조사와 병행하여 실시하지 않고 계획이 확정된 후 사업실시단계에서 주로 오염의 저감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입지의 타당성 등 근본적인 친환경적인 개발의 유도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도입이 요청되는 제도다. 이 제도는 건설계획을 수립 · 확정하거나 사업을 인가 · 허가 · 승인 · 지정하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것이다.

결국 환경영향평가의 개정은 최대한 폭넓은 여론 수렴과 자연을 비롯한 역사, 문화 유적 보호 대책을 마련하면서 동시에 경제적 이득을 최대한 얻기 위해 건설사업 추진기간 단축 문제를 검토하는 방향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이에 대해 조계종 공동대책위 김용구 간사는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 항목과 평가수준을 재조정하고 다양한 주민참여제도를 신설하고 강화하는 것 등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유신 기자 shanmok@buddhapia.com

인생을 바꾸는 아름다운 힘
아봐타코스
당신 마음의 무게는_?
천근, 만근??
깃털처럼 가볍게 사십시요!
지금 당신을
진정한 행복/풍요/건강으로
초대합니다.

입지만 강력한 마음수련 여행 – 해산스님과 함께 하십시요
해산아봐타 센터 011) 606-1976 www.haesanavatar.com
세이아봐타 센터 02) 782-0022 www.sayavatar.com

마음 밝히는 참선 도량
공생선원
공생선원
우리는 공생共生의 도리를 알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우주와 내가, 자연과 내가 모두 함께 더불어서 사는 이치를 알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일체 만물이 나를 위해서 존재함을 알면 세상 어느 것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나를 알고, 세상과 함께 사는 소중함을 깨닫고자 참선 수행함이 바로 공생선원이 나아가고자 하는 길입니다.
강좌 개설 | 참선반, 참선 입문반, 경전반, 기본교육
공생선원
9월 8일 문을 엽니다
공생선원에서 참선을 하면 본래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본래마음을 되찾는 지름길인 참선을 통해서 자기의 마음을 밝히고,
더불어서 자기를 믿고 사는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서울시 도봉구 쌍문2동 653번지 삼환프라자 708호, 전화 900-2448

일 주 문



일 미야바시 스님 접견

정대 조계종 총무원장은 8월 27일 신임 일한교류협회장 미야바시(일본 정토종 대표) 스님의 예방을 받았다.



수재의연금 합천군 전달

세민 합천 해인사 주지는 8월 21일 합천군 청덕면 수해현장을 방문, 1천만원의 성금을 심의조 합천군수에게 전달했다.



신규 교직원 신행지도

법산 동국대 정각원장은 8월 28~30일 동국대 신규 교직원(교수 15명 · 직원 7명) 22명의 수련회 및 수계식을 가졌다.



'더불어 사는 삶' 주제 법회

도업 동국대 경주캠퍼스 정각원장은 11일 오후 4시 정각원 법당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삶' 주제의 법회를 봉행한다.



수재민돕기 성금 모금

정수 서울 성북구사암연합회장은 8월 24일 올림피아호텔에서 정기모임을 개최하고 수재민 돕기 성금을 모금했다.



차인지도자연수회 강의

동진 칠곡 망월사 주지는 8월 16일 대구은행 연수원에서 열린 한국차인연합회 차인지도자 연수회에 초대돼 강의했다.



월드컵 성공 회향 · 천도재

성원 강화 선원사 주지는 7일 오전 10시 2002년 월드컵 성공 회향식과 900일 천도재 법회를 봉행한다.



8일 공생선원 개원식

무각 스님은 8일 오후 2시 서울 도봉구 쌍문2동 삼환프라자 708호에서 불교포교원 공생선원 개원식을 갖는다.



시립박물관 활성화 워크숍

김종규 한국박물관협회장은 8월 31일~9월1일 통도사성보박물관에서 사립박물관 활성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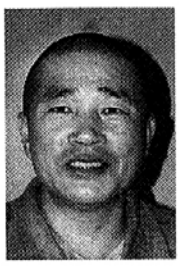


국제아트페어전 참가

한기늠 조각가는 3~8일 부산 해운대구 한국국제아트페어 전시장서 열리는 국제아트페어2002전시회에 참가한다.

"종단 이해관계 떠나 함께 협의"

광주사암련 제15대 회장 현지 스님



미래불교 이끌어 갈 주역 양성 급선무

"광주지역 불교 활성화를 위해 소속 종단의 이해관계를 떠나 함께 논의하고 함께 결정할 것입니다. 작은 것도 공유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광주불교사암연합회 제15대 회장에 선출된 현지스님(원효사 주지 · 사진)은 요즘 지역의 큰어른을 찾아뵙느라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효율적인 포교방법에 관한 조언을 듣기 위해서다.

포교에 남다른 원력을 갖고 있는 현지스님은 어린이, 청소년, 청년층 포교에 특별한 관심을 쏟고 있다. 최근 장년층 신도들은 증가세에 있지만 어린이법회나 학생회 법회는 점점 사라지고 있어 "미래불교를 이끌어갈 주역을 키우는 일이 급선무"라고 강조하고, "청소년음악제, 합창제와 같은 문화행사를 마련해 불교를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광주시청을 비롯한 각 구청과 경찰서 등 직장내 신행단체 결성을 추진하고 있다. 광주시청의 경우 불자회 구성을 위한 인원을 확보하고 구체적인 논의에 들어간 상태다.

스님은 "사찰을 지역별로 분담해 신행단체들을 조직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사암연합회 차원에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12월 완공예정인 광주불교회관에 직장단체는 물론 재가신행단체들을 위한 공간도 마련해줄 계획이다.

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사회복지법인 설립이 목표"

동화사 '자비의전화' 지도법사 덕현 스님

"더불어 사는 존재가치를 일깨워 사회의 어두운 곳에 밝은 등불을 비추는 것이 복지가 아닐까요"

8월 28일 동화사 부설 사회복지시설 자비의전화 지도법사로 취임한 덕현스님(사진)은 "대구경북지역 불자님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부처님 정법의 실천을 위해 사회복지 봉사활동에 앞장서야 합니다"라고 인사말을 대신했다.



'자비 · 관음의 집' 등 하나로 묶어

"대구지역을 대표하는 동화사에 사회복지법인 하나 없다는 것도 부끄러운 일이지요. 다행히 동화사에 새 주지스님이 부임하신 이래 복지문제에 상당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이라 좋을 결과가 있을 듯 보입니다"

조계종 9교구 본사 동화사 사회국장 소임도 맡고 있는 스님은 "임기동안 동화사에서 운영하는 자비의 전화, 자비의 집, 관음의 집 등을 한데 모아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목표"라며 "주지 지성스님을 도와 동화사가 지역불교계에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국대 불교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고 맹인불자들과 함께 생활하며 봉사하는 등 복지사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던 중 자비의전화 지도법사에 위촉되었다는 덕현스님은 "미력하나마 맡은바 소임에 최선을 다해 자비의 전화가 명실상부한 지역의 대표적인 복지 및 상담시설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구= 박원구 기자

행원문화상 수상자 발표

역경 성우스님, 문학 김영무, 예술 강형진 씨

재단법인 행원문화재단(이사장 주영훈)은 8월 19일 이사회를 열고, 제11회 행원문화상 역경분야에 성우스님, 문학분야에 김영무, 예술분야에 강형진 씨를 각각 선정했다.

행원문화재단은 선정 이유에서 "성우 파계사 주지 스님은 '범망경 보살심지계품'을 비롯한 다수의 경전을 번역해 불교학 발전의 기초를 다진 공로가 높게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희곡작가 김영무 씨는 1969년에 등단 후, '나비야 청산에' 등을 집필, 불교포교에 기여했고, 강형진 니르바나 실내악단 단장은 국악중심의 불교음악계에서 불교와 서양음악의 접목을 통해 불교음악의 대중적 지평을 넓혀왔다"고 밝혔다.



◇성우스님



◇김영무 씨



◇강형진 씨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상금 300만원이 수여되며 부상으로 죽비가 전달된다.

한편 재단측은 "내년부터 수상선정방식을 변경, 수상자 선정분야 구분을 없애고 다양한 분야에서 불교 발전과 포교에 기여한 공로자 3인을 선정 포상한다"고 밝혔다.

시상식은 24일 오전 11시 한국일보사 13층 송현클럽에서 개최된다.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승리부대 신교대 군법당 기공

육군 승리부대 신교대 호국천불사 건립을 위한 기공식이 8월 24일 법당 부지에서 열렸다. 이날 기공식에는 조계종 포교원장 도영스님, 김말환 1군법사, 승리부대장 등 3백여 불자들이 참석했다. 1억5천만원을 들여 90여평 규모로 지어지는 호국천불사 법당은 갓 군에 입대한 신병불자들의 신행활동 공간으로 활용된다.



군승후보생 불공의식 등 교육

조계종 군불교위원회(위원장 성광)는 8월 22~26일 남양주 봉선사에서 군승사관후보생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불공의식에 대한 기본습의교육과 불교문화 해설, 설법점검 등의 교육과 군법당 법회 참관, 군종병과의 대화 등으로 진행됐다. 8월 16~20일에는 3사관학교 호국사에서 군승예비요원 교육을 실시했다.



제29회 상월 대조사기 배구대회

제29회 상월원각 대조사기 전국청년회 배구대회가 8월 18일 충북 단양 공설운동장에서 개최됐다. 이날 대회에는 천태종 종정 도용스님, 총무원장 운덕스님 등 종단스님들과 청년회원 등 총 1만여명이 동참했다. 배구대회 우승은 대전 광수사 청년회가, 응원상은 부산 삼광사, 족구대회 우승은 포항 황해사가 차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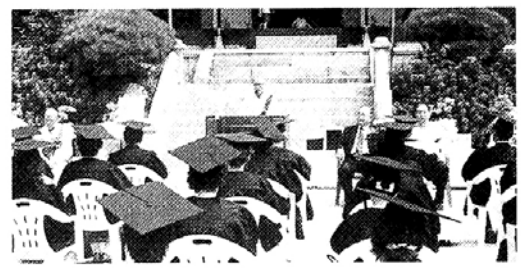
마곡사 본말사 신도임원 연수

조계종 제6교구 본사 마곡사 본말사 신도임원 연수가 8월 24~25일 양일간 12개 신도회와 1개 신행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마곡사 연화당에서 열렸다. 이번 연수는 '불교 지도자론'(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 '불교사회복지에 대하여'(임혜영 불교사회복지 연구원), '자비의 명상'(마가 마곡사 교무스님) 등의 강의로 진행됐다.



대승종 종도대상 수련회 개최

대승종은 8월 28~30일 충북 괴산 다보수련회에서 종도들을 대상으로 수련회를 개최했다. 대승종 종정 도암스님, 총무원장 일오스님, 원로원장 법효스님, 종회의장 법정스님 등 7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이번 수련회에서는 종단발전을 위한 제언과 효율적인 포교, 사찰 운영 등에 대한 교육이 진행됐다.



내원불교 교양대 1기 수료식

내원불교 교양대학(학장 정련)은 28일 대적광전 앞마당에서 제1기 기초교리반 수료식을 봉행했다. 정련스님, 한재구 내원정사 약사회 회장, 곽만연 교수, 이욱태 법사를 비롯 졸업생 100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열린 이날 수료식에서는 안병호 학생회장을 비롯해 87명이 수료증을 받았다.

법사과정(3년)

능엄경 대강좌



송찬우교수

⊙출가수행자 뿐아니라 재가수행자들도한번쯤은 꼭 독파해야할 경전 능엄경!
지행합일의 실천수행의 경전, 선학, 교학,밀교를 융합시킨 경전을 송찬우 교수 께서 시작합니다.

- 楞嚴十義 -

① 色 { (일곱군데에서 마음이 있다고 진술함) (여덟 가지 돌려보내는 예를 통하여 견을 밝힘) }
② 受 { (근원으로 돌아가 한가지로 섬) (세계와 인간을 분석하여 설명함) }
③ 相 { (여섯 가지가 불리면 곧 하나마저도 없어짐) (25명이 그들의 원통을 저마다 선택하여 피력함) }
④ 行 { (능엄주의 持誦 과 묘용을 설함) (보살이 마땅히 나아가야 할 단계들을 설함) }
⑤ 識 { (수행하는 데에서 오는 장애는 모두 오음에 의한 망상임) (그망상을 세밀하게 50가지로 나누어 설함) }

1. 개강일시 2002년 9월 10일(화)오후 2시
2. 과 정 정규반 · 통신반
3. 원서교부및접수 02) 732-1206~8

동산불교대학 부설 어학강좌(1)

영어로배우는 불교



조길문교수

21세기 세계 공용어는 영어로 불교인들도 국제화 세계화하기 위해서는 영어불교를 알아야 합니다

◎ 일 시 2002년 9월 11일(수) 오후 7시 개강
◎ 과 목 부처님 생애 · 교리 · 깨달음의 길
◎ 교 수 조길문교수(승가대)

동산불교대학 부설 어학강좌(2)

산스크리트문법및 강독



최종남교수

부처님이 가르친 진리의 원전을 공부하기 위한 산스크리트 강좌

◎ 일 시 2002년 9월 13일(금) 오후 2, 7시 개강
◎ 과 목 산스크리트어,팔리어,티벳어
◎ 교 수 최종남교수(승가대)

불교한문학과 (9월12일 (목)오후 7시개강

명심보감 · 논어 대강좌



김병조교수



심재동교수

▣정규반 · 통신반

교수진	· 심재동 교수(동국대), 한정섭 법사 · 송찬우 교수(승가대), 무진장 스님, 김병조 교수

⊙ 한문법 해석(1): 한자어의 품사관계
⊙ 한문법 해석(2): 한문장의 구조관계
⊙ 명심보감: 자녀교육의 지표로 삼는다.
⊙ 장 자: 중국고전의 명저인 장자를 통하여 불교와의 차이점과 옛선인들의 지혜를 배운다.
⊙ 주 역: 중국인의 사유체계의 결정인 주역의 기본을 공부함으로서 중국철학 핵심인 도교, 유교와 문학, 의술 등에 끼친 영향과 그정수를 배운다.
⊙ 반야심경
⊙ 논 어: 공자님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한문법의 적용에 대한 연구
⊙ 금강경: 세계화된 문법원리에 의거해서 직역에 충실한 학습 목표.
⊙ 법화경: 방편품, 관세음보문품등 한문법 적용
⊙ 화엄경: 십지품, 여래출현품등 한문법 적용
⊙ 육조단경: 선종의 소의 경전, 한문법 적용

원서접수 및 접수문의 02)732-1206~8

2002년도 도시생활 포교를 위한(1년과정)

한글의식교육원 신입생 모 집

1. 지도법사 및 교과내용

지도법사 : 권지홍 법사, 문종순 법사, 양성도 법사

한글불교의식 I (전반기)	한글불교의식 II (후반기)
◇아침,저녁으로 행하는 예경의식 ◇사시 또는 형편에 따라 행하는 헌공의식 ◇정기적으로 행하는 법회의식 ◇송주……장엄염불	◇백일, 돌, 생일의식과 결혼의식 ◇장례의식(1)……일반의식 ◇장례의식(2)……임종, 매장, 화장의식 ◇재공의식 및 영혼천도를 위한 천도의식

2. 모집방법 및 전형

모집인원	지원자격	제출서류	원서교부 및 접수	강의일시 및 장소
• 정규반 50명 (1년) • 연구반 30명 (1년) • 야간반 30명 (1년)	• 한글불교의식 희망자 • 포교당 운영자	• 입학원서 1통 • 주민등록 등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3장	• 2002년 9월 7일까지 (토요일)	• 매주 토요일(정규반) 오후 1:00~3:00 • 매주 수요일 오후7시(야간반)

※(연구반은 정규반 이수자에 한 함)

3. 개강일시 2002년 9월7일(토) 오후1시(정규반)
11일(수)오후7시(야간반)
4. 입 학 금 일십만원
5. 원서교부 및 접수 본 연구원 사무국 :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0
TEL 02)732-1206 / FAX 732-1207
6. 특 전 수료자는 동산의식법사 수여

불교교육 전문도량 동산불교전문연구원

불교 교육 전문 도량 동 산 불 교 대 학

본 연구원 사무국 :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0
TEL 02)732-1206~8 / FAX 732-1207
인터넷홈페이지: www.Dongsanbud.net

불교 의식 교육 도량 동산불교의식 교육원

부산철도정비창불자회 성지순례

부산철도차량정비창 불자회(회장 최비석)는 8월 25일 경남 합양 겁외사와 벽송사 서암, 전북 남원 실상사로 순례를 다녀왔다. 회원 및 가족 90여명이 동참한 이날 도법스님은 법문을 통해 "만생명의 존엄성과 소중함을 알고 있으면서도 인간의 이기에 의해 무시되고 있다"며 "함께 공존할 수 있도록 불자들이 앞장서 보호할 것"을 당부했다.



승만부인회 김제 망월사 등 참배

철도청 성북승무사무소 법우회 가족모임인 승만부인회(회장 김재남)는 8월 24~25일 김제 망월사, 부안 개암사, 내소사, 서산 개심사, 간월암 등 서해안지역 사찰을 순례했다. 매년 가져온 수련회를 성지순례로 대체한 것. 승만부인회원과 법우회원 25명이 가족 단위로 참가해 가정의 화목과 직원들의 무사고 운전을 기원했다.



경산조폐창 금강회 수련대회

한국조폐공사 경산조폐창 금강회(회장 윤종우)는 8월 24~25일 합천 해인사 문수암에서 수련회를 열었다. 이날 참가한 회원 및 가족 50여 불자들은 108참회와 1080배, 참선 등 용맹정진을 펼쳤다. 수련회에 이어 해인사 성보박물관을 참배하기도 했다. 윤종우 회장은 "수련회에서 회원들이 흘린 땀은 참다운 불자로 거듭나게 하는 값진 보배"라며 "더욱 열심히 정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인터넷 화상 무료 법률 상담
law.buddhapia.com
■전화상담 : 매주 월~금 (오전 11시~오후 4시)
☎ 02)596-7231
■방문상담 :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오후 4시)
☎ 02)722-4162

국회정각회 직원신도회 창립 20주년

조직 대폭정비 재도약 나서

정각선원 개원 등 국회 불심 모으는 구심점

초창기 공무원불자 신행의 '선구자' 역

입법공무원불자들의 모임인 국회정각회 직원불교신도회(회장 김종환 국방위 전문위원)가 창립 20주년을 맞아 재도약에 나선다.

국회직원신도회는 국회의원들의 모임인 정각회 창립에 힘입어 20여명의 회원으로 82년 5월 창립한 이래 법회와 성지순례, 큰스님 초청법회 등을 열어 활발한 신행활동을 보여왔다. 95년에는 타종교인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대표기관인 국회내에 정각선원을 개원, 국회의원과 사무처 직원신도회는 16대 국회내 정각회가 구성되지 않은 빈자리를 메우는 신행단체로 거듭나고 있다.

국회직원신도회는 산업은행, 증권거래소, 방송사 불자회 등 여의도지역 직장불교단체와의 교류를 추진하는 한편 이들에게 정각선원을 개방하는 문제도 고려중이다. 또 창립 멤버를 비롯한 퇴직한 회원들과 현 회원들의 만남의 장을 마련, 회원간 정을 쌓아 나갈 계획이다.

초대 회장을 역임한 곽재규 씨는 "어려운 여건속에서 20년전 직원신도회를 결성했던 불자들의 돈독한 신심이 오늘의 직원신도회로 성장하는 초석이 됐다"며 "앞으로도 굳은 신심과 하나된 마음으로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해 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국회직원신도회는 8월 28일 국회내 정각선원에서 무여스님(봉화 축서사 조실)을 초빙,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16대 국회 원 구성 지연과 본회의 등 바쁜 일정으로 창립기념일보다 3개월여 늦춰 열린 이날 법회에는 권익현 전 정각회장, 하순봉 한나라당불자회장, 곽재규 초대 회장 등 150여명이 동참했다.

신행단체 담당=**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국회정각회직원불교신도회는 창립 20주년을 맞아 조직정비 등 재도약에 나섰다. 사진은 8월28일 국회내 정각선원에서 열린 무여스님초청 기념법회 모습.



"한나라·민주당 불자회와 접촉 정각회 구성 중간 가교역할"

김종환 직원신도회장 인터뷰

"정각회 구성을 위해 한나라당불자회, 민주당 연등회와 접촉을 가질 계획입니다. 두 정당이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직원신도회가 중간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한다면 가능하리라 봅니다."

"정각회 구성은 모든 불자들의 바램"이라고 말하는 김종환 국회정각회 직원불교신도회장(사진)은 "직원신도회가 모범을 보이겠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지난 1월 회장을 맡은 이후 모든 회원들을 면담하는 등 모임 활성화를 위해 의욕적인 활동을 펼쳐왔다.

서울 개포동 금강선원 신도이기도 한 김종환 회장은 "회원들이 바른 불교를 배워 실천하는 불자상 확립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8월27일 서울 법련사에서 열린 의식집전 교육에 참가한 불자들이 목탁연습을 하고있다.

"목탁은 이렇게 치는 겁니다"

서울·경기 직장·단체 임원 의식집전 교육

27일 서울 사간동 법련사. 50여명의 30~50대 남녀들이 목탁 하나씩을 들고 주경 스님(조계종 포교원 신도국장)과 목탁을 번갈아 쳐다보고 있다. 조금은 생소한 듯, 조금은 신기한 듯, 얼굴엔 어린아이가 새로운 물건을 접할 때 보이는 표정이 나타난다.

목탁을 잡고 있는 이들은 서울경기지역 직장·직능불교단체 임원들. 건설교통부 불자회, 전국교사불자연합회, 문화방송 불교연구회 등 25개 단체 임원들이 8월 27일부터 9월 5일까지 법련사에서 의식집전교육을 받고 있는 것이다.

오늘 교육은 불교의식의 이해, 집전방법, 의례별 찬불가 집전방법 등. 교육을 시작하면서 주경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2500년 동안 부처님 법이 전해져 올 수 있었던 것은 계율 덕분"이라며 "개인이 지켜야 할 '계'와 대중이 지켜야 할 '율'을 알아야 불교를 알 수 있다"고 지적, 참석자들에게 의식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목탁 집전교육 도중 대한광업진흥공사 광불회 허선희 총무(31)는 "스님이 치는 목탁소리는 듣기 좋은 데 내가 치는 건 듣기가 거북하다"며 "스님 목탁보다 내 목탁이 작아서 그런 것 같으니 목탁을 바꿔 달라"고 주문해, 주위에 웃음꽃을 피우기도 했다.

교육과 관련 농협불교회 김영일 총무(41)는 "작년에 이틀 동안 교육을 받았으나 미진해 올해 다시 교육을 받는다"며 "작년보다 참여인원도 많고 프로그램도 다양해져 직장에서 법회를 열 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교육은 29일 찬불가 배우기, 9월 3일 법회의식의 절차와 집전방법 등으로 이뤄졌고, 5일에는 실수 및 평가의 시간을 갖는다.

남동우 기자

경남공불련 대의원총회

시·군불자회 활동 점검

경남공무원불자연합회(회장 공창석)는 7~8일 남해 보리암에서 대의원총회를 개최한다.

이번 총회에서는 경남지역 수해복구 봉사와 관련해 경남도청불자회와 창원, 마산, 밀양시 등 20개 시·군불자회의 활동을 점검한다. 또 이달말로 예정된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 창립 2주년 기념행사, 사무국 임원 추인, 각 시·군불자회 임원 및 신행활동 소개 등도 이뤄진다.

한나라당 불자의원들

당직 진출 두드러져

한나라당 소속 불자의원들의 당직 진출이 두드러지고 있다.

16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이후 주요 당직에 있는 의원은 최고위원 하순봉, 김진재 의원과 사무총장 김영일 의원, 정책위의장 이상배 의원 등이다.

한나라당 불교실무지원단 관계자는 "불자회 통합이 이뤄지면서, 불교계와 대화통로가 마련된 것과 맞물려, 불교계 정책과 사업에 대한 측면지원이 수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모임에선

전국경찰불교회 사무실 현판식

전국경찰불교회(회장 김중겸)는 5일 오후 5시 경찰청 경승실에서 사무실현판식을 개최한다. 현판식에 이어 경찰청불교회는 법당에서 신중탱화 점안법회를 갖는다.

법륜교수불자회 새 임원진 구성

법륜교수불자회(회장 강수균)는 강수균 신임회장 선출에 따라 8월 20일 후속인사를 단행했다. 부회장에 도태성 교수(영진전문대), 총무이사에 이정희 교수(경산대), 사업이사에 장호경 교수(경산대), 편집이사에 이강옥 교수(영남대), 정보이사에 노용호 교수(대경대), 감사에 박용억(경산대), 이준일 교수(대구보건대), 불교문제위원장에 김태엽 교수(대구대)를 각각 임명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장경 가운데 가장 오래된 남전 잡아함경, **쌍윳따니까야**를 아십니까?

오늘날 **인문사회과학에서 중요한 테마**가 되는 화두에 대해 부처님께서 경전을 통해 답변하고 계신 것을 아십니까?

역사적인 부처님의 원음(原音) 가르침
한권으로 읽는 쌍윳따니까야

"오늘 부처님께 묻는다면"



<주요목차 소개>
▲삶이 덧없고 목숨은 짧은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깨닫은 이는 특별한 말을 사용할까 일상용어를 사용할까
▲두려움은 어디서 올까 어떻게 버릴 수 있을까
▲사회적인 부와 감각적 욕망을 어떻게 보아야할까
▲딸이 태어나면 실망해야할까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권력에 도취한 삶과 바른 인간의 삶은 어떻게 다를까
▲욕망을 충족시키는 것이 올바른 정치의 길일까
▲수행을 닦는데 성적 차별이 장애일 수 있을까
▲지옥으로 이끌지 않는 천국은 있을까 없을까
▲깨닫음을 이룬 뒤 말씀하시길 주저한 까닭은 무엇일까
▲종교가 달라 적대감이 일어난 때 어떻게 해야 할까
▲무례한 말로 모욕을 당했을 때에 어떻게 해야 할까
▲신과의 합일을 원하는 종교와 불교는 어떻게 차이가 날까
▲스승과 제자는 서로의 속박에서 어떻게 벗어나야 할까
▲탐욕과 미움은 어디서 일어날까
▲약자를 폭력으로 다스리는 정치는 옳은 길일까
▲왜 존재를 뛰어 넘어서 원인을 물어야 할까
▲불교적 인과원리인 연기의 일반법칙이란 어떠한 것일까
▲어떻게 생노병사의 세계를 소멸시킬 수 있을까
▲이 세상은 어떻게 생성하고 소멸하는가
▲연기의 심오한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 올바른 수행자가 되려면 무엇을 두루 알아야 할까
▲세계에 대한 경험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
▲무지한 자가 깨닫은 자라고 자칭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깨닫기 전에 부처님의 궁극적인 의문은 무엇이었을까
▲바다보다 많이 우리가 흘린 눈물의 의미는 무엇일까
▲불행하고 가난한 사람을 보면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타인을 방문할 때 상대에 대한 배려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해탈한 수행승에게도 이득과 환대와 명성이 장애일까
▲수행자가 여인을 방문할 때 몸가짐은 어떻게 취해야 할까
▲나와 내 것이라는 교만을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
▲겉멋이 든 수행자를 부처님께서 어떻게 가르치셨나
▲홀로 떨어져 수행한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란 무엇일까
▲몸은 병들어도 어떻게 하면 마음은 병들지 않을까
▲누가 묻는다면 부처님께서 무엇을 가르쳤다고 해야 할까
▲시간의 악마성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무엇일까
▲삶의 무거운 짐을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을까
▲끝없는 추론과 헤아림은 어디에서 올까
▲수행승들이 말씀을 부리면 부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
▲제자의 죽음 앞에서 부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
▲이·시대를 진지하게 성찰할 때 아라한 무엇일까
▲정신적으로 높은 경지에 들더라도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일체의 세계란 무엇이며 경험 밖의 것을 말할 수 있을까
▲수행자는 어떻게 자신의 죽음을 맞이해야 할까
▲부처님의 가르침이 현세에서 유익한 까닭은 무엇일까
▲부처님께서 새내기 수행승에게 병문안가서 어떻게 하셨을까
▲사물이 감각되고 인식될 때에 나는 그 가운데 있을까
▲베다(天啓書)에 정통한 자의 참다운 뜻은 무엇일까
▲귀부인의 오만한 초대에 수행승은 어떻게 응했을까
▲거센 파도와 소용돌이가 있는 인간의 바다란 무엇일까
▲주관과 객관 그리고 욕망의 관계는 어떠한 것일까
▲부처님께서 피곤하셨을 때에 어떻게 법문을 하셨을까
▲어떻게 우리가 신들의 밧줄과 악마의 밧줄에 묶일까
▲여성이 겪어야하는 고통을 부처님께서 어떻게 이해하셨을까
▲여성이 지닌 힘 가운데 가장 위대한 힘은 무엇인가
▲열반이란 어떠한 것이고 그것을 실현할 방도는 있는가
▲재가생활에서도 탁월한 앎과 봄을 성취할 수 있을까
▲적을 죽이는 성스러운 전쟁은 정당한 것일까
▲단지 하늘나라에 태어나길 기원하는 제사는 옳은 일일까
▲수행자가 보석과 황금을 수용해도 좋을까
▲숙명론적인 업의 이론에서 윤리가 나올 수 있을까
▲윤회에 대해 이교의 스승과 부처님은 어떻게 달리 말할까
▲훌륭한 친구를 사귀는 것은 얼마나 중요할까
▲불사(不死)의 참뜻과 그 불사에는 어떻게 도달할 수 있을까
▲팔정도, 팔정도라고 하는데 그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
▲모든 수행의 근본은 어디에 있고 그것은 무엇을 지향할까
▲부처님께서는 자신이 병드셨을 때에 어떻게 치유하셨을까
▲참선은 절대적인가 마음의 조건에 따라 달라져야되는가
▲'나는 우월하다'는 자만이외에 또 다른 자만은 무엇인가
▲세속적인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
▲슬픔과 비탄을 뛰어넘는 하나의 길은 무엇일까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셨을 때 최후의 유훈은 무엇이었을까
▲보리수하에서 부처님께서 깨달은 내용은 연기법만일까
▲부처님께서 자신의 늙음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신통을 얻는 방법은 무엇이고 그 목표는 무엇일까
▲부처님께서 완전한 열반에 드신 마지막 순간은 어떠했을까
▲몸에 병이 들었을 때에 마음을 다잡는 방법은 무엇일까
▲부처님께서는 홀로 계실 때에 무엇을 하셨을까
▲세속적인 재가의 신자를 부처님께서 어떻게 위로하셨을까
▲술 마시는 불자에게도 부처님께서 수기를 주셨을까
▲부처님을 따르는 재가의 신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지혜로운 재가신도가 베푸는 법문은 얼마나 가치가 있을까
▲위없는 깨닫음을 전하는 초전법륜의 내용은 무엇인가
▲괴로움을 보는 자는 괴로움의 소멸도 보는가
▲어머니를 섬기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아버지를 섬기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연장자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생명을 죽인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종자와 초목을 훼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호화로운 침대에서 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자음을 죽인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폭행을 일삼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신국판 / 496쪽 / 값 18,000원

<빠알리성전협회에서 나온 책들>
쌍윳따니까야 전집(전12권) 300,000원
붓다의 가르침과 팔정도 9,000원
신간 맛지마니까야 제1권 값 30,000원
범어문법학
빠알리어사전

※ 이 책은 불서총판 운주사(02-3672-7184)나 여시아문, 교보문고를 비롯한 주요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범보시 주문도 받습니다.

부처님의 생생한 가르침을 살아있는 오늘의 우리말로—

한국빠알리성전협회
Korea Pali Text Society
전화 02-2631-1381 팩스 02-2631-3770 kptsoc@kptsoc.org

신행 365일
이젠 실천이다

9월-불서 읽기의 달
· 매일 시간정해 책을
· 경전부터 읽자
· 선물은 불서로
· 절마다 도서관 만들자

매일 시간정해 책을

경기도 양평의 모 사찰에서 신도회 총무를 맡고 있는 김청정심 보살(47)은 지난달 26일 불교전문서점인 여시아문에서 이해하기 쉽게 쓰여진 법문집과 경전해설집 등 10여권을 샀다. 김 보살은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시내에 나와 불서를 구입한다. 그리고 언제나 이 책들은 자신이 먼저 읽은 뒤 주위의 도반들에게 보시한다. 하지만 그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눠 준 책을 거의 읽지 않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토로한다.

99년 한국갤럽조사에서 불교인구가 1천만을 넘어서는 등 불교계 안팎에서 포교의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지만 불교서적 판매는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불교계 내부에서 포교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정작 불서 읽기에는 소홀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김 보살은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시내에 나와 불서를 구입한다. 그리고 언제나 이 책들은 자신이 먼저 읽은 뒤 주위의 도반들에게 보시한다. 하지만 그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눠 준 책을 거의 읽지 않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토로한다.

99년 한국갤럽조사에서 불교인구가 1천만을 넘어서는 등 불교계 안팎에서 포교의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지만 불교서적 판매는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불교계 내부에서 포교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정작 불서 읽기에는 소홀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하지만 불립문자의 진정한 의미는 수행에 방해가 될 정도로 문자자체에 집착하거나 얽매이지 말라는 이야기지, 책을 읽지 말라는 뜻은 결코 아니다. 또 일선 포교현장에 있는 스님들 역시 법문을 듣거나 기도하는 것은 많이 권하지만 상대적으로 불서 읽기는 덜 권하는 편이다. 많은 신도들이 드나드는 사찰에 작은 도서관 하나 없다는 것은 이런 현실을 여실히 증명해 주고 있다.

올바른 신행활동을 하고 기복적인 신앙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튼실한 기초 지식을 쌓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초 작업인 불서 읽기를 통해 폭넓은 불교공부를 해야 함은 자명한 일이다. 책 읽기도 하나의 습관이다. 포교 일선에 있는 스님들부터 평소 좋은 책을 많이 읽고 신도들에게 권해야 하며 불자들은 매일매일 시간과 목표량을 정해 책 읽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김주일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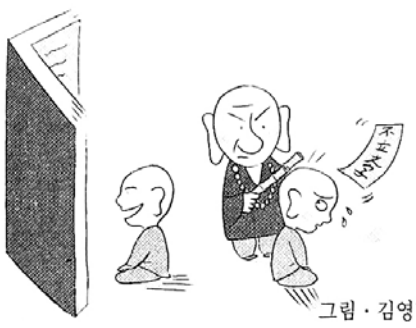


그림 · 김영민

책보시 받아도 읽지않는 불자 많아

매일 독서목표·시간정해 지식 축적

자들의 독서량은 1년에 평균 1권, 개신교인은 15권, 천주교인은 4권으로 나타나 충격을 던져준 바 있다.

그러면 방대한 불교경전인 팔만대장경을 자랑으로 여기고 있는 불자들이 왜 이렇게 책을 안 읽는 것일까. 몇가지 이유를 꼽을 수 있겠지만 우선 중국 선종의 영향을 받은 한국불교의 핵심사상인 '불립문자(不立文字)'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들 수 있다. 즉 '불립문자'는 경론(經論)의 문자와 교설에 집착해 불교의 참 정신을 잃고 있는 것을 경계하기 위해, 선가(禪家)에서 참된 불법은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해지는 것(以心傳心)이라 하고, 체

신행 캘린더

9월 5일 (목)

■불교상담개발원 '부부대화법' = 가깝고도 먼 사이라는 남편과 아내. 어떻게 하면 건강한 가정을 만들고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 발전시킬 수 있을까.

불교상담개발원은 성신여대 심리학과 채규만 교수와 함께 오후 2시 양재동 능인선원 예소장에서 '부부대화법-그대와 나, 간격 좁히기' 강좌를 실시한다.(02)737-8803

■서울 법련사 '원각경 강좌' = 송광사 서울분원 법련사가 불교를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강좌를 마련했다. 원각경은 부처님과 문수보살 등 12보살이 문답을 하면서 중생이 곧 부처라는 사실을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경전.

법련사 주지 오경스님을 법사로 12월까지 진행되는 이번 강좌는 매주 목요일 7시와 금요일 2시에 열린다. 참가비는 4개월 10만원 (02)733-5322

9월 6일 (금)

■봉은사 '경전학교' = '한곳에 집착하여 마음을 내지 말고 항상 머무르지 않는 마음을 내라.'

서울 봉은사가 중앙승가대 교수 보각스님을 초청해, 대승불교의 대표적 경전인 금강경에 대해 배우는 시간을 마련했다. 강의는 오전 10시 봉은사 보우당에서 열리며 강의교재는 무비스님의 '금강경 강의'다.(02)516-5652

9월 9일 (월)

■능인복지관 '위빠사나 수행' = '마음 먹기에 따라 나도 변화할 수 있고 세상도 변화시킬 수 있다'.

'능인복지관은 동국대 불교학과 강명희 박사를 초빙해 오후 2시~4시까지 위빠사나 불교수행법을 배우는 시간을 갖는다. 이날은 무료 강좌이고 좀더 배우고 싶은 사람은 3개월 코스의 강의를 들을 수 있다. 3개월 코스 수강료는 6만원. (02)571-2988

■여성불교연합회 '이혼 예방교육' = '가정 문제 치료상담원 교육과정'.

여성불교연합회는 10월 5일까지 오전 10시 조계사 만해교육장에서 이화여대 이자형 교수, 여성의 전화 황경숙 전문상담원, 청소년 상담원 권해수 교수, 국회 여성위원회 박숙자 위원 등을 초빙, '아내 학대 발생과 원인 치료 상담', '현대사회의 변화와 가정 위기' 등을 주제로 가정문제에 대한 대한 해법을 찾아 본다. 참가비는 5만원.(02)735-0406

9월 10일 (화)

■수선회 '참선교육' = '참선 수련 이렇게 하면 정말 쉬워요…'

수선회가 오전 10시와 오후 7시 서울 조계사 후문 수선회 본회선방에서 회장인 현담스님과 함께 참선에 대해 배우는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매주 화요일마다 5주간 계속되는 이번 참선교육의 참가비는 3만원씩이다.(02)732-5960

9월 11일 (수)

■마야문화원 '염불 수행' =염불과 정토선 수행으로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모든 불자들을 위한 프로그램.

인사동 마야문화원은 매주 수, 토요일 오후 7시 마야문화원 부원장 능원법사와 함께 불교 수행법인 정토선을 배우는 기회를 마련했다. (02)722-1050

■동산불교대 '영어로 배우는 불교' =국제화 세계화 시대에 발맞추기 위해 영어는 필수. 불교를 영어로 배우는 것은 불교와 영어 공부를 동시에 할 수 있어 일석이조.

동산불교대에서는 중앙승가대 조길문 교수를 초빙,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부처님의 생애 · 교리 등을 영어로 배워보는 시간을 마련했다.(02)732-1206

늘 밝게 웃으며 절의 모든 일 돌봐

우리 절 우리 신도

고양시 광명사 신옥순 · 김정임 신도


◇바쁜 일정에도 불구, 기도 열심히 하는 신옥순(오른쪽) · 김정임 보살.

경기도 고양시 화정동 일명 '로데오' 거리. 아파트와 러브호텔이 마주보고 있는 곳. 각종 술집, 고깃집이 형형색색의 네온사인 간판아래 붉은 욕망을 토해내는 곳. 그 중심에 연꽃과 같은 도심포교당 광명사(주지 법공)가 있다. 또 광명사에는 두 기둥으로 불리는 신옥순 총무와 김정임 공양주 보살이 있다.

아침 8시, 남편이 출근하자 신옥순(51, 보리행) 보살은 더 바빠진다. 용인 집에서 고양 광명사로 '출근'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오전 10시, 광명사에 도착하면 신도관리에서부터 공양간 먹을거리 구입, 각종 행사 준비까지 신보살의 손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

신보살이 광명사와 인연을 맺게 된 것은 개원 때 인 1998년. 어릴 때부터 불자 집안에서 자라 불자 집안 시댁으로 시집을 온 보살은, 남편 사업이 어려움에 처하자 기도하는 심정으로 집과 가까운 광명사를 찾게 되었다. 개원 초기 포교당이 전법도량으로 자리 잡기 전, 보리행 보살은 총무 소임을 맡게 되었다.

어느 조직이건 총무라는 자리는 일은 일대로 하면서 이런저런 뒷말도 듣는법. 혹 신도들에게 서운한 이야기를 들을 때에는 남몰래 눈물을 흘리기도 한다.

"그럴 때는 공양간 일을 맡고 계신 이타행 보살님께 하소연을 하기도 합니다. 제 얘기를 묵묵히 들어주고, 등등 툭툭 두드려 주시는 게, 친정어머니 같아 마음이 푸근해져요."

신보살은 1년 전 경기도 용인으로 이사를 갔다. 하지만 거리가 멀다고 한 번 맺은 인연을 끊을 수 없었다. 총무 소임도 소임이지만 불교대학과 유치원 운영 서원을 세우고 있는 주지 스님의 뜻에 미력하나마 보탬이 되고 싶기 때문이다. 그 작은 미래를 위해 신보살은 오늘도 포교당 내부를 바삐 돌아다닌다.

경기 용인 · 군포서 매일 '출퇴근'

신총무 신도관리 · 공양물 · 각종행사 준비

김보살 절찾는 대중에 공양제공 "즐거워요"

김정임 보살(46, 상선행). 김보살도 신보살처럼 '장거리 출퇴근'한다. 1995년 가을, 주지 스님이 경기도 산본에서 포교당을 운영할 때 첫 인연을 맺었다. 스님이 고양시에 포교당을 개원하자 대중교통으로 1시간 반 정도 되는 거리에도 불구하고 자연스레 발걸음을 옮겼다.

김보살은 소위 말하는 공양주 보살이다. 포교당을 찾는 사람들에게 정성스레 밥 한 그릇 대접하는, 뚜렷하게 드러나는 공은 없지만 힘들기 그지없는 자리다. 김보살은 포교당에 오자마자 부처님께 3배만 하고 바로 후원으로 들어간다. 거기서 하루내내 보낸다. 항상 온몸에 반찬 냄새가 배여 있어도 상관없다. 내가 조금만 고생하면 모든 대중이 즐겁게 공양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힘들 때도 있지만 즐거울 때가 더 많아요. 매월 15일 큰 스님이나 유명 법사님들을 초청하는 법석이 열리거든요. 그 때 제가 올린 공양을 드시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답니다."

김보살이 불교와 직접적인 인연을 맺은 건 20살 무렵. 별 이유 없이 몸이 아프자 큰 오빠 손에 이끌려 절을 찾게 되었다. 결혼 후, 자식들이 아프자 아이들의 손을 이끌고 절을 찾게 되었다. 절에서 되찾은 건 육체적 건강이 아니라 정신적 건강이었다.

취재 말미 두 보살은 더 수고하시는 분들이 있으니 기사에 꼭 넣어달라며 신신 당부를 했다.

추천의 말

법공스님 광명사 주지



신옥순 김정임 보살은 우리 포교당의 두 기둥입니다. 경기도 용인과 군포에서 하루에 서너 시간씩 왕복을 하며 포교당 일에 열성을 보이시니까요. 어떨 땐 미안한 마음도 가지지만 늘 밝은 마음으로 일하시는 모습을 보면 그저 고마울 따름입니다.

우리 포교당은 개원한 지 4년밖에 안됐습니다. 그 만큼 지역에 깊게 뿌리내리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처음으로 지역 연등축제를 개최하면서 포교에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모든 신도들이 열심히 노력한 덕분입니다. 그 중심에 두 보살님들이 있습니다.

또 조만간 우리 지역에 동국대 병원이 개원하면 사회봉사단체인 '천수천안 자원봉사단'의 일원으로 적극 활동할겁니다. 불교적 바탕아래 간병과 호스피스에 대한 지식을 쌓아, 병마로 고통 받는 사람들에게 작은 도움이나마 드리려고 합니다.

'대중들을 위해 매일 새벽 약수터에서 물을 떠오는 청정 거사님, 각종 행사에 도움을 주는 대도행 · 보명심 보살님. 너무너무 고마운 분들입니다."

남동우 기자

봉 구담사 양력 9월 8일 10시 행

태아 〈낙태, 유산〉 영아 영가 49일 천도재

증명 : 봉선사 조실 월운 큰스님

저희 구담사에서는 태아 영가 천도 도량으로써 매년 49일 천도재를 올리고 있습니다. 태아 영가 천도재는 잃어버린 태아(낙태, 유산)영가를 천도하는 것이다. 천도하는 의미는 그 영혼이 남은 가족에게 악연을 맺지 않기 위함이요, 참회하는 마음이다. 태아 영가 생명을 존중한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참회 기도로 경전을 독송하고 사경기도로 업장소멸과 함께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요즈음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낙태가 얼마나 무서운 악연을 쌓고 있음을 깨우쳐 주는 의미에서 낙태아 천도재를 동참합시다.



태아영가 기도 방법

· 스님하고 49일간 영가 천도재 동참하여 기도한다.
· 사경 및 주력으로 기도한다.
· 부부가 함께 참회기도 하는것이 좋다.
· 태아영가는 조상영가와 같이 천도재는 하지 않는다.
· 기도할때는 아기야 미안하다고 하고 참회기도 한다.
· 최소한 7회이상 태아영가 천도재를 하는것이 좋다.
· 기도할때에는 아이가 살아있는 생명처럼 생각하면서 지극히 기도한다.
· 준비물 : 분유(우유), 사탕, 과자, 쵸코렛, 쵸코파이, 장난감, 신발, 양말 등등

◉ 입제일 : 양력 9월 8일(음력 8월 2일 일요일) 10시
◉ 회향일 : 양력 10월 27일(음력 9월 22일 일요일)
◉ 태아영가제사 : 입재(9월8일) 3재(9월29일)
5재(10월13일)
7재(10월27일) 지냄
◉ 대중교통안내 : 동서울 터미널 → 일동
상봉터미널 → 연곡4리 하차
수유리(4호선) → 일동 → 구담사
◉ 구담사 버스 운행 : 입재, 3재, 5재, 7재만 운행
· 장소 : 오전 8시까지 - 강변역 테크노마트 주차장 입구(정일관광)
◉ 기도금 : 49재 기도 동참금 (10만원)
◉ 위패비 : 태아영가 1위당 (5천원)
◉ 입금계좌 : 국민은행 : 217-01-0339-914
농 협 : 225050-56-033370
※ 금년 대학 입시생, 취업, 사업자는 기도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 태아영가 기도 접수만 받습니다.
※ 지방신청도 가능하오니 위패 관계로 미리 접수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대표전화 : 031)533-2855 팩스 : 031)532-2441
총무보살 마하심 : 02)446-6101, H.P 011-391-6101

대한불교 조계종 구 담 사 ◆ 주소 : 경기도 포천군 이동면 연곡 4리 595번지

불교대학을 찾아서

⑪ 광주불교대학



◇광주불교대학 10기 학생들이 강의를 듣고 있는 모습.

천운스님 '호남불교중흥' 서원 91년 설립
95년 대학원과정 개설 경전중심 강의
개교후 포교사 250명 배출 각계서 활동

올해 2월 광주불교대학을 졸업한 임희재(47, 거사는 광주불교대학원에 입학,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 치평동 향림사를 찾는다. 요즘은 수요일에도 불교대학에 나올 일이 생겼다. 열린 강좌로 마련된 침구학 특강을 듣기 위해서다. 빡빡한 일정을 쪼개 불교대학을 수료하고 대학원에서 경전 강독을 하고 있는 임 거사에게 열린 강좌는 생활의 활력소가 된다.

임 거사는 "정규 교과과정과 달리 열린 강좌는 부담 없이 들을 수 있고 좋은 지식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자신있게 말한다.

유난히 미약한 호남지역의 불교를 중흥하겠다는 대둔사 조실 천운스님(조계종 원로의원)의 원력으로 세워진 광주불교대학(학장 법인, 대둔사 수련원장)은 호남불교 교육의 중심에 있다. 광주불교대학이 이같은 위치에 서기까지는 천운스님의 적극적인 후원에 힘입은 바 크다. 불자들에게 체계적인 불교교육을 시켜야 한다는 천운스님의 지론이 불자들을 광주불교대학으로 끌어 모은 것이다.

광주불교대학은 91년 9월 170명의 신입생을 선발해 문을 열었다. 학생들은 2년동안 불교학개론, 인도 · 중국 · 한국불교사, 불전개설, 포교방법론, 불교윤리, 대승불교사상, 불교사회복지론, 불교미술사, 유식사상 등 기초에서 전문교육과정까지 빈틈없이 짜여진 교과과정에 맞춰 교육을 받는다. 여기에 야외법회와 큰스님 친견법회, 철야정진법회, 수련회 등 신행실수까지 전수함으로써 학생들이 다양하게 불교를 접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으며, 엄격한 학사관리로 졸업생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노인, 장애인복지관이 있는 향림사에 학사(學舍)를 마련, 이들의 생활을 돕는 등 복지활동에도 나서고 있다.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 하루 2시간 씩 진행되는 강의는 법인스님, 이계표 광주대 교수(광주 문화재전문위원), 혜광스님(담양 정토사 주지), 이동배 교법사(정광중, 고교, 성오스님(나주 심향사 주지), 경철 남부대 객원교수 등이 맡고 있다.

개교 이후 4년째 되던 95년 3월 대학원 과정을 개설했다. 불교대학 졸업 후 입학이 가능한 대학원은 교리 중심으로 구성된 대학과정을 보완, 금강경, 법화경, 아미타경, 관무량수경, 화엄경 등 경전 중심의 강의로 이뤄지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광주불교대학은 개교 이래 603명의 졸업생과 250여명의 포교사를 배출했다. 이들은 교도소, 군, 어린이, 청소년 등 다양한 포교활동과 봉사활동으로 불교를 사회 속에 실천하는 불자상을 만들어가는 등 11년의 역사속에 지역의 명실상부한 신행공간이자 교육기관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안장연 교화과장은 "한국제일의 불교대학으로 키운다는 마음으로 재학생과 졸업생, 교수진이 삼위일체가 되어 대학을 운영하는 시스템을 갖춰 나가겠다"고 말했다.

(062)375-7633

광주=박봉영 기자

어린이 포교 앞장
장의염불 봉사도
10기 졸업생 한해련 포교사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부처님법을 바르게 전하고, 그들의 마음 속에 심어주고 싶다"

올해 광주불교대학을 졸업하고 포교사가 된 한해련(44 · 광산구 소촌동) 씨는 대학에 다니고 있는 딸과 함께 6개월째 향림사 어린이법회를 이끌고 있다. 틈나는 대로 합창단, 광주교도소 재소자 포교와 장의염불 봉사도 하고 있다. "불법에 의지해 백혈병을 이겨낸 한 포교사의 믿음에 감화돼 불자가 됐다"는 한 포교사는 한사람이라도 더 불교를 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연중캠페인 - 나눔의 손잡기 운동

'후원합시다'

중풍환자 할아버지의 집 걱정

"더부살이 집 곧 팔린대"

서울시 진관내동 슬래이트 단층집. 계절은 초가을 앞에 서있지만, 방안은 찜통이다. 그 방, 한 겉에 수북이 쌓인 플라스틱 약병들이 먼저 눈에 들어온다. 비스듬히 기울어진 천장에 매달린 형광등. 꺼진 채 침묵만 지키고 있다.

이 집에서 5년째 '더부살이'를 하고 있는 정완교 할아버지(69)를 만났다. 힐끔힐끔 쳐다 보기만 하는 정 할아버지가 영 못 마땅한 눈치다. 부담스러운 눈빛이 역력하다.

"11년 전 만해도 서울 개포동에 비닐하우스 천막치고 살았어. 6.25전쟁통에 부모님 모두 잃고, 34살 되던 해에 상경했어. 포장마차, 노점상, 막노동 안 해본 것이 다해봤지. 이 맘 때, 노점상 자리싸움하다가 고혈압으로 쓰러졌었지. 내가 '아들'처럼 여기는 경식이도 이때 만났어."

정 할아버지가 '아들'이라고 부르는 박경식 씨(55). 종로통에서 노점상 하다가 어렵게 사는 정 할아버지 사는 모습을 보고 함께 살자고 제안했던 사람이다. 이때부터 정할아버지의 '더부살이' 생활이 시작됐다. 박 씨는 살뜰히 챙겨주지만, 그래도 마음 한 곁은 미안함이 꽉 들어차 있다.

"동네 사람들은 우리 보고 '부자지간'이라고 소문까지 나있더라고. 그런데 경식이 심장에 문제가 생겨 마땅한 일도 못 찾고 밖으로만 나돌아 다녀, 얼굴 보기도 힘들어."

정 할아버지. 아예 결혼하지 않았다. 자식도 없다. 이러다보니, 박 씨에 대한 걱정이 태산일 수밖에 없다.

"결혼? 팔자지 뭐! 어려서 뛰를 넘다 왼팔을 크게 다쳤어. 평생 병신처럼 살았어. 중학생 때는 늑막염에다 폐결핵까지 앓게 되면서, 그야말로 질병에 대한 열등감으로 여태껏 살아왔어."

정 할아버지가 쓴 웃음을 지어 보인다.

요즘 들어 정 할아버지는 큰 근심이 생겼다. 기관지 염증으로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나마 얹혀살고 있는 집이 곧 팔리게 됐기 때문이다. 더더욱 믿고 의지할 경식 씨와 떨어져 살 생각만으로도 밤잠을 설친다.

"이 집이 곧 팔린대…, 더부살이 하는 주제에 경식이와 떨어지면 큰일이야. 나참, 한달 정부지원금 20만원으로 근근이 연명하는 처지에…, 최근 국민기초수급자 무료조제목록에서 빠진 변비약, 혈

노점상 자리다툼하다 고혈압으로 쓰러져
식사 · 빨래 은평복지회관 도움으로 해결



◇기관지 염증으로 식사도 제대로 못하는 정완교 할아버지가 힘없이 약병을 들고 있다.

액순환제 같은 것을 고스란히 돈 주고 사먹어야 할 판에 함께 옮겨 갈 집을 얻을 수나 있겠어?"

정 할아버지. 힘겹게 말을 또 잇는다. "전생에 죄가 많아 이렇게 사는 가봐. 남의 신세만 지고 사니 답답하기만 하지…."

식사와 빨래는 은평노인복지관에서 재가복지서비스를 받고 있지만, 집 문제 만큼은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정 할아버지. 라디오에서 들려오는 흘러간 옛 노래에 마음을 싣는다. 호흡이 짧아 제대로 따라 부르지 못하지만, 흥얼거리며 고개만 연신 떨군다.

주소 : 서울시 은평구 진관내동 388-14

전화번호 : (02)383-9515

후 원 계 좌 : 서 울 은 행 34704-1933702(예금주 정완교)

김철우 기자

시인 김홍성의 네팔사는 이야기



〈11〉 계단밑 소녀 사프나

주인집 시중…이사온 나에게 항상 무표정
어느날 하교길 소녀얼굴에 환한 웃음이…

우리가 사는 집은 3층 연립 주택이다. 주인 가족은 3층에 살고, 우리는 2층에 살고, 1층에는 또 다른 가족이 세 들어 산다. 그리고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밑 공간은 주인집 일을 해주며 얹혀 사는 여덟 살 난 소녀 사프나의 방이다.

사프나의 방에는 합판으로 만든 문짝이 달려 있다. 그 문짝은 큰 개를 가둔 개집 문짝보다 결코 크지 않다. 밤이면 백열등 불빛이 흔들리다 꺼지는 사프나의 방 문틈에서는 기침 소리가 새어 나오기도 한다. 때로는 쥐 죽은 듯 소복소복 먼지 내려앉는 소리만 들리기도 한다.

그런 밤은 마음이 편하지 않다. 뒤숭숭한 잠에서 깨어 산책을 나서는 새벽에 사프나를 보곤 한다. 사프나는 그 때 계단을 걸레질하거나 가게에서 우유를 사오거나 한다.

나는 사프나를 볼 때마다 웃으며 인사를 건넸다. 그러나 사프나는 인사를 받는 일이 없었다. 희미한 웃음조차 없었다. 우리가 이사온 후로 얼마 동안은 말이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에 사프나는 불빛도 희미한 계단 밑 문짝 앞에 쭈그리고 앉아서 너덜너덜한 학습서를 뒤적이고 있었다. 주인 집 아들이 내버린 학습서를 뒤적이는 줄만 알았다. 헌데, 아니었다. 알고 보니 사프나는 그때 막 학교에 다니기 시작한 것이었다.

지난 봄이었다. 보리수가 서 있는 이 동네 연못가 큰길에서 푸른 공립학교 교복을 입은 한 떼의 어린 소녀들을 보았는데, 사프나도 거기 같이 걸어오고 있었다. 사프나는 그 날 처음 내게 인사를 하며 활짝 웃었다. 사프나 옆에서 같이 인사하며 환하게 웃던 소녀는 옆집에서 일하는 소녀였다.

주인집 아이들은 넥타이를 매는 멋진 교복을 입고 사립학교에 다닌다. 주인집 아이들은 어른들이 학교에 데려다 주고 데려온다. 그러나 푸른 공립학교 교복을 입은 사프나 같은 아이들은 그냥 아이들끼리 통학한다.

사프나네 교복은 늘 꾸깃꾸깃하다. 단이 터진 옆구리는 삔침으로 여몄다. 사프나는 그런데 신경 쓸 시간이 없다. 학교에서 오자마자 '사프나! 사프나!' 하고 주인 집 여자가 부르기 때문에 교복 갈아입기도 바쁘다.

'사프나'는 우리말의 '꿈'이라는 뜻이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꿈을 잃지 않고 미래를 생각하는 사프나.

오늘밤도 소복소복 먼지가 내려앉는 계단 밑에서 잠든 사프나는 지금 무슨 꿈을 꾸고 있을까?

부산여고 재경 불교동백회 정기법회 안내

귀의 삼보하옵고
부산여고 재경 동문 불자모임인 「부산여고 재경 불교동백회」 창립총회와 창립법회가 2002년 7월 18일 동창회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현재 동국대학교 불교학과 교수로 재직중이시며 동문이시기도한 해주 스님을 지도법사로 모시고 매월 정기법회를 갖기로 하였습니다.
제 1회 정기법회를 아래와 같이 봉행하오니 부디 많이 참석하시어 「부산여고 재경 불교동백회」의 발전으로 불국토를 이루는 공덕을 함께 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 다 음 ◈

⊙ 일 시 : 2002년 9월 14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
⊙ 장 소 : 동국대학교 정각원 법당
⊙ 교통편 : 3호선 지하철 동대입구역(6번 출구)
⊙ 문의 연락처 : 총 무 011-9785-1428, 서 기 011-447-1410
(주차권이 필요하신 분은 법회 전날 오전까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동문이 아닌 불자님들의 법회 참여도 환영합니다.)

부산여고 재경 불교동백회 회장 조용수 (삼법성) 합장

전국비구니회관 법회 및 교양강좌 안내

한국불교의 밑거름이 되어온 6000여 비구니스님의 30여년간의 염원이 담긴 전국 비구니회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전국비구니회관 법룡사는 비구니스님들의 재교육과 복지를 뒷받침할 비구니 총본산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불자가족의 구심점이 되어 행복한 세상을 가꾸어 가는데 이바지 하겠습니다.

◆ 프로그램 운영 (2002년 9월 23일 월요일 개강)

1. 기도정진

프로그램	시 간	요 일	강 사
일요법회	오전 10:30	일요일	광우스님 (전국비구니회회장) 본각스님 (중앙승가대학교 교수)
철야정진	저녁 10:00	첫째, 셋째주 토요일	은일스님(법룡사 도감) 도원스님(법룡사 대중)
참선센터			

2. 법룡불교대학

프로그램	시 간	요 일	강 사
경전교실 (천수경)	오 전 10:30-12:00	금요일	임근동 (한국외대 인도어과 강사)
禪 사 상	오 전 10:30-12:00	월요일	혜원스님(동국대 선학과 교수)

3. 봉사활동
- 법 룡 봉 사 회 - 가족이 함께하는 봉사활동
- 법룡상담센터 - 형제 · 자매 맺어주기, 진로상담, 만나고 싶은 스님 가까이 뵙기

4. 문화강좌

프 로 그 램	시 간	요 일	강 사
선재스님 사찰음식	오전 10:00-12:00	화요일	선재스님(선재사찰음식문화원 원장)
금강선무도	오전 5:00 - 오후 9:00	매 일	광원스님
한지공예	오후 1:00 - 4:00	수요일	법연스님
니르바나음악교실	오후 2:00-6:00	월요일, 목요일	바이올린 강사 : 강형진(니르바나실내악단 단장)
가족과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 - 스님께 배우는 어린이한자교실 - 영어이야기 교실 - 경전이야기 교실 - 가족이 함께 민요 부르기	토요일 오후 일요일 법회 후		김자재행

※ 강사의 사정에 따라 요일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 니르바나 실내악단 금요콘서트
매월 마지막주 금요일 오후 7:00 (첫 콘서트 10월)

◆ 교 통 편
지하철 : 3호선 일원역 1번출구 (삼성의료원 방향)
B U S : 813-2, 288, 83-1, 16
(일원역 일원동사무소 하차, 삼성의료원 방향)

◆ 무료공개강좌 안내
9월 10일 (화) 금강선무도(강사 : 광원스님) 오전 10:00
사 불 율 의(강사 : 선재스님) 오전 11:00

전 국 비 구 니 회 관
서울시 강남구 수서동 744번지 ☎(02)733-5467

박영재 교수의

첨단 과학과 불교 ⑫



그림 · 문병성

청소년의 건전한 삶

상당수 우울·외로움 호소…정신상태 심각

청소년선도위 상설 단·장기 대책 강구를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는 21세기 첨단과학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 가운데 특히 불안정한 계층은 청소년층이라 판단된다. 왜냐하면 청소년 대부분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을 들어가야 한다는 강박관념 속에서 육체적으로는 성숙해 가고 있지만 정신적으로는 점점 더 유혹이 많은 환경 속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최근 발표된 '2001년 아동발달백서' 가운데 청소년들의 문화실태 조사결과는 '삼고삼저(三高三低)' 현상으로 요약된다. '3고'는 '음주흡연율, 인터넷 접속시간, 학교에서의 체벌'을 가리키며, '3저'는 '가족간 대화시간, 독서량, 운동량'을 말한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중고생을 막론하고 20.5%가 1주일에 한 시간도 운동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서량 또한 청소년의 60.7%가 1개월간 독서시간이 1~3시간인 것으로 매우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백서에 따르면, 청소년들의 가장 큰 스트레스 원인은 연령이나 성별에 상관없이 공부문제가 4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장래 및 진학문제(6.1%), 가정문제(5.4%), 학교생활(4.5%) 순이었다.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을 대상으로는 친구가 50.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데 비해, 부모에게 속마음을 털어놓는다는 응답자는 13.2%로 매우 낮았다. 이어 중고생의 70% 이상이 하루에 2시간 이상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음란사이트 방문경험도 사용시간에 비례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리고 음주의 경우 중학생 때는 음주경험자가 16%선이었다가 고등학생이 되면 52%선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음주경험이 있는 고등학생중 한 달에 1~2회 마신다는 주당도 20.3%나 됐다. 흡연의 경우에는 중학생 흡연율은 3.6% 정도이나 고등학생 비율은 9.9%로 3배 가까이 높았다. 한편 청소년들에게 '우울함을 느끼는가'에 대한 조사결과로는 느끼지 않는다가 57.8%였고, '걱정이 많은가'라는 질문에는 51.4%가 매우 그렇거나 그런 편이라고 답했다. 그리고 '외로움을 느끼는가'라는 질문에는 53.0%가 외로움을 느끼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각각 자신의 삶에 대해 우울함, 걱정, 외로움 등 부정적인 느낌을 갖고 있는 청소년들이 상당수에 이르러, 이들의 정신 상태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할아버지, 할머니를 모신 대가족 집안에서 성장한 필자의 청소년기는 비교적 순탄했으나 약간의 고비도 있었다. 그러나 주위 모든 분들의 도움 속에 어려운 상황들을 잘 반전시켰다고 판단된다. 2대독자였던 필자는 누이들이 다섯인 집안에서 어머니의 극진한 보살핌 속에서 소위 '마마보이'로 성장해 아주 형편없는 존재였다. 중학교 2학년 때에는 지금의 인터넷 중독에 비교할 수 있는, 날밤을 새며 무협소설에 탐닉하기도 했었으나, 이를 통해 길러진 독서 습관, 무술에 대한 호감 및 소림사의 달마 대사에 관한 이야기들이 훗날 필자로 하여금 빠른 독서이해력, 합기도 운동 3년을 통한 신체단련(이때 단전호흡 익힘), 선가(禪家)로의 입문에 매우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된다. 첫 음주는 고3때 예비고사를 본 날 저녁 중국집에서 가까이 지내던 (선량한?) 친구들과 소주를 몇 잔 먹은 정도이다. 필자의 이런 중·고등학교 시절을 돌이켜 보면, '비린 생선을 엮는데 사용했던 새끼줄에서는 비린내가 난다'는 석가세존의 '새끼줄의 비유'가 꼭 들어맞는다고 생각된다. 흡연은 대학교 진학 후 첫 번째 여름방학에 있었던 고3 반창회에서 배워 6개월간 하루에 한 갑씩 피우다 목에 가래가 끼고 이공학도로서 계산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을 느끼고는 즉시 흡연을 중단하였다. 그러면서 필자는 인생에 대한 방황기를 1년간 거치며 석가세존의 일대기(그 가운데 특히 태자시절의 갈등과 극복 과정)를 읽고 보람된 삶의 길을 갈 것을 결심했다. 그리고는 절친했던 친구 부친(당시 50세)의 죽음을 지켜보면서 종달 이희익 노사 문하에서 목숨을 걸고 수행자적인 삶을 걷기 시작해, 지금은 재가수행모임인 선도회의 법사로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참고로 고1때부터 선도회 모임에 나오고 있는 현재 대학교 1학년인 한 학생의 경우, 고3시절 입시 준비로 모임에 거의 참석치 못했으나 가끔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우편으로 고민 상담을 요청해와서 몇 차례 상담을 해주었다. 특히 장래에 사회복지 관련 일을 희망한 이 학생은 21세기에 불교사회복지 분야가 매우 중요하게 될 것이라는 필자의 조언을 받고 동국대 불교학부에 입학했으며, 1학년임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 군종법사 자격시험도 통과해 놓고 있다.

끝으로 필자의 견해로는 위에서 언급한 심각한 청소년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불교계에서도 한국의 미래를 짊어질 젊은이들이 성장기의 갈등을 극복하며 바른 길로 곧장 나갈 수 있도록, 각계각층의 전문가들로, 청소년 선도를 위한 비중 있는 상설 위원회를 구성해 폭넓게 단기적, 장기적 대처방안을 강구해야할 시급한 때라 판단된다.

이렇게 들었다

'공익성 추구' 보다 충실해야

상도덕 외면, 홈쇼핑

케이블TV의 5개 홈쇼핑방송 모두가 시중가보다 싸게 파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여 장사를 해왔다니 어이가 없다. "백화점보다 얼마가 더 싸다" "몇 개 남지도 않았다"며 소비심리를 부추겨 시청자의 충동구매를 유도하는 것이 홈쇼핑 채널의 전형적 판매기법이었다. 그런데 실제 매장가격은 홈쇼핑방송이 주장하는 것처럼 비싸지 않았고 심지어 시중에서는 취급되지도 않는 제품과 거짓으로 가격을 비교한 경우까지 있어 방송위원회가 중징계를 했다. 특히 이들 홈쇼핑 방송 대부분이 LG, 현대 등 대기업들이 참여하고 있어 시청자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홈쇼핑방송의 잘못은 이에 그치지 않는다. 최근 파문을 빚었던 독성물질이 들어간 중국산 다이어트 식품을 판 것도 홈쇼핑 채널이었다. 속옷을 취급하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반라의 여성모델을 동원해 '나체쇼'를 펼치는 등 심신의 건강까지 위협하고 있다.

홈쇼핑 채널이 공익성을 추구하는 방송이념의 예외지대일 수 없으며 상도의를 외면하는 일은 더구나 있어서는 안된다. 도덕적 경영에 대한 관심이 높아가는 이즈음이다. 방송위의 명령에 따라 시정과 일회성 사과로 끝나서는 충분하지 않다. 다시는 이 같은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홈쇼핑방송에 대한 엄중한 감독과 자기단속이 요구된다.

▨삿된 방법을 생각하지 말라. 바른 생각으로 행하지 않으면 재산을 얻더라도 밤낮 근심하고 걱정하며, 몸으로 바로 행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성취하지 못한다.

<출요경 방일품>

▨물건을 팔때에는 정직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라도 상도덕을 어지럽혀 이익을 취한다면 그것은 한낱 도둑질과 다를바가 없다.

<유교경>



'임제록' 통한 선 공부 ㉔

처음부터 끝까지 다르지 않다

"이것이다" "저것이다"하면 어긋나

그대가 지금 법을 듣는 것은, 그대의 육체가 아니라 그대의 육체를 쓸 수 있는 그것이다. 이와 같이 볼 수 있다면, 곧 가고 머무름에 자유롭게 된다. 나의 견처에서는 꺼릴 법이 없다. 그대들이 만약 성스러움을 좋아한다면 성스러움이란 성스럽다는 말일 뿐이다. 어떤 사람들은 오대산에서 문수를 찾지만 이는 잘못이다. 오대산에는 문수가 없다. 그대들이 문수를 알고자 하는가? 다만 그대들 눈앞에 작용하는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르지 아니하여 어디에서나 의심하지 않으면,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문수이다. 그대들의 한 생각 마음에 차별 없는 빛은 곳곳에서 모두 참된 보현이며, 그대들의 한 생각 마음이 스스로 결박을 풀 수 있으면 이르는 곳마다 해탈이니 이것이 관음이다. 삼매법에서는 이들 셋이 서로 주인과 동반자가 되어서 일시에 나오니, 하나가 곧 셋이요 셋이 곧 하나이다. 이와 같이 알 수 있어야 비로소 가르침을 잘 살핀다고 한다.

임제가 말하기를, 살아있는 부처란 처음부터 끝까지 다르지 않게 눈앞에서 작용하는 것이라고 한다. 눈앞에서 작용하는 이것은 바로 지금 법문을 듣고 있는 것이며, 바로 지금 법문을 듣고 있는 것은 곧 육체를 사용할 줄 아는 것이라고도 한다.

매우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말을 의식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대단히 불확실한 말이다. 눈앞에서 작용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법문을 듣고 있는 것은 또 어디에 있는 무엇이며, 육체를 사용할 줄 아는 것은 또 무엇인가? 알 듯 말 듯 하면서도 도무지 명확히 잡히지 않는다.

임제는 평범하고 일상적인 태도로 이러한 말을 하고 있는 듯하지만, 사실 임제의 이 말은 평범한 의식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말이다. 이 말은 임제 자신이 현재 체험적으로 확인하고 있는 사실을 일상적인 언어로 억지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같은 말이라도 사람에 따라 다르게 이해되고 다르게 받아들인다. 그 까닭은 사람마다 겪어온 경험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선(禪)을 체험하고 있는 사람의 언급은 동일한 체험을 하고 있는 사람만이 동일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다.

그러나 선을 체험한다는 것은 보통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은 어떤 특수한 것을 얻어서 가지고 있다는 말은 아니다. 선을 체험한다는 것은 곧 마음의 실상을 체험한다는 것이다. 마음은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가지고 있다. 즉 모든 사람에게 마음의 실상은 동일하게 갖추어져 있다. 그러므로 누구나 주의 깊게 관심을 가지고 추구하면 선을 체험할 수가 있다.

이제 임제가 말하는 살아 있는 부처를 한 번 시험적으로 경험해보자. 처음부터 끝까지 다름없이 눈앞에서 작용하는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색깔을 따라가면 다름이 있고, 소리를 따라가면 다름이 있으며, 몸의 자세를 따라가면 다름이 있고, 생각의 내용을 따라가면 다름이 있다. 그러면 다름없는 것은 무엇인가? 색깔이 나타나면 보고 소리가 나타나면 들으며 인연에 따라 몸을 움직이고 생각을 하는 이것(?)이 바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름이 없는 것이다. 바로 지금 당신에게 나타나고 있는 반응이 바로 이것이다. 그러나 이것이다 저것이다 하면 벌써 어긋나 버린다. 알겠는가?

김태완 · 부산대 강사, 철학

■ 김태완 박사 선어록 강좌 안내
부산무심선원:매주 토요일 오후(2~5시). 수원 경기불교문화원:매달 1.3주 일요일 오후(1~4시) 문의 011-9520-0054(이정화)

영어로 배우는 불교용어

삼보 Three Jewels of Buddhism

Three Jewels of Buddhism are Buddha, teaching, Buddha's followers. Korea has the Three Jewels Temples.

불교에는 불, 법, 승의 세 가지 보물이 있고 한국에는 삼보사찰이 있다.

Tongdosa-temple was built by Master Chajang. He brought relics of the Buddha from China and enshrined Tongdosa-temple. It represents the Buddha and so there is no need for a statue in the Main Hall as well.

통도사는 자장에 의해 지어졌다. 그는 중국에서 부처님의 사리를 가지고와 통도사에 모셨다. 그것은 곧 부처님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대웅전에 불상을 모시지 않는다.

Haeinsa-temple has the Ttipitaka Koreana, a record of the teachings of the Buddha.

해인사에는 고려대장경이 있다. 고려대장경은 부처님 가르침의 기록인 고려대장경이 있다.

Songgwangsa-temple representing the Buddha's followers because of sixteen National Masters including National Masters Chinul have lived here.

송광사는 보조국사 지눌을 비롯해 16분의 국사가 이곳에 머물렀기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승가를 상징한다.

元·氣·回·復 존경하는 분에게 가장 고급스럽고 길이 남을 선물이 될 것입니다.

"최고의 신비스러운 영약" 山蔘 長腦

존경하옵는 스님, 스승님, 부모님과 시험준비에 지친 수험생에게
평생 최고의 값진 선물 최저가격으로 불자님과 인연을 맺고자 합니다.

심마니로부터 산지에서 직접 공급받아 한정된
수량을 전국 어디라도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산삼의 효능

◆ 산삼은 기사회생의 영초로서 옛부터 거의 만병통치의 효험이 있는 영초로 전해 내려왔다.
◆ 당뇨병, 심장병(동맥경화증, 협심증), 위장병, 혈압조절(고혈압, 저혈압), 아편중독, 나병, 암 등 불치병에 큰 효과가 있다.
◆ 신경쇠약, 폐병, 간염, 간경화, 악성빈혈, 신장병, 류마티스, 디스크, 신경통, 노화억제, 원기부족, 성인병, 예방과 치료에 큰 효과가 있다.
◆ 방사선병, 조혈작용, 산후건강회복, 출혈성, 질병, 신진대사 촉진, 비위허약 뇌기능 강화에 큰 효과가 있다.
◆ 정력강화(조루증, 정자결핍, 성욕감퇴, 성기능장애), 냉증, 부인병에도 큰 효과가 있다.
◆ 눈이 밝아지며 어린이는 산삼장뇌를 조금만 먹어도 추위를 타지않고 머리가 좋아지며 저항력이 높은 강력한 체질로 개선된다.
◆ 산삼은 특정 병에 대한 치료도 될 수 있지만 인체의 전반적인 저항력을 높여 건강을 유지시키는 만병통치적 효험이 있다.

尊敬하옵는 스님
오늘도 衆生 求道와 佛功으로 苦行하시는 스님
지치신 몸과 氣力을 山蔘 長腦로 다스려 새롭게 精進하시옵기를 祈願드리오며 山蔘이 높은 가격 부담으로 미처 접할 기회를 못 가지셨던 스님께 報恩에 마음으로 제공해 드리고자 하오니 부담없이 別途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물은 本草에는 上藥 120가지 中藥 120가지 下藥125가지로 모두 365가지의 약용식물이 구분 기록되어 있는데 山蔘은 上藥중의 첫째가는 君藥으로 이 세상의 어떤 약용실물도 모두 아래에 불과하다고 기록되어 있다.

산삼장뇌란?
산삼은 천종, 지종, 인종, 장뇌 4가지로 분류됩니다. 그 중 장뇌란 산삼의 씨를 채취한 후 깊은 산에 뿌려 자연상태로 재배한 것이며 자연산삼에 버금가는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격조있는 선물이 될 것입니다.

주문처 서울(02)713-7798, 701-4716
■ 별도상담(자연산삼 보유)
■ 자연산삼 문의상담(심마니 채취가격으로 공급)
■ 산삼이 꼭 필요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

국립농산물품질관리검정필(분석 51160-150)
심마당 長腦山蔘

자랑스러운 우리 태극전사들이 먹은 수신토종오가피



국내최대 오가피 재배자 (주)수신오가피 대표 / 성 광 수氏

중국산도 북한산도 아닙니다.

최근 중국산오가피를 북한산이나 국내산으로 표기하여 적발된 업체들이 물의를 일으킨바 있습니다.
수신토종오가피는 중국산도 북한산도 아닙니다. 오직 국내에서 재배한 국산토종오가피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직접 오셔서 눈으로 확인하십시오.
국내최대재배자 성광수씨가 매주 수요일 오후2시에 직접 농장견학회를 열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놀란 우리 선수들의 지칠줄 모르는 체력!

선진축구의 파워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우리 선수들의 땀과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서 수신토종오가피가 함께 했습니다.
저희의 작은 정성이 우리 선수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꼭 확인하십시오!
우리 선수들이 먹는다며 선전하는 오가피제품들이 있습니다.
우리 축구국가대표팀이 먹은 오가피는 '수신토종오가피' 입니다.

사진 확인하셨습니까?

수신토종오가피는 국내최대오가피재배자 성광수씨가 재배한 100% 토종오가피를 원료로 사용한 제품입니다. 품질에 대한 자부심으로 한봉지 한봉지마다 국내최대오가피재배자 성광수씨의 사진이 인쇄되어 있습니다. 이 사진이 없다면 축구국가대표선수들이 먹은 수신토종오가피가 아닙니다. 유사품에 주의하십시오.

문의전화 (02)447-5300

목어

뜰앞의 밤나무



내가 거쳐하는 요사채 바로 앞에 밤나무가 수십 그루 서 있다. 늦더위가 아직 미련을 보이고 있는데도 성급한 밤나무 몇 그루는 벌써 초록빛 밤송이가 벌어지는가 하면 이미 땅바닥으로 굴러 떨어진 밤도 적지 않다. 작년 이맘때에 주웠던 밤을 올해도 나가 줍는다. 송이 밖으로 튀어나온 것도 있고 바닥에 떨어진 것도 있지만, 밤송이 안에 움츠리고 있는 것들도 있다. 밤을 줍는 것도 재미있지만 밤송이 속의 것을 꺼내는 것도 여간 재미있지 않다.

밤나무는 해마다 때가 되면 어김없이 열매를 맺는다. 한 켠에 심어놓은 고추밭도 마찬가지. 자연은 이렇듯 일년이 지나면 그동안 공부한 것을 내놓는다.

'뜰 앞의 잣나무'는 아주 유명한 공안이다. 누가 어느 선사에게 부처가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그 대답을 '뜰 앞의 잣나무'라 했다는 것이다. 공안을 섣불리 해석하는 일은 선가에서는 절대 금물이다. 자칫 진의를 왜곡시키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의심의 덩어리가 생기지 않으면 그 순간 공안은 자격을 잃게 된다. 그러나 오늘은 선가의 방식을 떠나 한번 그 공안을 나름대로 풀어보고 싶다. 왜 '뜰 앞의 잣나무'를 부처라 했을까. 혹시 그 나무 모양이 부처님 같았을까, 혹시 그 절의 불상을 잣나무로 조성한 것은 아닐까. 그러나 그보다는 형이상학적인 의미가 분명 숨어 있을 것이다. 하기는 두두물물이 모두 부처라 했으니 잣나무라 해서 부처가 못되라는 법도 없지. 그렇다면 밤나무도 부처님? 밤을 줍기 전에 합장부터 해야겠군.

그런데 요즘 밤을 주우면서부터 내겐 그런 거창한 화두보다는 아주 간단한 문제가 뇌리에 노상 머물고 있다. 잣나무건 밤나무건 때가 되면 열매를 맺는데 어찌하여 나는 아무리 돌아보아도 열매는 커녕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한 채 제자리에서 맴돌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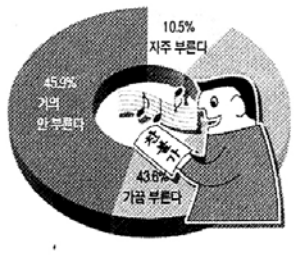
잣나무는 잣을 키우고 밤나무는 밤을 키운다. 욕심을 쌓으면 욕심이 커지고 집착이 많아지면 어리석음이 깊어진다.

뜰 앞의 밤나무는 내게 그것 하나만 일깨워 주고 오늘도 다 익은 열매를 미련 없이 가지에서 툭툭 내려 보내고 있다.

도수(정업도량 회주 · 본지 논설위원)

불자의 생각

찬불가



불자들은 법회시간 이외에 찬불가를 얼마나 자주 부를까?

붓다뉴스 네티즌 설문 조사 결과 총 응답자 133명 가운데 61명(45.9%)이 거의 부르지 않는다, 58명(43.6%)이 가끔 부른다, 14명(10.5%)이 자주 부른다고 응답해, 아직까지 찬불가가 생활화되지 못하고 법회시간에 의식을 위한 노래로만 불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찬불가를 몇곡 정도 외우는가 라는 질문에는 84명(63.2%)이 5곡 미만, 34명(25.5%)이 10곡 미만, 7명(5.3%)이 20곡 미만, 8명(6%)가 20곡 이상이라고 답변했다. 김두식 기자

불자 세상보기



노부호
서강대교수
경영학

인간적가치 체득 불교경영 기초

엔론사태 이후 연이어 미국기업의 분식회계 사실이 드러나 주가가 폭락하면서 윤리경영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를 계기로 윤리가 기업의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윤리헌장을 제정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다.

최근 전경련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500대 기업 중 50% 정도가 윤리헌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 비율은 99년 22%에서 지속적으로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윤리경영의 결정적 요소가 최고경영자의 의지라고 응답한 기업이 응답기업의 76.3%를 차지하였다.

경영의 기본은 무엇인가? 나는 이것을 고객, 품질, 기술, 현장, 사람으로 연결되는 전략의 고리로 설명한다. 경영에서 기본이란 이익을 남기는 것이다. 그런데 이익을 남기려면 물건을 사주는 고객이 있어야 하고,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제품의 품질이 좋아야 하고, 품질이 좋기 위해서는 기술을 개발해야한다. 기술은 어떻게 개발되는가? 기술은 현장에서 사람이 개발하는 것이다. 특히 현장을 무시하고는 기술이 개발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기업이 추구해야 할 목표는 이익보다 더 중요하게 고객, 품질, 기술, 현장, 사람의 개발과 같은 것이 있다는 것이다.

이익추구에서 사람개발로 기업의 목표가 바뀌기 위해서는 최고경영자의 경영에 대한 철학과 가치에 기초를 둔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 가치에는 사업적 가치와 인간적 가치의 두 가지가 있다. 사업적 가치는 무엇 때문에 사업을 하는가에 대한 질문이다. 돈 때문인가. 가치 때문인가. 우리는 이 사회를 위해서 무언가 가치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다. 인간적 가치란 종업원들에 대한 배려와 관심을 통해서 종업원들로 하여금 남이 아니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것이다.

조직 내에 사업적 가치와 인간적 가치가 있을 때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열심히 일한다는 문화가 조성되고 이러한 문화에 의해서 기술개발, 고객만족이 이루어지고 이익이 창출되는 것이다. 따라서 경영의 기본은 가치이고 우리가 윤리라고 말하는 것은 기업이 사회적 책임감을 가지고 바른 행동을 하도록 하는 것인데 이것은 가치로부터 파생되는 것이다. 윤리는 기업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떻게 행동하느냐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윤리경영의 결정적 요소가 최고경영자의 의지라고 대부분의 기업이 응답한 것처럼 윤리경영에 중요한 것은 윤리현장을 제정하기 이전에 우리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기업을 경영하고 있는가 하는 윤리의식이다.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영이 불교경영이다. 보통 가치는 기업의 비전으로 표현된다. 비전은 기본적으로 좋은 제품을 만들어 고객에 봉사하고 이를 위해 모두 하나되어 열심히 일하지는 것이다. 가치는 봉사정신과 동체정신을 말하고 우리를 순수하게 만드는 것이다. 불교의 깨달음과 관련하여 요구되는 것은 본성을 찾는 것인데 본성은 순수한 것을 말하고 순수는 이상의 두 가지 가치관을 요구한다. 즉, 일생을 걸고 하고 싶은 일을 찾는 사업적 가치관과 우리는 둘이 아니고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인간적 가치관이다.

불교의 핵심은 자기를 찾는 것인데, 일은 자기의 창조적 표현으로서 자기를 찾는 중요한 수단이고 자기가 모든 사람과 연결되었다는 인식은 또 다른 자기 발견이다. 사업적 가치관을 통해서 인생을 걸 수 있는 자기 일을 찾고 인간적 가치관을 통해서 우리가 모두 하나라고 하는 인식을 체득해 나가는 경영, 이것이 윤리경영이자 불교경영의 기초인 것이다.

본란(本欄)의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의 소리

독자 여러분의 글 · 사진 · 만화를 기다립니다. 채택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기념품을 우송해 드립니다. 보내실 때는 거주지 주소, 전화번호를 적어서 보내주십시오.
· 보낼 곳 : 우(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 전화 : (02)722-4162 · 팩스 : (02)737-0698 · 천리안 : aeum · 하이텔 : 34713

도올 김용옥의 초기불교 이해 논란

불교계 공식입장은…

최근 김용옥 씨의 초기불교 발언과 관련해 문제가 있다면 스님들이 나서서 무언가 발언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만약의 경우 김용옥 씨 견해에 잘못된 점이 있는데도 모두 침묵한다면, 검증되지 않은 그의 발언에 선량한 불자들만 돌이킬 수 없는 업장을 지게 될 것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그에 대한 불교계의 공식적인 입장이 있었으면 좋겠다.

김용옥 씨가 진정 그가 불자라고 생각되는지, 단지 학자의 입장에서 불교를 이야기 하고 있다면, 우리 스님들이 나서서 왜곡된 부분을 바로 잡아줘야 하는 것이 올바른 행이다.

ID:수보리

경전모임 많았으면

김용옥 씨의 저술과 발언을 가지고 왜 불자들끼리 설왕설래를 하는가?

그건 우리 불자들이 그동안 너무 목말랐던 까닭이다. 수십 년 절에 다니면서도 부처님 말씀 한 번 제대로 못 들어 본 까닭이니, 이제는 스님들이 경전 모임도 자주 하고, 법회도 자주 열어 대중에게 부처님의 참 말씀을 전해야 할 것이다. 절마다 매일 매일 법회가 열리고 우연히 찾아갔다가도 법회에 참여해서 법문을 듣고 올 수 있도록 매일매일 스님들의 법회가 밤하늘에 별처럼 총총총 끝도 없이 이어져야 할 것이다.

ID:도올

불교 심층이해 계기로

김용옥 씨의 불교강의를 듣게 되어 반갑기 그지 없고 가뭄에 단비를 만난 듯한 마음이다.

노자 강의를 들었을 때 왜 우리 불교에서는 이런 강의를 못해주나 안타까웠는데, 이번 강의로 불교를 한층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지금껏 불교는 대중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 감이 없지 않다. 일부 사람들 또는 스님들의 전유물처럼 느낄 때도 있었다. 그 때마다 답답한 마음이 들었지만, 가끔 좋은 강사를 만나 강의를 들을 수 있게 되어 기쁘다.

어렵게만 느껴지는 불교가 김용옥 씨의 명강으로 제대로 이해된다면 이보다 기쁜 일이 어디 있겠는가. ID:bugpark

출처:붓다뉴스(www.buddhanews.com)

자아성찰에 도움되는 기회로

사찰수련회를 다녀와서

말로만 듣던 여름 사찰수련회, 그것도 참선 중심의 송광사 사찰수련회에 다녀왔다. 묵언과 차수, 발우공양 등, 익숙했던 것들과 결별하고 새로운 것들을 접해야 한다는 것에 약간은 두려움도 가졌다.

입재식이 시작되고 수련회가 시작되자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고통이 뒤따랐다. 마음은 바쁜데 차수를 하고 있어 걸음걸이는 뒤뚱됐고, 10분 정도만 가부좌를 하고 있어도 다리가 굳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참선은 어떠했던가. 호흡을 가다듬고 '이 뭣고' 화두를 들고 있어도, 머리를 맴도는 건 잡념과 망상뿐이었다. 어디서 그 많은 것들이 갑자기 의식의 뒤편에서 튀어나오는지 나 자신도 놀랄 지경이었다. 발우공양 시간에는 물배 채우기가 일쑤였고, 무엇보다 새로운 잠자리가 숙면을 방해했다. 1080배 철야정진은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듯 했다.

회향식을 하고 서울로 돌아올 때 안도감과 아쉬움이 교차했다. 수련회를 무사히 끝냈다는 마음과 너무 많은 인원으로 인해 만족할 만한 수련회가 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4박5일의 기간이 자아성찰에는 어느정도 도움을 준 것으로 믿는다. 매년 새로워지는 수련회가 되었으면 한다.

최영희(경기도 고양시 화정동)

백유성자 이차돈 추모시

일선스님(명화통일사 주지)

미운(迷雲)
가득한 하늘에
일부러 골라 나시어

종(鐘), 울리고 쓰러진 까치모양
스스로 몸 던져 불일(佛日)을 밝게 하시다.

반야의 찰날,
신라의 빈 허공을 내리칠 적에 떨어진 건 환화(幻花)요
법신(法身)만이 남았다네.

한번 죽어, 영원히 사시니
영광(靈光)은 도리어 하늘에 닿았고
정혜수(定慧水) 젖피로 마도(魔徒)를 항복 받으시다.

장하다 님의 넋이여.
아른나무 꽃 피워 보여 주시니
이 소식, 모르는 이 천대(千代)에 없어라.

청천(靑天), 불일(佛日)이여.
만고광명(萬古光明) 되시었네.

진흙속에 연(蓮), 한가지
님의 뜻으로 받드오리.

☆성자 이차돈선양회 총재 일선스님이 이차돈 순교일인 9월 11일(음력 8월 5일)을 맞아 시를 보내왔다

마음 나눌 펜팔 구합니다

저는 항상 '현대불교' 덕분에 부처님 법을 가까이하며 하루하루를 헛된 시간이 되지 않도록 청송감호소에서 노력하고 있는 오승보라고 합니다.

득선지식(得善知識), 즉 훌륭한 스승을 만나는 것은 큰 복이며, 훌륭한 스승을 만났으되 그 높은 가르침을 잘 받아들여 자신의 마음을 열면 무엇보다 좋은 청복(淸福)이라 할 수 있으며, 선지식을 만나 가르침을 배우는 것은 더 없이 좋은 인연이라 하더군요.

이곳에서 생활하면서 어려움이 없다면 거짓말일 겁니다. 조금이나마 힘든 점이 있다면 어느 누군가와 진실된 마음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인연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열리면 사람과 세상과의 진정한 만남이 이루어진다고 하던데 아직 신심이 부족하여 저의 마음이 아직 열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불자님들과 좋은 인연이 되었으면 합니다.

언제나 부처님의 가르침과 함께 하며 바른 불자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주소:763-710 경북 청송군 진보면 진보우체국 사서함 2-442

불가의 비법과 선인의 비전을 합방한 기적의 신물질!

"화림한방화장품"은 자연의 순수 한방약재를 주원료로 하여 고대 동양 미인들이 애용하던 주안술을 이용하여 당사 연구진이 개발한 특허출원 준비중인 제품이다.
생약성분에서 추출한 기적의 신물질 "전단물질"이 미백효과, 피부 노화방지, 기미 및 각질제거, 주름제거 등 각종 피부고민으로 부터 여성을 해방시켜주며 모든 여성들을 건강하고 탄력있는 피부, 부드럽고 보송보송한 피부, 항상 촉촉히 젖어 있고 윤기있는 피부로 가꾸어 준다.

출시 품목(화장품)

◈ 한방에센스 크림 ◈ 한방베이스 크림 ◈ 한방미백크림
◈ 한방 아이크림 ◈ 한방 영양크림 ◈ 한방 밀크, 스킨 로션

출시 품목(비누)

◈ 서시한방비누(여드름 제거용) ◈ 옥용한방비누(피지 제거용)
◈ 수다라한방비누(미백용/클린싱 크림효과)

세계 각국 특허 출원 준비 중

불자로써 화장품 및 비누 사업에 참여하실 분 (소자본 가능 / 재택 근무 가능)

HR herbal medicine Cosmetics (주) 화림한방화장품
www.hrcos.com

전국지사◈대리점모집

"화림한방바이오"의 제품들은 불가 선사의 문중으로부터 전수받은 "법제와 구증구폭"의 비법을 현대의 과학적이며 체계적인 방법으로 생산하였다. 다이어트 식품은 식사를 즐기면서도 살을 줄일 수 있고 요요현상이 전혀없으며 다이어트 최대 난제인 복부비만이 자연스럽게 사라지고 장을 청소하여 인체의 체지방을 제거함으로써 비만의 근본 원인을 해결한다. 또한 날씬한 몸매를 유지하게 하며 몸의 가뿐함을 만끽할 수 있다. 선식은 성인을 위한 건강식, 청소년을 위한 영양식, 유아를 위한 이유식으로도 훌륭할 뿐만 아니라 다이어트 효능도 있어 일석이조의 새로운 개념의 선식이다.
향은 천연향으로 제조되어 악취제거, 공기정화 기능이 탁월하여 제사용으로 뿐 만 아니라 가정, 사무실, 고시원 등 일상 생활에 널리 이용할 수 있다.

출시 품목(식품/향)

◈ POINT24 – 최상의 다이어트 식품(식사를 즐기면서...)
◈ 달마선식 – 다이어트 식품 겸용 건강선식
◈ 화림비향 – 새로운 개념의 향, 먹을 수 있으면서 피우는 향

세계 각국 특허 출원 준비 중

불자로써 다이어트 및 건강식품 사업에 참여하실 분 (소자본 가능 / 재택 근무 가능)

HR herbal medicine Bio (주) 화림한방바이오
www.hrbio.com

대구광역시 북구 태전동 254-16 Tel : 053)313-2711~15 Fax : 053)313-2716

아프간 바미얀지역 발굴 1400년전 경전 주석서

제4차 결집 필사본 복원 오슬로大

야자잎·양피에 기록… 잉크빛 아직 '생생'

2세기경 인도 쿠산왕조의 카니슈카(Kanishka) 왕의 후원으로 주도된 제4차 경전결집의 방대한 기록들이 노르웨이 오슬로대학에서 출간된다.

오슬로대학에 저본이 제공된 '초옌(Schoyen) 소장본' 불교 경전(사진)은 2001년 여름 아프가니스탄에 의해 파괴된 바미얀 대불이 있던 곳에서 300km 북부에 위치한 해발 2000미터 산의 동굴에서 발견된 것. 바미얀 사원에서 나온 '두루다리' 불교경전들은 주로 야자나무 잎과 자작나무 껍질, 그리고 소스의 양피지로 기록됐다. 경전의 잉크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오랜 기간동안 변질되지 않았다.

제4차 결집을 주도한 카니슈카왕은 불교를 포용했을 뿐만 아니라, 진본으로 간주되는 18부(部)의 경전을 보관했다. 중국의 여행가이자 작가인 현장 법사는 〈대당서역기〉에서 '카니슈카 왕이 설법 듣기를 너무나 좋아해서 왕궁 어디에서나 비구 스님들을 초청, 설법을 요청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스님들의 가르침이 제각기 달라 당황한 카니슈카왕은 파르슈바 스님의 조언에 따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암송할 결집회의를 구성했다. 다양한 부파불교의 뛰어난 고승들이 논쟁의 종지부를 찍기 위해 초청됐다. 결집대회는 거대한 사원에서 개최되었는데, 경율론 삼장을 주석하기 위해 500여 비구 스님들이 참석했다. 경장, 율장, 논장의 주석은 각각 10만자로 구성되었다.

오슬로대 베이퍼트(Bapat) 교수는 결집대회가 사르바스티바다(Sarvastivada) 학파에 의해 주도되었으며, 스타비라바다(Sthavira vada) 학파와 기타 학파들도 교의의 일정 부분을 맡았다고 주장한다. 현장 스님에 따르면, 주석서는 후세인들에 참조하도록 청동판에 새겨져 탑속의 석장사 안에 봉안되었다.

야자잎으로 쓰여진 주석서들은 공동체가 볼 수 있도록 도서관에 봉안됐는데, 이 주석서들은 부파불교의 차이점을 없애고 비구 승단에 생명력과 단합을 가져 왔으며, 산스크리트가 경전을 서술하는 언어가 되는 계기를 만들었다.

브라아빅(Braarvig) 교수는 "5~6년전 아프가니스탄의 1400여년된 도서관에 남아있던 경전들을 낙타 등에 싣고 힌두쿠시 지역의 산을 넘어 옮긴 적이 있는데, 이 경전들은 8세기경 파괴된 사원 도서관에서 전해진 고서들이다. 이것은 '불교의 사해(死海) 문서'로 불려질 정도로 역사적인 의미를 갖는다. 고문서학의 방법에 따라, 우리는 이 주석서들의 연대를 1세기부터 7세기까지의 600년 사이로 추정한다"고 말했다.

이 고서들은 한 파키스탄인이 주석서의 일부를 런던의 옥션 하우스(Auction House)로 가져가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이 때, 고문서 수집가인 억만장자 마틴 초옌(Martin Choyen)이 고문서 전부를 사들였다.

브라아빅 교수는 "'초옌 소장본 발간위원회'의 목표는 이미 잘 알려진 (중국어, 티베트어, 산스크리트어 등) 다른 주석서와 비교할 수 있을 정도로 필사본들을 복원하는 것"이라며 "초옌 소장본들은 역사적인 흥밋거리일 뿐만 아니라, 2000년전 야자나무 잎에 주석을 단 쓴 스님들과의 재회"라고 말했다.



◇인도 불교는 2세기 중엽, 쿠산왕조의 카니슈카왕의 등장으로 실크로드를 따라 중국 등으로 전해졌다. 사진은 1908년 스타인(A.Sten)에 의해 미르지역에서 발굴된 '부처님과 여섯제자' 벽화.



결집이란

결집(結集)이란 불멸후 불제자들이 부처님 가르침의 산실을 막고 교권을 확립하기 위해 경을 외워 정리, 집성하는 것을 뜻한다.

제1회 결집은 석가의 입멸(入滅) 직후 500명의 비구들이 라자그리하 교외 칠엽굴(七葉窟)에 모여 마하카샤파(Mahkyapa)의 주재로 열렸다. 그 후 석가 입멸 후 100년경에 계율에 대해 이론이 생겼으므로, 바이살리에서 야샤스(Yaas)가 주재하는 제2차 결집(700명 참석)이 있었다. 제3차 결집은 불멸(佛滅)후 200년경에 아소카왕 치하의 수도 파탈리푸트라에서 모갈리푸타 티사의 주재로 열렸다(1000명). 현재의 아프가니스탄 지역인 자란드하르(Jarandhar)에서 이뤄진 제4차 결집은 인도 쿠샨 왕조의 카니슈카왕 밑에서 파르슈바(Prv:脇尊者), 바수미트라(Vasumitra:世友) 등의 주재하에 이뤄졌다. 카슈미르의 비구 500명이 모여 삼장에 대한 주석을 붙였는데, 그것이 〈대비바사론(大毘婆沙論)〉이 되었다.

해외불교 담당=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동국대학교 BK21불교문화사상사교육연구단(단장 : 불교학과 조용길교수)은 인도의 델리대학(2000년), 인도철학회(2001) 등과 공동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으며, 금년에는 각 팀별로 단기해외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제2팀에서는 지난 8월 4일부터 10일까지 스리랑카의 페라데니야 대학과 '한국 스리랑카간 불교문화사상사 교류'를 주제로 공동세미나를 개최했으며, 스리랑카 불적답사를 실시했다. 이거룡 교수의 답사기를 4회에 걸쳐 나눠 싣는다.



이거룡교수의

스리랑카 불교 기행

글 싣는 순서

① 삶과 종교의 일치
② 야자수 잎에 새긴 불법, 패엽경(貝葉經)
③ 숲 속의 수행자들, 아란야(Atanya) 전통
④ 살아있는 부처님, 보리수

떠날 수 있다는 건 축복이다.

스리랑카가 불교의 나라라는 것은 이미 콜롬보 공항에서 의심할 나위 없는 사실로 확인되었다.

이번 답사기간 동안 스리랑카의 불적(佛跡)과 여러 도시를 답사하면서 필자의 뇌리에 각인된 스리랑카불교는 한마디로 '대중과 함께 호흡하는 불교, 그러므로 살아있는 불교'다. 인접해 있는 인도의 경우와 비교해보면 이 점은 더욱 선명해진다. 인도의 불적은 대개 관광의 대상으로 '관리'되고 있을 뿐, 납자(衲子)가 없다. 대개는 장엄했던 지난날의 흔적을 구차하게 연명하고 있을 뿐, 생명이 없다. 이 점이 늘 아쉬웠다. 이에 비하여 스리랑카의 절은 살아있다.

사실 스리랑카에는 골라서 답사해야 할 불적지가 따로 없다고 해야 한다. 나라 전체가 곧 살아있는 불적이기 때문이다. 부처님의 치아사리를 모신 불치사(佛齒寺)도 가고 무외산사(無畏山寺)도 가고 유명하다는 갈 비하라(Gal Vihara)의 불상들도 보았지만, 정작 우리가 스리랑카에서 눈여겨 보아야 할 불적은 이곳 불교도들의 삶이 아닌가 한다.

스리랑카의 절은 항상 도시의 중심에 있다. 이것은 스리랑카 사람들의 삶이 절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불교는 이들의 삶 가운데 어떤 특별한 영역이 아니라, 삶 자체라는 말이기도 하다. 거리 곳곳에 조성된 대형 불상과 바쁘게 지나가다가도 잠시 멈추어서서 예불을 올리는 사람들을 보고 있으면, 과연 이 나라가 불교의 나라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든다. 전체 인구의 70% 이상이 불교 인구라는 것은 스리랑카불교에 대한 부차적인 설명에 지나지 않는다.

출가 수행자의 삶은 항상 세간의 삶과 이어져 있다. 이 점은 출가 과정에서도 분명하게 나타난다. 대개 출가는 어린 시절(8~9세)에 이루어지며, 본인의 분명한 의사와 가족 전체의 합의를 거친 후에 결정된다.

구족계를 받고 완전한 출가승려가 된 후에도 그의 삶은 여전히 세간의 삶과 이어져 있다. 출가승려는 적어도 한 달에 한번 정도는 속가로 가서 가정의 대소사를 논의하고 상담에 응하며, 출생, 결혼, 장례 등의 가정의례를 주관하기도 한다.

인도에서 불교가 전래된 이래 2천3백여 년의 장구한 세월을 통하여 스리랑카불교가 의연하게 불법을 이어올 수 있었던 것은 출가승단이 항상 세간의 삶과 이어져 있었다는 점 때문이 아닌가 싶다.

5백여 년에 걸친 서양의 침략과 식민지 역사 속에서 그 본질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대중과 함께 호흡… 살아 있는 불교

승려들 속가서 가정의례 주관도

▨이거룡/동국대 연구교수
(BK21 불교문화사상사교육연구단)

달라이 라마 러 입국거부 비난

러시아 불교협, "순수불교행사… 즉각 허용돼야"

러시아불교협회는 8월 19일, 러시아 정부가 달라이 라마의 입국 비자 발급을 거부한데 대해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텔로 틀코, 담바 오세이브, 노르보 상포 린포체 등 불교 지도자들은 "달라이 라마가 러시아를 방문한 지 10년만에 절박한 심정으로 다시 법회를 열 계획이었다"며 "달라이 라마의 입국은 정치적인 목적이 아닌 순수 불교 행사를 위한 것이므로, 즉각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30여 불자들은 17일 러시아 외무부 앞에서 정부를 비난하는 시위를 벌이다, 이 중 10여명의 불자가 경찰에 연행됐다.

달라이 라마는 9월 11일부터 러시아내 불교단체들을 방문하려고 러시아 정부에 비자를 신청했으나, 거부됐다.



◇8월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달라이 라마의 입국 비자 발급을 촉구하는 러시아 불교협회 지도자들. 왼쪽부터 텔로 툴코, 담바 오세이브, 노르보 상포 린포체.

아시아 불교평화회의 2003년 2월 라오스서

아시아불교평화회의(ABCP, Asian Buddhist Conference for Peace) 제 10차 회의가 2003년 2월 캄보디아 라오스에서 열린다.

ABCP는 지난 7월 18~20일 일본 도쿄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 오는 11월중 라오스에서 준비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지난 7월 회의에 참석한 ABCP 한국본부 이치란 사무총장은 제 10차 대회의 실무준비위원으로 선정돼, 차기 대회를 준비하기로 했다.

1970년 창립된 아시아불교평화회의는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아시아 30여 불교국이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는 불교국제기구. 한국은 몽골과 수교이후인 94년부터 정식회원국이 됐다.

새 불교계간지 '붓다 다르마' 창간

샴발라센터, 한·중·일 등 전세계 기사 다뤄



캐나다 노바스코티아에 본부를 둔 세계적인 불교 신행단체인 샴발라(Shambala)센터 국제본부가 기존에 발행해오던 격월간 〈샴발라 선(Shambala Sun)〉에 이어 새로운 계간 불교잡지 〈붓다 다르마(Buddhadharma)〉를 8월 15일 창간했다. 〈삼발라 선〉이 그동안 티베트 불교 위주로 보도해 온데 반해 이 잡지는 티베트 불교 이외에도 한국, 중국, 일본, 스리랑카를 비롯한 전세계의 불교를 골고루 다루고 있다.

http://www.sunjaeavatar.com
당신의 신념이 바뀌면
당신의 경험이 바뀐다
당신은 행그런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한이게 웃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복당을 원합니까 웃고 웃는얼굴은 누가먼듭니까?
당신은 얼마든지 마음 먹은 대로의 얼굴을 만들 수 있습니다.
원하장는 신념은 지우고 원하는 신념을 장조하여 변화된 삶을 만드십시요.
당신의 신념이 바뀌면 당신의 인생이 바뀝니다.
아바타 코리는 당신을 뜻대로 사는 길로 안내합니다
선재아바타 센터 ☎ 02-362-3647 ☎ 018-206-3647 E-mail avatarsunjae@yahoo.co.kr
서울시 서대문구 북아현동 114-1 북아현맨션 2동 502호

만세력이 필요없는 책
육임래정비법 혁신판
출생년월일시를 물을 필요 없는 책
찾아 온 시간, 전화 온 시간, 가서 만난 그 시간만으로 상대의 용건과 정황과 비밀한 사정을 미리 알아 먼저 말하고 그 방책을 판단해주는 비기서!
육임은 사람일을 밝히는데는 최고의 학문입니다. 그래서「五術之中帝王」이요,「神示」라고도 합니다.
오행(五行)을 몰라도, 이 책 그 날치 한장만 빼 놓고 그 시간만 보면 아래 내용을 미리 알고 먼저 말할 수 있습니다. 같은 시간에 여러사람이 차례대로 오거나 같은 시간에 여러사람이 한꺼번에 몰려 오더라도 각기 다르게 정확히 판단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 무슨 일 때문에 왔는지 전화 했는지
-. 그 일이 잘 될것인지 안될 것인지
-. 가정이 부유한지 빈한한지 지금 가정에서 무슨 고민, 어떤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 현재 사는 집이 길상(吉相)인지 흉상(凶相)인지 어디로 언제 이사해야 개운될 것인지, 이사하면 언제 발복하게 될 것인지
-. 상대가 이익 줄 사람인지 피해 줄 사람인지 무능인 인지
-. 선한 사람인지 악성인 인지
-. 이미 일이 벌어졌는지 벌어질 것인지 언제 벌어지게 될 것인지
-. 옛날 일인지 최근사 인지
-. 남녀불문하고, 어떤 색정사가 벌어져 있는지 아니면 언제 벌어질 것인지 一男二女 관계인지 二男一女 관계인지
-. 지금 무슨 귀신의 침해를 받고 있는지 어떤 방법으로 뗄 수 있는 것인지
-. 현재 누구 산소의 탈을 받고 있는지 어떻게 해소시킬수 있을 것인지
-. 무슨 병인지 고칠수 있을지 없을지 언제 낫게 될 것인지
-. 귀신 병인지 아닌지
-. 수법(천도 시식 굿 부적)을 행해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 언제 다시 판단해야 효과가 있을지
-. 집(토지)이 팔릴지 안팔릴지 언제 팔리게 될지
-. 시험에 붙을지 떨어질지
-. 선거에 당선 될지 낙선 될지
-. 승진이 될지 말지
-. 돈이 구해질지 어려울지 언제 돈이 될지
-. 임신한 아이가 남아인지 여아인지 몇날 몇시에 태어날지
-. 경기 승부에 이길지 질지
-. 결혼이 성사 될지 말지 언제 결혼하게 될 것인지
-. 집나간 사람이 올지 말지 언제 오게 될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숨겨져 있는지
-. 도둑이 잡힐지 못잡을지 잃은 물건을 찾을지 못찾을지
-. 이 사람을 채용해야 좋을지 안좋을지
-. 투자를 해서 이익 될지 손해 날지
-. 이 가격이 높은지 낮은지 언제 사고 팔아야 할지
-. 이 산소가 좋은지 나쁜지 후손은 어떻게 살아 갈것인지
-. 무엇을 심어 어떤 결실이 얻어 질 수 있을 것인지
-. 비가 올 것인지 개일지 눈 비 바람이 몇날 몇시부터 오고 불 것인지
등 등 인간사의 모든 길흉성부를 즉시 말해 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사주나, 기문이나, 주역이나, 하락이수나 어떤 명리법술도 인사의 구체적 길흉성부 판단에 있어서는 육임을 따를 수 없습니다. 사주 10년을 해도 이 책 그날치 한장의 시간별 내용을 밝혀 낼 수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도(道)를 말 하나, 구체적인 물음에 구체적으로 즉답하지 못하면 진정한 활인천역(活人天役)이 못됩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문제와 당장의 의문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육임은, 마주치는 그 시간, 전화 온 그 시간으로 상대방의 비밀한 사정과 정황을 즉시 알고 그 문제점과 고민을 바로 해소시켜 줄 수 있게 됩니다. 한두가지의 예를 들자면, 마주친 그 순간에 어떤 귀신의 침해를 받고 있는지, 누구의 산소에서 탈을 부리고 있는지, 무슨 귀신 병인지, 고칠 수 있을지 없을지를 미리 알고 그것들을 해소시킬 방법을 제시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외 입시 선거 구재 취직 승진 매매 입신 가출 등등 인간사의 세부적인 것들까지 속시원하게 밝혀 줄 수 있어 진정한 활인천역을 수행 할 수 있게 됩니다. 육임은 딱딱 부러지는 묘미(妙味)가 가득합니다. 그러므로 내심(內心)의 갈등이 없습니다. 이책은 한마디로 염천행로(炎天行路)의 냉천수(冷泉水)같은 것입니다.
바인더차트 每一式
■ 활인전문천역자용 (부록 · 설명비디오 포함)
●육임래정비법 혁신판 ₩1,500,000(휴대용)
●육임래정비법 혁신판 ₩1,300,000(좌정용)
●효사 육임강의록 ₩300,000
●효사 육임비디오 강의수강(총 28개) ₩900,0000
●강의신청「육임학당효사숙」02-998-8683
■ 각종 카드로 구입이 가능합니다.
▶ 주문전화 02-993-8680 ▶ 부산지사 051-851-2349 ▶ 서울강남지사 02-2203-4805 ▶ 입금계좌 : 우리은행 813-041583-13-101 김영란 도서출판 卜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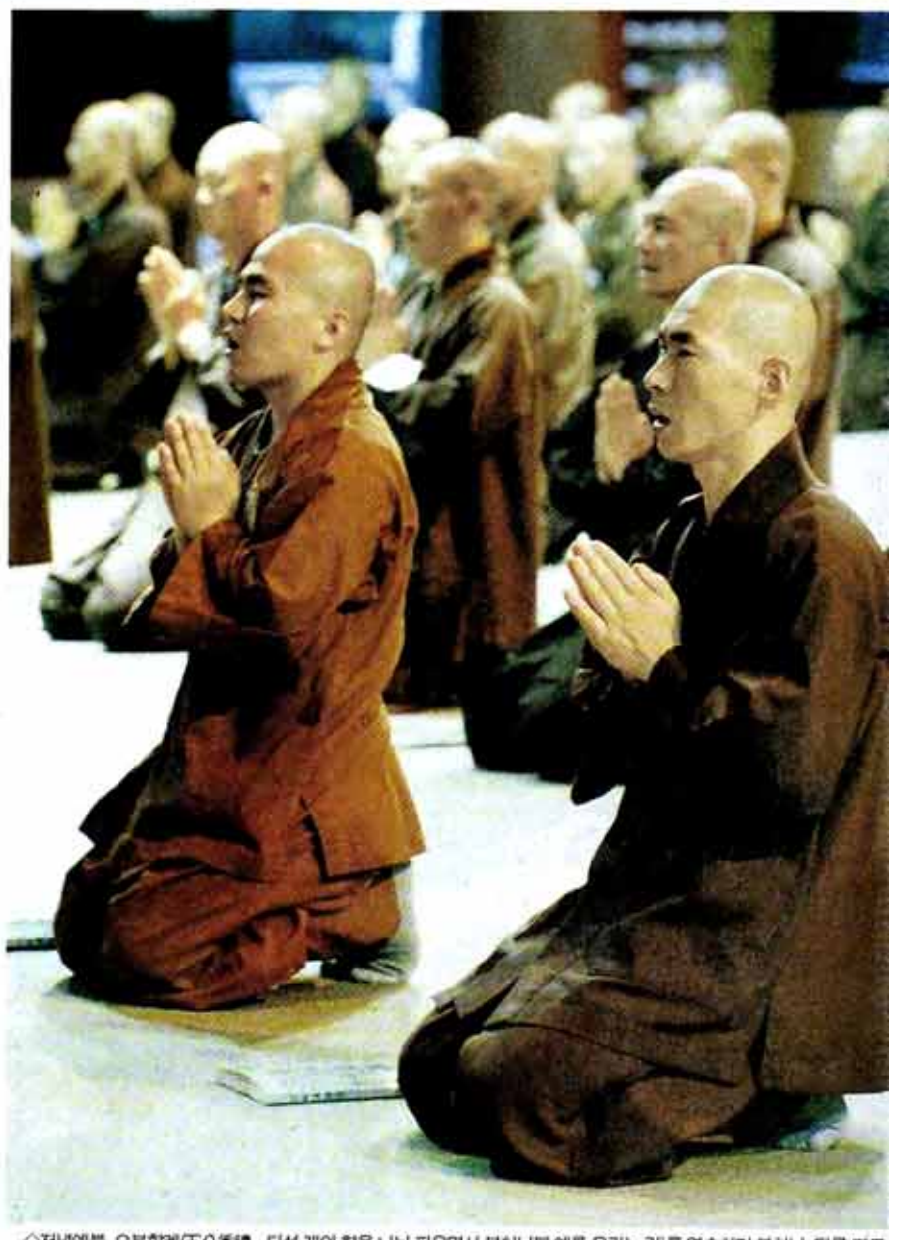
FM 89.9 MHz
BBS 불교부산방송

108명의 남행자들이 석가모니 불을 부르며 쉼없이 절을 한다. '예불대참회문'을 염송하며 시작된 백팔참회는 30여 분간 계속됐다. 한낮 더위가 가신 늦은 오후였지만 행자들의 이마엔 구슬땀이 맺혔다. 간절한 음성과 파뭇듯이 바닥에 댄 이마. 앞으로 평생 이 길을 가야한다. 스스로가 선택한 부처의 삶.

8월27일 오후 통도사 설법전. 조계종 제23기 행자교육원의 3일째는 이렇게 말없이 흐르고 있었다. 행자교육원에 입교한 남행자 108명과 여행자 88명은 9월 16일까지 23일간 엄격한 교육을 받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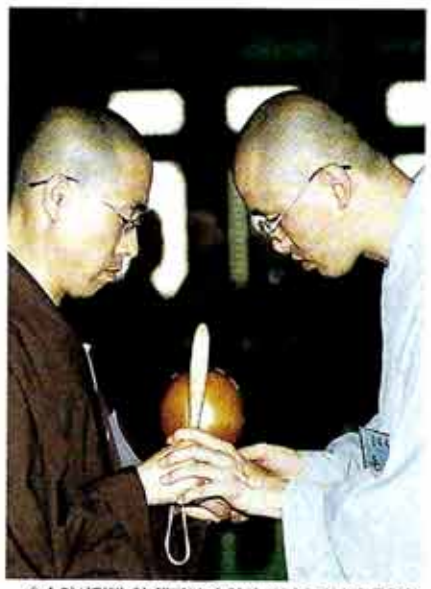


◇해인사 율원장 혜능스님의 '사미율의 강의'를 듣고 있는 행자들. 지계(持戒)를 통해 출가수행자로서의 자긍심을 높이라는 혜능스님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인다.


◇저녁예불. 오분향례(五分香禮 · 다섯 개의 향을 나눠 피우면서 부처님께 예를 올리는 것)를 염송하며 부처님 뒤를 따르는 삶을 살겠다고 서원하는 행자들.

조계종 23기 행자교육 통도사 설법전 현장취재


◇가지런히 놓여져 있는 행자들의 고무신. 행자교육원의 엄격한 규율을 그대로 보여준다.


◇습의시간에 한 행자가 습의사 스님으로부터 목탁치는 법에 대해 지도를 받고 있다.

"오직 부처님의 뒤를 따르겠습니다"

습의 등 스님 되기위한 기초 소양 교육
묵언·청규 철저…어기면 3천배 참회·퇴방
교육후 시험 통과하면 사미(니)계수계

행자교육원은 조계종 스님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1차 관문. 출가한 사찰에서 5개월 이상 교육을 받은 행자들이 전국에서 모인 자리다. 그렇다고 아무나 행자교육원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번 23기 행자교육원 신청자 235명중 필기고사, 신체검사, 면접에서만 36명이 탈락했다. 그만큼 엄격한 기준을 통과해야만 한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일 뿐이다. 일단 행자교육원에 입교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묵언(默言)'이다. 단 한마디의 말도 허용되지 않는다. 23일간 침묵 속에서 살아야 한다. 어디 그뿐인가. 청규를 철저히 지켜야 한다. 한 치라도 어긋나면 가차 없이 벌점을 받게 되고, 심하면 3천배를 올리는 참회를 해야 하거나 퇴방조치를 받게 된다.

다음날 새벽 3시. 짙은 어둠을 깨치는 도량석이 울려 퍼지고, 남행자들이 설법전에 모여들었다. 부처님에게 예를 올리는 새벽예불. 행자교육원의 하루는 이렇게 시작된다. 여행자들은 설법전에서 1km가량 떨어져 있는 취운암에서 남행자와 똑같은 교육을 받는다. 다른 것이 있다면 습의사(習儀師 · 교수사를 보조하며 행자들을 지도하는 스님)가 비구니스님이라는 것뿐이다.

예불 뒤 곧바로 이어지는 참회 정근. 쉴 새 없이 절을 하며 초발심을 다진다. 세상의 번뇌를 접고 자비를 실천하기 위해 들어선 산문. 이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세속과 불가는 갈라서지만, 산문 너머의 마음을 닫기란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혹독한 수행만이 그 어려움을 이기는 길. 그런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기에, 행자들의 정근에는 비장함마저 배어난다.

날마다 행자가 하는 수행의 반은 이렇게 부처님 앞에 몸을 낮추며 자신을 버리는 법을 배우는 것으로 채워진다. 정진은 저녁에도 이어진다. 매일 백팔참회도 해야 한다. 행자들은 이렇게 적어도 하루 700~800배를 하며 정진을 한다.

아침 공양을 하고 나면 본격적인 습의시간이 이어진다. 오전 7시20분에 시작된 '사미율의' 강의시간. '계는 목숨과도 같다'는 해인사 율원장 혜능스님의 말에 행자들이 바짝 긴장한다. 출가 수행자의 본분은 계율을 철저히 지키는 것. 행자들의 노트가 깨알 같은 글씨로 채워진다. 철저히 익히고 지키겠노라고.

'예식의궤' 시간은 행자들에게는 아직 낯설다. 목탁을 치는 법도, 요령을 흔드는 법도, 염불을 하는 법도 아직은 서툴다. 하지만 불가의 모든 것은 법도가 있는 법. 한 행자가 습의사 스님으로부터 목탁 치는 법에 대해 개인지도를 받았다. 행자교육을 마칠 때쯤이면 어느 정도 익숙해질 터. 교수사(敎授師 · 행자교육을 담당하는 스님)의 죽비소리에 맞춰 행자들이 치는 목탁소리가 영축산에 울려 퍼진다.

두 과목 강의 후 1시간여의 정근을 마치고 나면 사시법공양. 스님으로서 알아야 할 갖가지 예법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발우공양. 비벼먹거나 국이나 물에 말아먹어서도 안된다. 밥을 받아든 발우를 내려놓고는 다시 합장 반 배. 가지런히 발우를 펼쳐 놓는 것도, 공양을 마친 후 물을 담아 발우를 깨끗이 씻고 그 물까지 다 마시는 것도 수행이다. '자세를 바로 하세요" 습의사 스님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행자들은 다시 허리를 곧추 세운다.

사시공양 뒤 20분간의 휴식 시간도 잠시, 초발심자경문, 습의, 위의문 강의가 3시간 동안 이어지고, 계속해 운력과 청소, 정근으로 오후시간이 지나간다. 하루 종일 쉴 새 없이 이어지는 습의와 강의. 23일간의 교육기간동안 행자들은 기초 의식을 포함해 부처님 생애, 기초교리, 고승전, 42장경, 사미율의 등 10개의 교과목을 이날과 똑같은 일정에 맞춰 배워야 한다. 말 그대로 강행군이다. 게다가 모든 행동에 있어 한 치의 흐트러짐도 용납되지 않는다. 걸을 때는 반드시 차수(叉手 · 손을 포개어 단전에 올려놓는 것)를 해야 하고, 심지어 화장실을 갈 때도 줄을 지어 가야만 한다.

하지만 뭐니뭐니 해도 가장 힘든 것은 오후불식. 행자들은 오전 11시 사시법공양 이후에는 아무 것도 먹지 못한다. 물론 일체의 간식도 허락되지 않는다. 오후 불식을 하셨던 부처님의 수행정신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다. 처음 해보는 오후불식이 쉬울 리 없다. 건강한 사람도 견디기 쉽지 않은 일. 임주임이 고비라고 한다.

오후 불식 4일째지만 아직까지 지쳐 보이는 행자는 눈에 띄지 않는다. 출가자의 길이라는 것이 어차피 '나'를 버리지 않고서는 버텨내기 힘든 것. 행자들은 그렇게 '자기'를 버리며, 깨달음을 향한 '구도열'로 배를 채워가고 있었다.

행자들은 앞으로 세 차례의 일보일배와 삼보일배를 해야 하고, 마지막 날 하루 전에는 3천배 철야정진을 해야 한다. 이런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한 뒤 고시를 치르게 되고, 여기에서 합격하면 교육 마지막 날인 9월16일 밤색(여행자는 주황색) 행자복 대신 잿빛 사미(니)복을 입고 사미(니)계를 받는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일 뿐이다. 그렇기에 행자들은 한순간도 놓침 없이 스스로에게 되묻는다.

'지금 왜 여기에 있는가'.

통도사=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사진=고영배 기자 ybgo@buddhapia.com

스님이 되기까지

사미계후 강원등 종단지정 교육기관 기쳐야 비구계

조계종 스님이 되기 위해서는 세 단계 교육과정을 거쳐야 한다. 우선 출가한 사찰에서 최소 5개월 이상 행자생활을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행자들은 새벽 2시 반 아침예불을 시작으로 공양준비, 청소 등 절 안팎의 각종 허드렛일을 하며 '하심'을 배우게 된다.

그 다음단계가 바로 행자교육원이다.

그리고 행자교육원을 이수하고 난 뒤에는 강원이나 기초선원, 중앙승가대, 동국대 등 종단이 지정한 기본교육기관에서 4년 동안 공부를 해야 하며, 이 과정을 마쳐야만 비로소 비구(니)계를 받고 정식으로 스님이 된다.

최근 몇 년 새 출가행자들의 학력과 연령은 높아져가는 추세다. 이번 23기 행자교육원 지원자 235명 중 93명(40%)이 대졸이고, 대학원졸도 7명이나 된다. 5년 전과 비교해 고학력자가 2배 이상 늘어났다. 그만큼 행자들의 기본자질이 높아져가고 있는 셈이다.

고학력자가 늘면서 지원자 평균연령도 높아졌다. 이번 23기를 보면 30대가 103명(44%)으로 가장 많고, 40대도 47명(20%)이나 됐다. 20대는 74명(31%)이었다. 과거 20대가 가장 많았던 것과는 다른 양상이다.

현 시대의 병은 어디에서 왔느냐?



천지기운이 돌아가는 법칙을 알아야 세상의 시대 변화를 알겠으니...
오랜세월 산사에서 토굴을 짓고 살면서 동양철학, 운기학(運氣學), 민간 약초만 연구하여온 삼정스님 시대가 변하면 병도 변하고 그시대에 따라 먹는 음식도 약도 변해야 된다고 한다. 현대의 병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왔느냐?
공기, 수질, 농약, 중금속오염 등 각가지 공해와 오염의 독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온 일류가 자연의 법칙을 거역한 죄로 예전에 없던 각가지 중병을 앓으며 죽어가고 있다. 이 가공할 죽음의 질병들 앞에 우리인간은 완전 무력하다.
옛날 의서에도 세상이 변하는데로 약을 쓰라고 했다. 지금은 화(火)의 기운이 성한 시기다. 〈음양오행의 화(火)〉
모든게 불 세상이다. 신경성 질환, 당뇨, 혈압, 암등 각종 장기의 염증등 전체가 화에서 일어난 병이니 불을 끄려면 자연의 이치상 물을 부어 불을 끄는 이치와 같으니 오염의 독을 해독하고 나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켜 스스로 병을 치유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삼정스님은 우리 인체의 신진대사를 촉진, 기혈(氣血)이 원만이 행기(行氣), 활혈(活血)하고 정심(正心), 삼합일이 되어야 건강한 정신, 건강한육체를 가지게 된다하여 삼정단이라 이름을 붙여 각가지 병들로 인하여 체질이 허약하고 신체의 리듬이 깨져 온갖 성인병으로 몸이 쇠약하여 고생하시는 분을위해 삼정스님은 우리 나라 깊은 산속에서 자생하는 석남엽, 구지뽕나무 등 각가지 열매나 뿌리를 어렵게 법제과정을 거친 그 결실을 불자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성인병의 신효한 三淨丹(삼정단)

"특히"
● 가슴 위가 답답하고 머리가 자주 어지러운 분, 빈혈, 저혈압, 뇌기능강화
● 얼굴에 핏기가 없고 이유없이 항상 피곤한 분
● 신어로오는 요통, 신장기능 저하증, 소변이 잦으면서 시원하지 않는 분
● 각종 부인병, 손발이 저리고, 냉한 분, 불임증, 산후병, 갱년기 장애
● 뼈가 약하며 각종 신경통, 요통, 골다공증, 관절염, 디스크
● 각종 신경성질환, 간기능저하증, 간염, 간경화

※ 편두통, 기관지천식, 중풍, 당뇨, 암 등 각종 성인병으로 고생하시는 분은 개별 상담해 드립니다.

상담문의 : 053-652-3300



혜경스님의

경전읽기

법화경 ⑪ 여래수량품 제16

부처님 세계, 중생 세계

원래 이 세상은 부처님이 보는 세계나 중생이 보는 세계나 어디까지나 절대 평등하여 똑같은 세계이지만 "깨치지 못한 중생들은 큰불이 나서 이 세상이 끝나는 줄 알지만, 부처님의 세계는 언제나 안온하여 천신과 인간들이 넘쳐흐르며 수많은 놀이동산과 아름다운 누각에다 보배로 이룩된 산과 들에는 나무마다 꽃과 열매 무성하여 중생들이 놀며 즐긴다. 천신들은 북을 치며 갖가지 음악 연주하고 만다라꽃비 내려 부처님과 제자들에게 뿌린다. 나(부처님)의 정토는 항상 이와 같이 허물어지지 않건만 중생들은 불에 타 없어진다고 생각하며 근심하고 두려워하며 괴로움에 가득 차 있다(我此土安穩 天人常充滿 園林諸堂閣 種種寶莊嚴 寶樹多華果 衆生所遊樂 諸天擊天鼓 常作衆伎樂 雨曼陀羅華 散佛及大衆 我淨土不毁 而衆見燒盡 憂怖諸苦惱 如是悉充滿)"고 '여래수량품'은 노래하고 있다.

이 노래는 허공법회(虛空法會)에서 본불(本佛)인 구원실상의 부처님('眞理')께서 지옥, 아귀, 축생, 수라, 사람 등 다섯 갈래의 마음을 모두 없애고 오직 향상된 마음만을 가진 사람들을 향해 설한 허공법회이다. 이렇게 허공법회에 동참한 사람들은 모두 마음이 공의 경지에 사무쳐 해탈을 하였고 동시에 너와 내가 본래 하나임을 알았다는 말이다. 부처님은 이들을 향해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은 극락정토이며 너희들('衆生')이 착각('顚倒')된 눈으로 보는 세계는 너의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다. 즉 극락과 지옥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상즉(相卽)된 것인데 그 어느 한쪽만 보고 지옥이라고 단정한다는 것은 올바로 보지('正見') 못하고 삿되게 보는('邪見') 것이니 중도(中道)로서 보면 나('佛')와 같이 실상을 볼 수 있다. 즉 빛이 부처이고 부처가 빛인 것이다. 깨친 사람의 눈에는 현실 그 자체가 모두 빛('光明')이니 이 세상이 극락정토인데 어디에서 극락을 구하려 하느냐고 말씀하신다.

부처님은 3계의 참모습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 볼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은 나고 죽고 하여 기필코 변화하는 것이나, 그것은 현상 위에서 만 분의 일에 불과하며 여래의 눈으로 그 속에 있는 실상(불변의 진리, 즉 마음)을 보면 모든 것은 사라지지도 않고 나타나지도 않으며 모든 생명체는 그

깨친 사람엔 현세가 극락정토
일체의 현상 마음이 만든 허상

것이다. 예로부터 〈법화경〉을 설한 장소는 두 곳이며 법회는 세 번 열렸다 하여 2처3회(二處三會), 즉 2막3장(二幕三場)이라 한다. 그 세 번의 법회 가운데 두번째의 법회가 이 허공법회인데 인간의 마음을 공, 즉 제일의공(第一義空)의 세계로 끌어올렸음을 비유하여 허공이라 한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허공이란 '없다' 또는 '허망'의 뜻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일체 만법이 실체가 없는 공성임을 아는 경지로 끌어올렸다는 의미에서 비롯된 말이다. 부처님께서는 인간의 마음속에 인간 이하의 마음이 지배하고 있다면 이 〈법화경〉을 설해도 전혀 알아듣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공을 아는 경지로 끌어올린 것이다. 우리들의 마음('衆生心')속에는 진여심(眞如心)과 염심(染心)이 평등하게 자리잡고 있다. 이 두 가지 가운데 밖으로 표출되는 것은 오직 하나 뿐이며 둘이 동시에 표출되지 않는다. 이렇게 표출되는 것이 하나라는 것은 생각이 하나만 일어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둘 가운데 어느 쪽을 연으로 하느냐에 따라 정(淨)과 염(染)의 행이 생기므로 의상대사는 〈법성게〉에서 "불수자성수연성(不守自性隨緣成)"이라 한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을 반야의 경지로 끌어올린 것이대로 살아있을 뿐 이 세상에 있다든지 혹은 세상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본래 없으므로 눈앞의 사물이 실제로 있다고 보는 것도 잘못이며 없다고 단정하는 것도 잘못이다. 또 사물이 항상 변화하지 않고 있는 것처럼 생각함도 미혹이지만, 그렇다고 현상만 보고 상주하는 것이 없다고 생각함도 얕은 소견이다. 여래는 3계에 살고 있는 인간들의 그와 같은 생각을 초월해 그 속에 있는 실상을 꿰뚫어 보고 있기 때문에 결코 잘못 보는 일이 없다. 일체의 현상('事物')은 우리의 마음이 만들어낸 허상에 지나지 않지만, 깨치지 못한 중생은 저마다 각기 다른 성품을 가지고 있으며 제각기 다른 욕망, 자기의 주관에 의해 분별하는 습성이 있으므로 항상 이렇게 착각된 생각을 하게 된다. 그러나 진리('佛')는 항상 이 세상에 있으면서 방편을 가지고 교화를 계속해 왔다. 이와 같이 진리는 항상 이 우주가 처음 시작되면서부터 존재해 왔고 또한 영원하기 때문에 항상 이 세상에 머물고 있어 없어('滅')지는 일은 없다. 결론적으로 진리는 영원한 것이다. 진리는 고통이 아니고 즐거움('樂')이며 진리는 부처님('我')이며 진리는 청정1심('淨')이며 조화('寂滅')된, 즉 평등한 모습인 것이다.

▣무설정사 조실

바른 마음·생각·하



◇벽봉스님은 세수 80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매일 밭에 나가 일을 하신다. '일'은 스님의 수행방편이자 건강비결이다.

가까

벽봉스

예상과 달리 반갑게 맞아주신 벽봉 스님에게서 시골 할아버지 같은 푸근함이 느껴졌다. 그리고 무심한 벽봉 스님의 말투는 솔직한 성격과 마음 그 자체임을 알 수 있었다.

"스님, 깨가 얼마나 나오나요?" 기자가 물었다.

"뭐, 절에서 먹을 정도 나오는데, 올해는 비가 많이 와서 절반이나 될는지 모르겠다."

지난 번 장마 때 절 앞의 참깨 들깨 밭에 무릎 넘어까지 물이 차서 예년에 비해 수확량이 많이 줄었단다. 깨 밭을 둘러보며 벽봉 스님은 "저기 봐, 저 바닥에 허옇게 깨들이 떨어졌는데도 삐뚤새도 와서 안 쪼아 먹는다. 물에 잠겼다 나온 거라 그런지, 고놈들도 웃긴다 아이가, 저거들이라도 먹었으면 좋으련만. 어찌나 아까운지…."

벽봉 스님은 비둘기를 '삐뚤새'라고 하신다. 처음엔 그게 뭔지 알아들을 수 없었는데, 한참 뒤에야 절 마당에 앉아 있는 비둘기를 보고서 삐뚤새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었다.

벽봉 스님은 청력이 좀 떨어진 것 외에는 세수 80이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건강하다. 스님의 건강 비결은 바로 '열심히 일 하는 것'.

매일 새벽 3시 반에 일어나 4시에 법당에서 예불하고, 밭에 나가 일하다가 아침 공양하고, 일하다가 점심 공양하고, 또 일하다가 저녁 예불하고, 저녁 공양을 마치고 하루 일을 정리하고 잠자리에 든다. 이것이 스님의 일과다. 가끔 피곤할 때는 낮잠도 주무신다. 하지만 대다수의 시간을 밭에서 산에서 일을 하며 보낸다. 대원사 앞 텃밭의 참깨, 들깨를 비롯해 옥수수, 고추, 파, 감자 등은 모두 벽봉 스님이 가꾸는 것들이다. 또 장마로 넘어진 뒷산의 나무들도 손수 일으켜 세우고, 베어내야 할 것들은 베어내며 정리한다. 아침 저녁 법당 예불 시간과 하루 세끼 공양시간을 제외하고는 거의 밭에서 일을 하며 생활하는 벽봉스님.

"중이 아침 저녁 부처님께 절 하는 게 제 할 일인데, 당연히 해야지, 안그렇나?" 아직도 직접 예불하시냐는 물음에 스님은 이렇게 답하신다. 벽봉 스님은 일이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하신다. 밭작물을 다 거둬들인 후 겨울에는 땅을 파서 내년 농사를 대비하신다니, 입을 다물지 못할 지경이었다.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않는다'는 백장선사의 가르침을 평생 화두로 삼아 온 스님은 일과 수행, 기도와 정진이 모두 하나라고 믿는다. 그래서 당신 스스로 일하는 시간, 예불 하는 시간을 구별하지도 않는다. 그저 평생 해 왔던 그대로 자연스럽게 모든 일을 대하고, 순리대로 처리한다. 가끔은 힘든 일도 생기지만, 그것도 다 수행의 과정이고 끊임없이 배우는 과정이려니 하는 마음으로 수순히 받아들이면, 또 그런대로 어렵다 힘들다 생각했던 일들도 풀려나간다.

"불자들도 마찬가지요, 대부분의 불자들이 가정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갑자기 찾아와서 무슨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묻곤 하는데, 어디 기도가 무슨 일이 있을 때만 하는 것이요? 불자의 삶은 그 자체가 기도이고, 수행이어야 하는 것이지. 자기가 필요 할 때만 기도하는 그런 편리한 사고를 가지고, 생활하는 사람은 불자라고 할 자격도 없는 것이야."

벽봉 스님이 조실로 계신 경북 칠곡 송림사 종무소의 서혜지씨는 스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큰 스님들과는 많이 다르다고 말한다. "매일 매일 일을 하시면서도, 가끔 할일이 없는 날에는 개울 건너 남의 밭일 까지 하십니다. 한마디로 한시도 가만히 계시지를 않으시예. 보통 큰 스님들 하면 절에서 근엄하게 계시다가 찾아오는 불자들에게 가끔 법문하시고 그러시는데, 스님은 다릅니다. 대원사도 누가 지켜도 지켜야 한다면서 송림사에 계시다가 몇 해 전에 가셨습니다."

스님은 절약하고 아끼며, 수행자로서의 최소한의 것들만을 취하신다. 세수를 할 때도 세수대에 물을 3분의 1만 채우고, 비누는 쓰지 않는다. 또 세수한 물에 양말을 빨아 널고, 다 사용한 물은 모았다가 밭에 갔다 뿌린다. 신도들이 양말이며, 속옷을 비누로 깨끗이 세탁해 드리겠다 해도 "또 나가 일하면 금방 땀내 나는데 뭐 할라고"하며 못하게 막는다. 그래서 가끔은 신도들이 스님 몰래 가져다 빨았다가 제자리에 갔다 놓기도 한다.

실상 직시하지 못하고
기대·환상속에 빠져
항상 번뇌 끊이지 않아

오래 입어 다 떨어진 작업복도 못 버리게 하고, 양말이나 속옷도 다 해어져 떨어지면 신도들이 시장에서 사다주는 몇 천원 짜리로만 겨우 입는다. 서씨는 "한마디로 당신을 위한 투자는 전혀 안하십니다. 다 쓸데없는 짓이라는 거지예. 그리고 건강하시니까 보약 같은 거 잡수실 일도 없고예. 그저 일하고, 기도하고, 불사하는 거 밖에 모르십니다."

말없이 온몸으로 무소유를 실천하며, 불제자로서의 삶을 살고 계신 벽봉 스님. 지난달에는 대구 동화



◇절 앞마당 종각터에 세워둔 참

사 백고좌 법회에서 '지장경'에 대한 법문도 하셨다. 또 다른 절에서는 법문 안하시냐고 여쭈었더니, "솔직히 내는 잘하는 법문이 아니다. 내 말고도 얼마나 법문 잘하는 스님들이 많은데, 옛날에는 여기저기 가서 법문하고 했지만은 요즘은 그나마도 안한다. 그리고 와서 법문 해달라는 데도 별로 없다. 동화사는 내 상좌가 있는 절이라 가서 했지, 내 앞 가림 하기도 시실은 힘에 부친다."

그래도 불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가르침을 달라고 하였다.

"바른 마음·바른 생각·바른 행동으로 정진하는 것, 이것 말고 또 무슨 가르침이 더

2002학년도 후학기 **대원불교대학 입학안내** 직장인을 위한 야간대학

- 교계 최초로 1972년 설립된 본 불교대학은 불교의 생활화·현대화·대중화를 위한 불교지도자와 법사 양성을 위한 야간 2년제 전문 과정임(30년 전통 2000여 동문 졸업 및 500여 법사 배출) -

● 강의시간 2002년 8월 26일 개강 주 4일 출석(월화수목), 필수 : 5과목, 선택 : 2과목 강의(야간수업)
● 지도교수 최봉수(동국대), 장휘옥(동국대), 허경구(동국대), 김사업(동국대), 김종욱(동국대)
● 불교의식실수 특별초빙교수 마일운스님(범패전승자)
● 교육과목 【※2년간 불교의식 실수 및 동·하계 수련회[2박 3일] 개최】

1학년	1학기(14주)	· 불교학 개론 · 인도불교사 · 불교경전개설 · 연대불교윤리
	2학기(14주)	· 원시불교 · 아비달마(구사론) · 반야사상 · 불교의식 실습 · 선사상
2학년	1학기(14주)	· 유식사상 · 중국불교사 · 한국불교사 · 원전강독 · 불교와 철학
	2학기(14주)	· 법화사상 · 화엄사상 · 정토사상 · 우리말불교의식

● 모집 및 전형[2년제 야간 - 출강·통신과정]

모집과목 및 인원	지원자격	제출서류	전형방법
· 불교학 출강 00명 · 불교학 통신 00명	· 체계적으로 불교교육을 원하는 자 · 대중불교 지도자 자질 보유자	· 입학원서(소정양식)1부 · 주민등록등본 1부(사진3매)	- 서류전형 - 합격자 개별통지
· 불교학 편입 00명	· 타불교 대학과정 졸업자(2학년 편입)	· 불교대학 졸업장 사본(편입생에 한함)	- 편입생은 2학년과정으로 입학

● 원서교부 및 접수 2002년 9월 7일까지(토요일) 본 대학 교무과(수시모집)
● 특전사항
· 법사과정 이수 후 법사호 수여 · 포교실습 지망자 법회처 제공
· 포교당 종교법인 보호 · 성적우수자 장학혜택 부여
· 동국대 불교대학원 입학자격

⊙ 大圓佛教大學 학장 혜거스님

140-190 ·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동 358-17 TEL : (02) 754-1613, 773-9171, 776-7156 FAX : (02)756-7258
Homepage : www.idaewon.or.kr

제3기 **선(禪) 심리치료사 양성 및 심화과정모집**

⊙ 선 심리치료사란?
물질 정보문화의 발달로 생활은 편리하지만 참나를 잊고 혼돈속에서 방황하며, 도덕 불감증과 각종 공해로 인한 스트레스(번뇌)와 불안심리 등을 해결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정신심리요법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 정신심리요법 중에서 선 수행과 불교적 소양, 정신분석학, 동양의학, 심리학, 대체의학 등의 전문지식을 연구하여 인간 심층심리에 잔류하고 있는 불안정한 음성적인 에너지를 없애고 마음의 세계를 안정시켜 스스로 참나를 찾아서 자유·평등·평화로움을 갖게 하는 최상의 무아심리치료의 장을 열려는 불교적 노력을 선 심리치료라 하고 이 무아심리요법 전문가를 「선 심리치료사」라 정의한다.

⊙ 주요 교과
▸불교학
▸선 심리치료학
▸무아선무요법
▸참나찾기 특수프로그램
▸금강경, 능엄경의 정신분석 심리치료
▸영혼 심리학
▸통찰심리치료
▸예술심리치료법
▸유식과 심리치료

⊙ 교과 일정(일반과정)

과 정	요 일	시 간	기 간
양 성	목요일	10:00~12:00	9월 26일 ~ 2003년 1월 23일
심 화	금요일	10:00~12:00	9월 13일 ~ 2003년 2월 21일

⊙ 주요 강사진
이 법 산 : 동국대학교 정각원장, 한국선학회 회장
박 운 곡 : 동방불교대학 교수, 태고종 중앙종회 의장
백 상 창 : 백상창 정신과 원장, 통찰심리치료 전문의
김 관 화 : 아세아 신학대학교 총장
장 태 수 : 한국사회복지대학교 총장
최 수 영 : 미 조지타운대학 심리학 박사
성 상 현 : 법화경, 수능엄경, 육조단경 암송법사
주 명 철 : 동국대학교 교수
김 도 각 : 한국선심리치료연구원 원장

⊙ 입학자격
불교연구자, 상담사, 포교사, 교사, 교수, 의사, 한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청소년지도사, 학부모, 기타(성직자 등)
(단, 심화과정은 양성과정 졸업자에 한함.)

⊙ 졸업자 영분 분석
▸성직자 : 11명
▸교사·교수 : 3명
▸의사·한의사 : 3명
▸포교사 : 30명
▸침·뜸·동의학연구자 : 4명
▸사회복지사 : 4명
▸간호사 : 4명
▸상담종사자 : 2명
▸경영진단사 : 1명
▸기타 : 20명
▸청소년지도사 : 1명

⊙ 특 전
① 선 심리치료사 자격증 수여
② 마음의 전화 개설시 자료 제공
③ 참나찾기 지도자 팔관재 큰 모임 참가 자격
(문화관광부 후원 선 심리치료 프로그램으로 17회 개최하였음.)

⊙ 수강신청
2002년 9월 24일(통신교육도 가능함)

⊙ 문의 및 수강신청
한국선심리치료연구원
TEL : (02)738-1275(심리치료),
(02)326-0248~9(F)
H·P : 016-301-4080

사단법인 **참나찾기 청소년지도자협회**
부 설 한국선심리치료연구원
마 음 의 전 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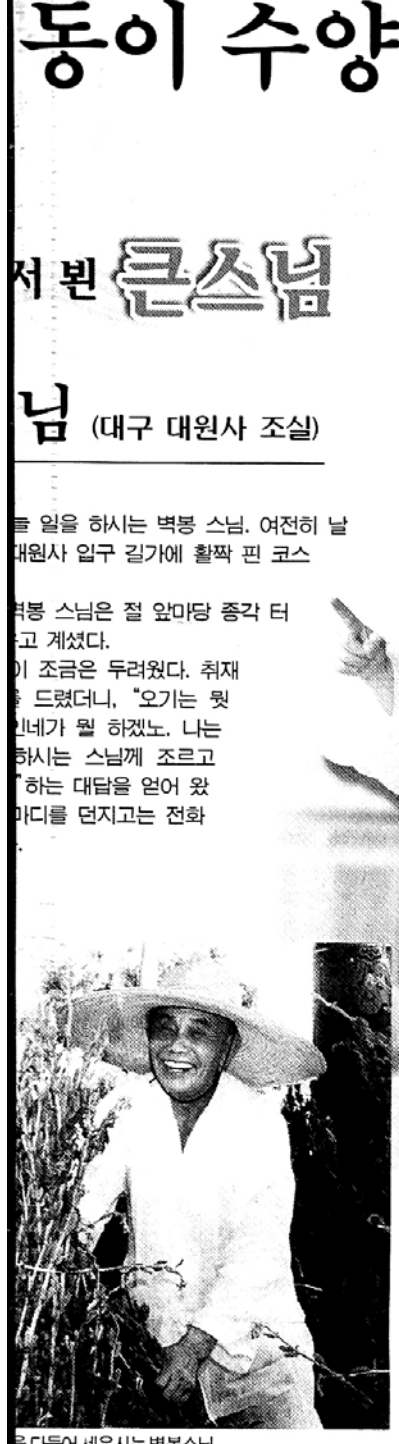
동이 수양인 본분

저 뵌 큰스님

님 (대구 대원사 조실)

들 일을 하시는 벽봉 스님. 여전히 날
대원사 입구 길가에 활짝 핀 코스

벽봉 스님은 절 앞마당 종각 터
고 계셨다.
이 조금은 두려웠다. 취재
을 드렸더니, "오기는 뭣
신네가 뭘 하겠노. 나는
하시는 스님께 조르고
"하는 대답을 얻어 왔
마디를 던지고는 전화
.



을 다듬어 세우시는 벽봉스님.

겠노. 이것이야 말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라 수형하고, 깨침을 얻으려는 수양인의
분이지.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모두 돈을
의 척도로 삼아서 생활하다 보니 다들 번
에 끄달리는 것이야. 자기 삶에 필요한 최
한의 것만 갖추고, 나머지는 남을 위해 써
하지만 어디 그게 쉽게 되나? 좋은 것 가
면 가질수록 더 좋은 것이 탐이 나고, 음
도 마찬가지 아니요. 매일 풀죽만 먹던 사
이 쌀죽을 먹고 나면 입맛과 생각이 바뀌
, 또 쌀죽에서 쌀밥을 먹어보면 또 마음이
하고, 쌀밥을 먹고 나니 고기반찬까지도 먹었으면 하는 욕심이 생기는 것 아니겠소. 사람의 욕심이란 끝이 없어서 항상 바른 마음으로 바른 생각을 갖고, 바른 행동으로 정진해 나가는 것이 쉽지가 않은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시며 스님의 발걸음은 자연스레 옥수수 밭으로 옮겨졌다. 옥수수 대에서 옥수수를 하나 뚝 잡아떼시더니, 다시 말씀을 이으셨다.

"이 옥수수만 해도 그렇지, 요즘 누가 이런 거 거들떠나 보오? 하지만 이 작은 옥수수 알 하나에도 온 우주 생명의 가르침이 담겨 있다는 걸 안다면, 하찮은 옥수수 하나도 귀하게 여기게 될 터이고, 그렇게 작고 보잘것 없는 사소한 일 하나에도 온 마음을 쏟아 바라보게 되면 자연히 바른 마음을 갖게 되고, 그 마음이 바른 생각으로 이어지고, 바른 행동으로 옮겨져서 생활 속에서 스스로 정진하게 된다면 그게 바로 불자의 삶이요, 수행이 아니고 무엇이겠소. 모두들 자기 앞에 놓인 실상을 바로 보지 못하고, 가르침이나 수행이 저기 멀리 고차원적인 그 무엇이라는 기대와 환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항상 번뇌도 끊일 일이 없는 것이요."

스님이 하루도 거르지 않고, 밭에서 일을 하는 이유를 조금이나마 알 것 같았다. 자연과 함께 숨쉬며 자



◇벽봉스님은 아주 작은 일 하나에도 우주의 진리와 생명의 가르침이 담겨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온 마음을 쏟아야 한다고 말씀하신다.

"90살까지 일해야 안되겠나 못다한 종각불사 마무리하고 유치원·납골당도 짓고 싶은데…"

연과 인간을 둘이 아닌 하나로 생각하고, 그들속에서 함께 공생하는 우주의 존재임을 자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스님의 생활이자, 수행임을.

"요새, 절에 신도들이 찾아와서 내보고 '스님, 고마 쉬시고 상좌한테 맡기소' 하지만은 나는 아직도 내가 할일이 많이 남았다고 생각한다. 한 90살 까지는 일해야 안되겠나. 하다만 종각불사도 마무리하고, 유치원도 만들고, 납골당도 짓고 싶은데 내가 생각하고 마음먹은 대로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허허허…."

90세 까지 원력을 세우로 열심히 일하겠다는 벽봉스님. 스님은 돌아가는 길에 먹으라며 옥수수 두 덩이를 내어주셨다. 스님이 주신 옥수수는 여느 옥수수가 아니었다. 온 우주 생명의 가르침이 담긴 옥수수. 차를 기다리며 그 옥수수 한알 한알을 맛 보면서 밭에서 일하시던 스님의 모습이 떠올랐다.

글=이은자 기자 ejlee@buddhapia.com
사진=고영배 기자 ybgo@buddhapia.com

벽봉스님은?

강원 졸업 후 대학서 철학 전공

벽봉 스님께 사진 촬영을 위해 가사 장삼을 입으시라 했더니, 주섬 주섬 옷을 입으시며 난데없이 옛날이야기를 마구 늘어놓으셨다.

경북대학 철학과 3학년 시절, '홀치기' (군대에 억지로 징집당해 가는 것을 스님을 이렇게 표현했다당할 뻔 했다 나온 이야기, 상좌들 혼냈던 이야기, 또 백양사 서옹 큰 스님과의 인연으로 한때 조계종 총무원 사서실장을 맡았을 때 이야기 등.

스님은 서옹 스님이 총무원장으로 부임하던 때 당신을 사서실장으로 임명했다면서 "그때 국회부의장 무슨 당 총재, 뭐 이런 사람들 만나는데 산중에만 있다가 나가보니 촌뜨기가 돼서 아는 게 없는지라 그런 높은 사람들 만나도 순서를 어떻게 정하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알 수 가 없었지. 그때 사회부장이던 혜성 스님(전 도선사 주지)이 나를 많이 도와줬어"라고 말씀 하셨다. 큰 스님 자신도 당시의 일들을 기억해 내며 추억하시기를 즐기는 듯 했다.

벽봉스님은, 1936년 해인사에서 설석우 스님을 은사로 득도했으며, 50년 해인강원에서 수학하고, 67년 경북대 문리대 철학과를 졸업했다. 거창 연수사, 의성 고운사, 대구 보현사 등을 거쳐 92~94년에는 대구 동화사 주지를 역임했다. 현재 대구 팔공산 대원사와 칠곡 송림사 조실이다.



리선행 법사의 스님이야기

홍도스님 (2)

홍도스님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자비심이 대단했던 보살'이라고 입을 모은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마치 숨쉬는 것처럼, 밥먹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자비행을 폈던 분이 바로 홍도스님이기 때문이다.

스님은 신도들의 생일을 한 사람도 빠뜨리지 않고 다 챙겨주셨다. 신도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도 아니요,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도 아니었다. 생일날 일일이 집을 찾아가 축하하고 대화 나누는 것을 좋아하셨다. 신도 누구의 생일날을 맞으면 불공드리고 축원 올린 떡을 일일이 들고 신도 집에 가져다 주었다. 간혹 다른 종교를 믿는 친지가 함께 있는 등 사정이 있어 스님이 오는 것을 귀찮아 하는 신도도 있었지만, 개의치 않았으며 도리어 덕담으로 그 신도의 체면을 살려주었다. 이런 스님의 행동 때문에 일부 스님들로부터 '떡장수'라는 비야냥을 들었지만 미소로 넘기곤 했다. 그때 스님이 생일을 맞은 신도집을 찾아 그 가족과 축하하고 대화를 나누고 한 일이



이후 가정법회나 지역법회의 시초가 되지 않았나 싶다.

스님은 단순히 생일 축하만 한 것은 아니다. 어떤 집에 가서는 그 집 아들 취직시켜 주기 위해 이곳 저곳 전화하느라 한나절이 걸리기도 하고, 또 어느 집에서는 혼기놓친 딸을 위해 몇 시간씩 걸려 중매를 서기도 했다.

살을 에는 추위가 몰아치던 엄동설한의 어느 날 생일맞은 이만 12명이었다. 나는 홍도스님과 함께 생일 떡 12판을 짊어지고 절을 나섰다. 떡을 하나 들고 신도집에 들어가신 스님은 바깥에서 떨고있는 나를 몇 시간이나 잊어버리셨는지… 지금 생각하면 어린 출가자였던 내게 인욕을 가르치기 위한 방편이었다고 여겨진다.

스님은 당시 몇 군데 되지 않은 불교보육원 중 하나인 송암보육원 이사의 책임을 맡아 교통 불편한 경기도 시흥까지 수시로 드나들면서 원생들을 위로하였다. 아이들과 법회를 함께 봉행하고 허물없이 놀아주곤 했는데, 그 일을 귀찮아 하지 않고 즐겁게 했다. 원생들 스스로 자치적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이었는데 스님은 전화 담당하는 어린이를 '통신참모', 자동차 담당은 '수송참모', 식사 담당은 '군수참모'라 호칭하면서 부모 없는 아이들에게 가까이 다가갔다.

또 기억나는 일이 있다. 1967년 여름 충남 청양에 있는 구봉광산에서 갱도가 무너져 양창선이라는 갱부가 매몰, 18일만인가 구출된 사건이 있었다. 그때 스님은 그 보도를 듣고 곧바로 현장으로 달려가 무사히 구출되기를 기원하는 기도를 보름간이나 했다. 갱도 앞에서 절실하게 발원하는 모습이 마치 아들을 구하기 위해 절규하는 어머니의 모습과도 같았다. 갱도가 있던 곳은 오지의 산속이라 숙식을 해결할 곳이 마땅치 않아 산중턱에 버려진 너 댓 평 남짓한 산신당에 묵었는데, 한여름이라 모기가 어찌나 무는지 나는 잠을 잘 수가 없었다. 불평이라도 할라치면 스님은 "땅속에 매몰돼 있는 사람을 생각하라"는 말로 내 입을 막았다. 이렇게 스님은 하루가 멀다하고 사회에서 일어나는 각종 참사를 내 일처럼 가슴아파하고 피해자들을 위해 늘 기도 올렸다.

서울 시민회관과 대연각호텔에 화재가 났을 때도 득달같이 달려가 유리 파편이 튀는 현장에서, 인명피해를 줄이고 구명을 위한 기도를 불보살님께 철야로 올렸다. 그 모습이 어찌나 간절하든지 지나가는 시민들의 얼굴마저 숙연하게 만들었다. 그 광경을 전해들은 서울시장이 나중에

"매몰광부 무사" 보름간 기도 군위문·합동결혼식 주례도

스님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기도 했다.

스님은 정말 바쁘게 살았다. 군부대 위문행사시에는 언제나, 스님 키보다 더 큰 위문품을 메고 나타났다. 최전방인 애기봉의 점등법회나 청소년을 위한 각 행사에서도 맨 앞줄에는 늘 작은 키의 스님 모습을 뵙 수 있었다.

또 스님은 해마다 절에서, 돈이 없고 형편이 안돼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고 어렵게 사는 부부들의 무료 합동결혼식을 올려주었다. 스님이 주례를 맡았는데 주례사를 얼마나 재미있게 하든지 신랑 신부는 물론 하객들의 폭소가 연신 터졌을 정도로 결혼식 분위기가 늘 화기애애했다. 매년 개최하는 경노잔치때는 노인들과 어울려 자식들보다도 더 살갑게 노인들을 위로해 주었다.

홍도스님 주머니에 있는 돈은 '먼저 본 사람이 임자'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스님의 주머니는 늘 열려있었다. 어떤 돈이라도, 심지어는 불사에 쓰라고 받은 보시금일 경우에도 누가 어려운 사정을 얘기하거나, 불쌍한 형편을 보면 먼저 집어주곤 했기 때문이다.

선천적으로 타고난 것처럼 남 주기를 좋아하고, 보살행에 앞장섰던 스님은 진정한 '무주상보시'의 표본을 보이셨다. 44년이라는 짧은 생애를 베푸는 삶으로 채우신 스님은 혹 보현보살의 화신은 아니었을까.

▩ 횡성 '마음의 쉼터' 회주

한국산 가시오가피의 대명사

함박재 토종 가시오가피

■ 세계 최초 기업농으로 성공시킨 함박재 농장!

함박재농장은 멸종위기에 처해 보호야생식물(자연환경보전법 제2조)로지정되어 있을 만큼 희귀한 가시오가피 대량재배(10만평, 50만주)에 성공하였습니다.

-KBS, MBC뉴스에 보도 됨-



세계 최초 기업농으로 성공한 강 훈 구 대표

■ KSA(한국표준협회)로부터 으뜸상품으로 선정!

함박재 가시오가피는 상품력과 기술력, 그리고 QM시스템 구축도 및 활용도를 심사받아 KSA(한국표준협회)로부터 으뜸상품 제 2076호로 선정 되었습니다.

■ 충청남도 "향토지적재산"으로 선정!

함박재 가시오가피는 20여년간 가시오가피 살리기에 노력해 온 점을 인정받아 충청남도 "향토지적재산"으로 선정되었습니다.

※ 제품구입시 가시오가피와 일반오가피를 꼭 확인하세요.
※ 100%국내산 가시오가피를 "꼭" 확인하세요.



▣ 지금 전화주시면 가시오가피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주)한국자연과학
www.ogapiland.co.kr

전화상담 및 구입문의
TEL : (02)2272-4900

특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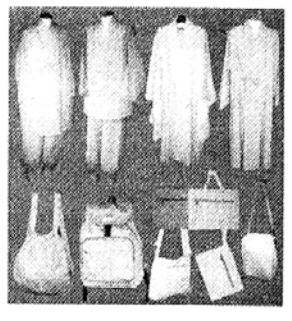
BBS 불교방송(길을 찾아서) 출현 특허에 의한 승복의 우수성을 설명

국내최초로 특허청에 의장등록(제 0246178호)

승복·법복·잠옷·바랑 판매 안내

불교계와 저희 기원섬유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 고급모직 (특징 - 통풍 잘됨, 가볍고 구김없음, 물세탁 가능)
(적삼, 바지, 조끼 : ₩170,000) (동방바지 : ₩160,000) (두루막 : ₩140,000)
2. 쿨맥스 (특징 - 품질 가장 우수함, 수분 발산율이 빠름, 구김없고 아주 가벼움, 물세탁가능)
(적삼, 바지, 조끼 : ₩180,000) (동방바지 : ₩170,000) (두루막 : ₩150,000)
3. 특수직 (특징 - 제일 가볍고 시원함, 물세탁 가능)
(적삼, 바지, 조끼 : ₩140,000) (동방바지 : ₩130,000) (두루막 : ₩110,000)
4. 아포텍스 (특징 - 몸에 붙지 않으며 까칠함, 물세탁 가능)
(적삼, 바지, 조끼 : ₩160,000) (동방바지 : ₩150,000) (두루막 : ₩130,000)
5. 광목 (특징 - 순수한국산, 손염색, 멋을 가진 승복)
(적삼, 바지, 조끼 : ₩170,000) (동방바지 : ₩160,000) (두루막 : ₩130,000)
6. 장삼 (조계종, 태고종) - 춘추, 하절기(가사도 주문 받습니다.)
(고급모직 : ₩220,000) (특수직 : ₩200,000)
7. 셔츠 (차이나, 라운드) : 가볍고 시원하며 물세탁 가능 : ₩30,000)
8. 걸망, 바랑, 나들이가방, 손가방, 보조가방
9. 가볍고 예쁜 법복(회색, 밤색) : 조끼 바지 : ₩65,000



하절기 시원하게 보내실수 있게 저희 기원섬유가 책임지겠습니다.

스님께 가사불사 보시하면 십선(十善)을 지어 5가지 큰 공덕으로 삼제팔란을 소멸합니다.

◒ 잠옷(항균처리) - 남, 여(상, 하) : ₩65,000
특징 : 1. 특허청에 의장 등록된 옴자, 연꽃무늬가 은은하게 들어있음 (제0246178호)
2. 항균처리된 제품
항균처리란? 각종 박테리아와 미생물의 증식을 억제시켜 악취 발생을 방지하고 청결한 몸상태를 유지시켜주는 특수제품 임
3. 고급순면으로 촉감이 아주 뛰어남

※유사품이니 모방할 경우 법적인 제재를 받습니다.

30년 전통의 승복 전문업체 "수레바퀴"
기원섬유

본 사 : 대구 동구 신천 3동 139-1 봉영 B/D 302호
TEL : (053)764-4114 H·P : 011-9850-4400

지역 판매점 모집

6일부터 29일 까지 서울 예술의 전당 디자인미술관에서 열리는 '몸에서 우주까지' 전은 일상생활용품에 대한 발상의 전환과 미래에 대한 제안을 실물과 모형, 영상으로 제시하는 재미있는 전시다.

미래 의식주는?

예술의 전당 '몸에서 우주까지' 展



◇'시소벤치'는 우연한 장소에서 시소처럼 움직이는 벤치를 통해 서로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도록 디자인했다.

동유럽 11국 디자인 50점 출품

느끼면서 먹는 새로운 개념의 도자기
시소벤치 · 접으면 2인용 의자로 변신

지난 5월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의 전시 'European Way(s) of Life'에 소개된 작품들 중에서 유럽의 최신 경향과 미래에 대한 상상력이 돋보이는 작품들을 선별하여 생활의 주제에 따라 구성한 것이다. 각 프로젝트는 의식주(衣食住)에 관련된 새로운 제안, 가구와 소품, 실내공간 디자인, 그리고 디지털 환경에 대한 새로운 전자 기기와 운송수단, 인터랙티브(interactive)디자인 등을 다루고 있다. 영국,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에스토니아 등 동유럽 국가까지 유럽 11개국 디자인 전공 대학생과 젊은 디자이너들의 상상력 번뜩이는 작품들은 공생 · 공존하는 우주적 존재로서 우리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고, 미처 생각지 못한 것들에서 문득 우리를 놀라게 한다.

'느끼면서 먹기(Eating with feeling)'는 도자기 세트의 이름이다. 우리가 먹는 음식과 식습관이 변화해 온 것처럼 그것을 담아 먹는 그릇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도를 표현하는 작품으로, 가족 친구들과 함께 식사하며 음식을 바로보고, 그 향기와 맛을 음미하라는 뜻이 디자인 속에 내포되어 있다.

벤치와 시소를 결합한 '시소 벤치(The Teeter Bench)'는 기분전환과 여가시간을 공생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한 작품이다. 시소처럼 움직이는 벤치에서 서로의 존재를 느끼고, 둘이 하나이자 전체인 공생의 진리를 우연한 장소인 벤치에서 확인 할 수 있도록 했다.

'카마르(kamar)'는 사람들이 짧거나 긴 시간동안 물 안과 물 밖 세상에서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디자인 되었다. 끝이 없는 거대한 물 위에 떠다니면서 사는 것을 가능하게 하고, 사람들이 짧은 시각에서 놓치는 것들을 볼 수 있게끔 하는 이 작품은 친근한 것과 낯선 것들 사이의 감동적인 경험을 제공한다.

이밖에도 일인용 좌석에서 이인용 좌석으로 마음대로 변화가 가능한 의자인 '하나 속의 둘(Two in One)'은 개인성과 사회성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의미하는 작품이며, '스크린(The Screen)'은 세상을 감지하기 위해 우리가 몸을 어떻게 쓰는 지에 초점을 맞춘 작품으로 자전거와 같은 기계를 이용해 관객이 직접 육체와 스크린의 상호작용을 풍찰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전시를 통해 현재의 유럽이 새로운 기술 개발과 생활환경의 변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또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몸에서부터 우주로 확장되는 역동적인 대안으로 파악해 볼 수 있다. (02)580-1538

문화담당= 이은자 기자 ejee@buddhapa.com

茶道 체계화

한중일 전통다도 최고 전문가 과정

경희대 특별대학원 · 명원 다도대학원

교수 다인 · 최고 명인 두과정 나눠 교육

차 문화와 역사, 만들고 마시는 법 등 다도 전반을 체계적으로 배우고, 실습하는 차 관련 대학원 전문 강좌가 신설되는 등 우리 전통 차 문화에 대한 관심이 날로높아지고 있다.

경희대학교 아트퓨전디자인 대학원(특수대학원)은 이번 학기부터 '한 · 중 · 일 전통 다도아카데미 최고전문가 과정'을 개설한다. 비록 대학원의 특별과정이기는 하나, 학문으로서 '차' 문화를 바라보고 접근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강의는 차 문화에 처음으로 입문하는 사람은 물론 지도자급 차인들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다도교양과 철학, 그리고 한국 중국 일본의 차 문화를 비교 분석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무산스님(경덕선원 주지, 한국 다선학회 회주)을 비롯, 김숙희씨(경희대 세라믹디자인 전공, 일본 다도 묘천가 불심암 차 전수) 등이 강의한다.(031)201-2166~7

명원문화재단(이사장 김의정)산하 명원다도대학원과 명원차문화원도 9월 둘째 주부터 강의를 시작한다. 대학원과정은 전문 사범 이상을 대상으로 교수다인과정과 최고명인과정으로 나뉘어 진행되고, 차문화원 강좌는 입차다례과정 · 말차다례과정 · 사범과정으로 나누어 일반인 초보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서울시 지정 궁중다례의식보유자인무형문화재 김의정 이사장을 비롯, 명원다례전수관 고세연 관장 등이 직접 지도한다. 또 명원문화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서울 삼청각 전통다례교실은 매주 목요일 오후 2시-4시 일반인을 대상으로 차 문화 강좌를 실시한다.(02)742-7190~1

자신만만 · 청중 사로잡는 입담 여전

김용옥 교수 EBS-TV '도올, 인도를 만나다' 첫 녹화



◇불교의 핵심사상인 '업보'와 '윤회'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도올 김용옥 교수.

불교에선 어떤 경우든 '운명' 거론 안해
비판 개의치 않고 소신껏 강의에 최선

도올이 다시 TV로 돌아왔다. 노장사상, 논어에 이어 이번에는 불교를 강의한다. 26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아리랑TV 지하 4층 D스튜디오에서 열린 'EBS-TV, 도올 인도를 만나다' 첫 녹화에서 만난 도올(54 · 前 고려대교수)의 모습은 여전했다. 자신만만한 어투, 청중을 사로잡는 특유의 입담 등 예전과 변한 것이 없었다.

첫 강의는 그가 30여분간의 사전 오리엔테이션을 마치고 나갔다가 다시 무대에 등장하면서 시작됐다.

"올해 초 인도 보드가야에서 열린 칼라차크라란 큰 불교행사때 달라이라마를 만났는데 만나는 순간 찌리릭~ 했어요. 바로 전기가 통한 거예요. 달라이라마가 날 보더니 전 일정을 취소하고 이틀이란 시간을 내주더군요. 우리는 인류의 수 많은 문제에 대해 끝없이 얘기를 나눴어요" 곧이어 업보와 윤회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얼마전 내 병원에 30대 초반의 여자가 찾아와 고민을 털어 놓더라. 한 스님에게 결혼할 남자의 사주를 봤는데 함께 살면 죽는다고 하더군요. 그게 무슨 스님이야 개새끼지." 도올의 직설화법에 까르르 웃음이 터져 나왔다. 이어 그는 말을 이어 나갔다. "우리나라 스님들은 전부 훌륭하기 때문에 사주나 궁합 따위를 보지 않아요. 만약 그런 것들을 보는 스님이 있다면 그 사람은 스님이 아니야. 불교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그런 운명론적인 얘기를 꺼내지 않아요." 1시간 남짓 된 첫 강의는 그가 미리 준비해 온 우리민족이 지녀야 할 문화적, 도덕적 가치관에 대한 연설문으로 마무리 됐다.

이날 방청온 김천석(39, 서울 구로구 구로동)씨는 "불교신자는 아니지만 불교에 관심이 많아 방청하게 됐다"며 "어려운 철학용어를 쉽고 재미있게 설명하는 도올의 강의에 매력을 느꼈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도올…'는 8월 29일 밤 10시 첫 방송을 시작으로 11월 29일까지(총 28회) 매주 목 · 금요일 마다 50분간 방송된다.

김주일 기자 jkim@buddhapa.com

이정이 씨 '…마음의 풍경' 展



◇이정이 作 '실상사'.

문화 소식

십여 년 동안 실경을 스케치하며 전국의 산과 강, 그리고 절을 화폭에 담아온 화가 이정이씨의 두 번째 개인전 '구름 따라 흐르는 마음의 풍경-선(禪)과 시(詩)가 있는 그림' 전이 4일-16일 서울 조흥갤러리에서 열린다.

홍익대와 동대학원에서 동양화를 전공한 이씨는 전시에서 통도사, 송광사, 백양사, 실상사, 금산사, 흥국사, 쌍봉사, 연주암 등을 접하고 느낀 감흥을 운치 있는 수묵담채화로 담아냈다.(02)722-8493



김홍근이 쓰는

문학 속의 불교

서울 광화문 네거리를 지나다가, 빌딩 옆 작은 화단에서 붉게 핀 꽃무더기가 눈에 들어왔다. 불현듯이 지난 겨울에 스스로에게 했던 약속이 생각났다. 개심사 연못 위에 서있는 배롱나무(목백일홍)를 보고, 여름에 다시 와서 빨간 꽃이 활짝 피는 것을 보리라고 다짐했던 것이다. 개심사에 전화를 했더니, 어느 보살님이 받는다. "지금 연못 위 백일홍이 활짝 피었습니까?" "예, 백중이 지났으니 지금 한창이지요."

다음날 일찍 서산으로 향했다. 서해안고속도로가 뚫려서 서울에서 두 시간도 채 걸리지 않아 개심사 입구에 가닿았다. 선선한 아침기운을 받으며 계곡 어귀에 서니, 개울 옆에 선 〈개심사 입구(開心寺入口)〉와 〈세심동(洗心洞)〉의 두 멋드러진 표석이 반가이 맞아준다. 세심동 소나무 숲에 들어서서 돌계단을 밟는 순간, 나는 이곳이야말로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산수정원〉 개념을 구현한 본보기라는 것을 깨달았다. 부드러운 곡선으로 굽은 길가의 소나무 줄기를 닮은 이 완만히 휘어진 돌계단 길은 최대한 자연을 닮고 최소한의 인공을 가미하는 전통정원의 조성원리에 그대로 부합하였다. 그러고 보니, 세심동 입구에서 대웅전 뒤 산신각까지 개심사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정원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개심사의 '백일홍'

지난겨울 약속 생각나 전화
"연못위 백일홍 피었습니까"
"백중지나 지금 한창이지요"

한국정원의 가장 큰 특징은 어디까지가 자연이고 어디서부터 정원인지 구분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대표적인 민간정원인 담양 소쇄원이나 보길도 부용동은 물론이고, 왕실정원인 창덕궁 비원조차 정원과 숲의 구분이 무의미하다. 이 점은 호수를 파고 산을 쌓아올리는 중국의 인공적 경관이나, 구획이 명확한 일본의 작위적 정원과는 확연히 다르다. 중국의 정원은 석가산(石假山)을 쌓고 태호석(太湖石)을 배치하여 마치 '연극무대' 같이 꾸미는 분경식(盆景式) 정원이고, 일본의 정원은 화폭에 구도를 잡듯 경물(景物)을 배치하여 객관적으로 감상하는 '그림' 같은 정원들이다. 반면 우리의 정원은 화장을 한 듯 만 듯 자연미 넘치는 미인이며, 또한 그 정원은 사람에게 항상 열려 있어서 누구나 들어가 거니는 공간이다.

대웅전에서 부처님께 인사하고, 산신각 뒤 솔잎더미에 앉아 아래 계곡에서 불어오는 바람소리를 듣는다. 선경이 따로 없다. 모든 것이 자연정원이며, 눈길 닿는 것은 모두 인간의 심정적 소유물이 되어 〈인문경관〉으로 화한다. 건너편 언덕 위에 있는 바위는 마치 미륵불처럼 보인다. 그것은 '경치를 빌려오는' 차경(借景)이라는 전통정원 조성원리를 연상시킨다. 한국의 정원은 안과 밖의 경계를 엄격히 구획하지 않았기 때문에, '담장 밖의 경치'를 소중히 여기고 정원의 연장으로 삼았다. 이렇게 경치를 빌려오는 장치로 사찰이건 서원이건 일반 가정집이건 앞마당은 대개 비워두어서 시선을 시원하게 했다. 그리고 꽃과 나무를 심을 때는 대개 뒤뜰에다 가꾸었다. 이것은 배산임수의 지형에서 자연에 순응하는 지혜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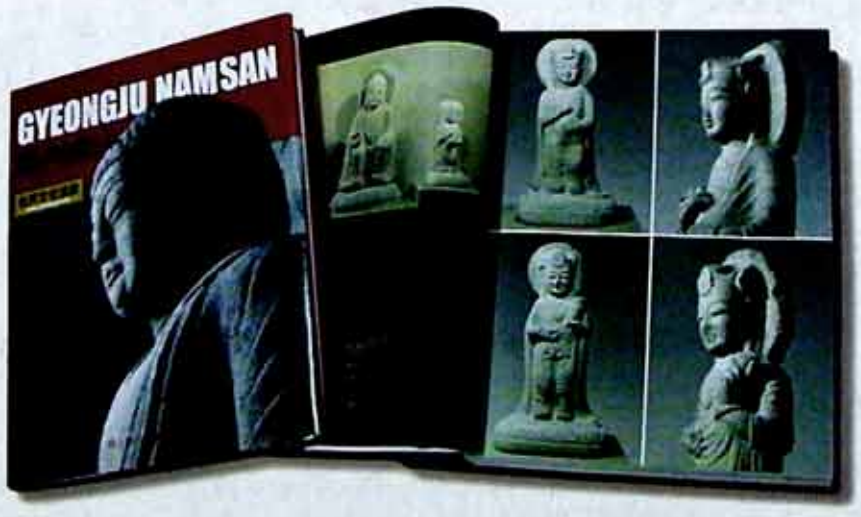
백일홍 꽃잎이 연못 위에 떨어진다. 이 아름다움의 힘으로 다음 백중 때까지는 넉넉히 견뎌낼 수 있을 것 같다.

■문학평론가

慶州南山

세계문화 유산, 우리나라 불교문화의 원류

그 방대한 자료를 완전 올 컬러 특대판형 전2권 으로 간행



■ 朝鮮日報
'신라 역사박물관' 경주 남산의 모든 것
이 책, '경주남산'은 말 그대로 경주 남산의 모든 것을 담은 야심차고 유익한 기획의 결과이다. 도판편과 해설편 등 2권의 책은 어린이들은 들지도 못할 만큼 무겁다. 그 무게는 그대로 신라 천년의 역사가 갖는 무게로 느껴진다. 140곳에 이르는 절터, 80여 구의 불상, 90여 기의 석탑, 13기의 왕릉, 4개의 산성, 중요문화재 사진과 탁본 실측자료등 무려 800여 점이 실렸다.

■ 중앙일보
'골마다 불상 · 석탑 온 산이 절이로다'
4년여 현장조사 「경주 남산」완간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www.gcp.go.kr)가 지난 4년간 조사를 맡았으며, 그 결과가「경주 남산」(15만원)이란 책으로 최종 정리돼 최근 출간됐다.
4년간 2백여 차례 현장을 조사한 결과 확인된 문화재는 모두 6백 72건. 절터는 1백47개소.일제시대 조사 결과의 두 배나 되며, 골짜기마다 2곳 이상의 절이 들어서 있었던 셈이다.
돌로 만든 부처와 보살상은 1백 7구, 석탑은 모두 96기. 그간 확인되지 않았던 왕릉과 비석 등을 찾아냈다.

■ 동아일보
남산의 불교유적을 비롯해 선사유적, 신라왕릉, 고려 · 조선시대 유적과 유물, 그리고 현재까지도 남산지역에서 행해지는 민속의례, 남산의 수려한 자연유산 등을 모두 담았다. 도판편 · 해설편 2권으로, 특대판형에 총 700여쪽이 넘는 방대한 분량이다. 5년간 200차례에 걸친 현장조사물의 결과이다.

■ 釜山日報
-세계 문화유산 '남산'의 모든 것 2권에 오롯이-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관계자는"이번 종합 도록은 관련 학계 뿐만 아니라 국내의 일반인들에게도 보다 쉽고 친지하게 남산을 이해하고 감상할 수 있게 하는 지침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 법보신문
"한국불교 원류 한 권으로 응축"
이번에 발간한 종합도록은 지난 98년 경주 지역에 대한 5개년 정비 사업의 첫 번째 사업으로 실시된 남산 정비사업의 결과물이다. 사진만을 모은 도판편은 지난 2000년도 호주 케이즈에서 열린 유네스코 전체 회의에 자료로 제공돼 남산을 포함한 경주 일대가 경주역사유적지구로 묶여 세계문화유산으로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 佛敎新聞
-경주 남산이 책갈피에 '쏙'-
불교문화유산의 보고이자 신라의 영산이며, 우리 민족의 성소인 경주 남산이 책속으로 그대로 옮겨져 있으며 골짜기마다 간직한 신라인의 불심(佛心)과 예술 혼을 책은 그대로 재현해 놓았다.

■ 현대불교
-골마다 절터, 바위엔 불보살-
경주 남산은 우리 나라 미술사학계의 대부 고유섭이"한국 불교의 원류를 찾고자 한다면 경주 남산에 가 보아라"고 했을 정도로 우리 나라 불교 문화유산의 보고다.

國立慶州文化財硏究所 編 民族文化

釜山廣域市 南區 大淵 1洞 1754-11號 전화 051)627-2366, 627-2367 / 핸드폰 018)516-2366 / 팩스 051)627-2368

"깨달음이 지적 이해의 차원이라면, '깨침' 이란 그 앎이 송두리째 난파당하는 경험이다. 즉 깨달음이 업의 연장에 불과하다면, 깨침은 업이 깨지고 부서지는 일이기 때문에 불교의 연기적 삶으로 되살아나는 것은 바로 깨침을 통해서 가능하다"

<깨침과 깨달음>(윤원철 옮김, 예문서원)은 박성배 교수(사진)가 1983년 미국 뉴욕주립대학교에서 출판한 'Buddhist Faith and Sudden Enlightenment(박 교수는 이를 '불교인은 무엇을 믿는가-돈오 사상과 관련하여' 로 풀이했다)' 를 번역한 책이다.



믿음·닦음·깨침 명쾌한 풀이

깨침과 깨달음

박성배 지음 / 윤원철 옮김



20여 년 전에 출판된 이 책이 현대에 갖는 의의는 무엇일까? 박 교수는 이 책을 통해 불교의 가장 근본 관심사인 믿음, 닦음, 깨침의 문제를 풀어내고 있다.

"닦음과 깨침이 올바르기 위해서는 올바른 믿음을 일으켜야 한다"는 지은이는 "현대 불교학에서 심각하게 다루지 않는 믿음의 문제에 주목함으로써 불교학이 봉착하는 여러 가지 한계를 넘어설 수 있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 이 글을 썼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나는 부처가 될 수 있다' 는 교신(敎信)보다는 '나는 부처이다' 라는 조신(祖信)이 불교의 올바른 믿음이며, 선종에서 말하는 돈오 즉 '몰록 깨침' 은 조신을 바탕으로 해야만 성립한다고 말한다. 조신이라고 일컫는 이 믿음을 관념이 아니라 삶 그 자체로 보는 실존적인 관점에서 대승불교를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것이 박 교수가 추구하는 바라는 것이다.

"'나는 부처다' 祖信이 불교의 올바른 믿음"

부처님 사제법문·지눌에 대한 견해 피력

박성배 교수를 이야기 할 때 '돈오점수 돈오돈수' 논쟁을 빼놓을 수 없다. 사실상의 돈점논쟁은 1981년 당시 조계종 종정이던 성철 스님이 <선문정로(禪門正路)>를 내놓음으로써 시작됐다. 성철 스님은 보조의 돈오돈수가 선문에서 바른 길잡이 역할을 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역기능을 했다고 비판했다. 이후 성철 스님의 돈오돈수에 대한 비판과 재비판이 이어졌고 이 과정에서 박 교수는 각각의 입장이 지닌 근본 취지를 최대한 받아들여 당면한 한국 불교의 역사적 과제를 해결하는 실마리로 삼고자 하는 주장을 펼쳤다. 그 주장의 근본이 바로 이 책에 담겨 있다.

박 교수는 돈점의 문제를 푸는 열쇠를 '체(體)와 용(用)의 논리' 에서 찾았다. 이 논리를 보다 쉽고 분명하게 밝혀 주기 위해 '체' 를 '몸' 이라 하고 '용' 을 '몸짓' 이라는 말로 바꾸어 자신의 철학적 고찰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즉 생명 있는 몸이라면 반드시 몸짓이 있게 마련인데, 그것이 본래 하나임을 안다면 깨침의 세계가 무엇인지 좀 더 명확해진다는 것이다.

이 책은 출판 당시 '깨침의 세계를 이해하지 못한' 출판사의 심사위원들이 모두 혼란스러워한다' 는 이유로 지눌의 돈오점수설을 비판한 글과 부처님의 사제법문을 선인후과(先因後果)적인 '생멸의 논리' 로 이해한다면 무상법문과 무아사상, 연기설과도 어긋난다는 내용의 글이 삭제된 채 출판됐다. 그 후 20년은 그에게 빠져 버린 두 장을 살려내는 기간이었다. '한국어판 서문' 에는 그동안 그가 연구해 온 결과물인 지눌을 어떻게 볼 것인가, 부처님의 사제법문을 어떻게 이해해야 옳은가에 대한 답을 실었다.

1부에서는 '불교에서 믿음의 자리', '깨친 이들의 믿음과 못 깨친 이들의 믿음' 등 '믿음' 에 대해, 2부에서는 '믿음, 닦음, 깨침은 하나이다', '간화선과 믿음의 역동성' 을 비롯한 '닦음' 을, 3부에서는 몰록 깨침과 점차 닦음, '화엄경' 에서 말하는 믿음과 깨침 등 깨침에 관한 이야기를 풀어놓고 있다. 값 9천8백원.

출판 담당=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인도신화

스와미 치트아난다 엮음 / 김석진 옮김



리그 베다, 사마 베다, 아주르 베다, 아타르바 베다와 함께 인도의 다섯 번째 베다라고 불리는 인도 신화 '스리마드 바가바탐' 은 인도 신들의 이야기를 푸라나(서사시) 형식으로 담고 있다.

<인도신화> (스와미 치트아난다 엮음, 김석진' 옮김, 북하우스)는 스리마드 바가바탐에 나오는 주요 인물과 사건, 신화의 특징 등을 철학적이고 상징적으로 해석해 놓아 인도 신화의 전체 이야기를 파악하는데 도움을 준다.

바가바탐의 주인공은 판다바 왕가의 왕자인 파릭시트. 한 브라흐로 바가바탐이다.

이 신화에서 절대적이며 유일한 최고의 실체인 브라흐만은 구현을, 비슈누는 보호를, 시바는 파괴를 책임지고 있다. 이들은 그

인도 신들의 이야기 철학적으로 해석

민의 명상을 방해한 그는 브라흐민 소년에게서 앞으로 일주일 안에 뱀에 물려 죽을 것이라는 저주를 받는다. 갠지스 강가에서 죽음을 준비하는 파릭시트에게 수카 성자는 '7일 안에 죽는 것은 육체뿐이고 참된 자기는 영원히 불멸한다' 는 가르침을 전한다. 그리고 7일 동안 파릭시트와 성자들, 그리고 수도승들이 함께 둘러 앉아 진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것이 바로 이 책이다.

다른 4개 베다를 쓴 스리 베다 비야시가 지은 스리마드 바가바탐은 현재 50여 권으로 엮여 있으며, 일반 대중의 입에서 입으로 끊임없이 이어지며 사랑받아왔다. 값 1만6천원.

나는 내 것이 아름답다

최순우 지음



"자연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느끼는 즐거움이 매우 소중하며 그에 따라 인생의 즐거움이 크게 달라진다. 참 아름다움은 보는 것이 아니라 느끼는 진리의 갈피임이 틀림없다." ('세상을 살아가는 맛' 중)

전 국립중앙박물관장 혜곡 최순우(1916~1984)의 <나는 내 것이 아름답다> (학고재)가 나왔다. <혜곡 최순우 전집>(1992, 학고재)에 수록된 글 중 '내(우리) 것이 왜 아름다운가' 에 대해 쓴 글을 모은 책이다. <무량수전 배흘림기둥에 기대서서> 에서처럼 전문적인 설명은 없지만 우리 것을 아름답게 꽃피운 마음씨를 알게 해준다.

1943년 개성 부립박물관에서 박물관 인생을 시작한 뒤 국립중앙박물관장으로 타계할 때까지, 만 41년 동안 우리 것의 아름다움을 가려내고 그것을 전하는 데 힘써온 지은이는 안개에 쌓인 불국사와 미닫이창에 비친 나무 그림자, 연둣빛 무순과 보랏빛 청초한 꽃 등 주변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대상에서 느낄 수 있는 아름다움을 진실하게 표현한 것이

'우리것' 에 담긴 아름다움 찾기

한국 미술의 진정한 아름다움이라고 말한다.

'아름다운 인연, 그리운 정분' 에서는 김환기, 장욱진을 비롯한 생전의 인연들을, '나는 내 것이 아름답다' 에서는 옛 그림과 도자기의 아름다움을, '조선의 미남미녀' 에서는 옛 그림 속 우리나라 사람들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다. 값 9천5백원.

미오지간

성운 지음



"예로부터 사람은 뜻을 세워야 한다고 하고 수행자는 원력을 세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뜻을 세우고 원력을 세우는 것이 바로 마음을 내는 발심입니다. 마음을 내면 뜻을 세울 수 있고, 마음을 내면 원력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발심 예찬' 중)

대만 최대의 사찰 불광산사를 건립하고 전세계 200여 말사를 운영하고 있는 성운 스님의 법문집이 나왔다. <미오지간>(성운 지음, 불광출판사)은 성운 스님이 창간한 세계 유일의 불교 일간지 '인간복보' 에 연재됐던 칼럼을 모아 묶은 책이다. 현재 대만에서는 같은 이름의 책 1~4권이 출간됐고, <미오지간>은 그 중 1, 2권의 내용을 가려 뽑은 것이다. 번역은 대만 불광산사에서 오랫동안 유학했던 이인옥 씨가 맡았다.

대만 불교지 '인간복보' 연재 칼럼 묶어

1949년 중국공산당과의 내전에서 패한 공화국 정부와 함께 본토에서 대만으로 건너온 성운 스님은 '교육으로 인재를 양성하고, 문화로써 불법을 펼치며, 자선으로 사회복지를 이루고, 수행으로 인심을 정화한다' 는 4대 종지를 수립하고 불교 교육, 문화, 자선, 홍법 사업에 힘을 기울였다. 현재 4개의 종합대학과 13개의 불교대학, 불교위성TV와 불교일간지, 불광의료원, 22개의 도서관, 8개의 미술관 등 단일 사찰로는 세계 최대의 포교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값8천5백원.

김형배 화백 인터뷰

"부처님 가르침 아름답게 전달"

만화불경 시리즈 연말 발행

1976년 영화로도 선보인 만화 '로보트 태권V' 를 그린 김형배 화백. 10여년 정도 작품 활동을 하지 않았던 그가 다시 붓을 들었다. 부처님의 탄생을 시작으로 화엄경, 유마경, 고승열전 등을 담은 '만화 불경' (가제, 도서출판 자음과 모음)을 그리기 위해서다. 올해 말 5권이 출간될 이 시리즈는 앞으로 장기간에 걸쳐 선보일 예정이다. 현재 캐릭터 구상을 끝내고 1권에 담길 부처님 생애를 그리고 있다.

그가 경전을 만화로 그리기로 마음먹은 것은 현재 출판되고 있는 불교 만화책들에 대한 아쉬움 때문이라고 한다. 그림이 서툴거나 이야기 전달에 급급한 몇몇 불교 만화들을 보며, 좀 더 흡입력 있고 아름다운 그림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달하고 싶었다고 한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경전을 어떻게 시각화할 것인가가 가장 큰 고민"이라는 그는 "연꽃 하나를 그려도 단순한 배경이 아닌 장엄한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말한다.

"만화라는 매체는 쉽게 접근 가능하다는 장점은 있지만 핵심 내용을 놓치는 실수도 하기 쉽습니다. 요즘은 화엄경을 읽고 그 가르침을 이해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경전 이야기를 끝내고 나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담은 창작 작품을 만들고 싶다는 그는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 불교는 과연 어떤 의미인가를 되새겨 볼 수 있는 만화를 그리고 싶다"고 말한다.

여시아문 개점 8돌 … 佛書 할인판매

30일까지 '주머니속 대장경' 등 123종 20~40%

1994년 8월 24일 문을 연 국내 최대의 불교전문서점 여시아문이 개점 8주년을 맞아 30일까지 불서 할인행사를 펼친다.

<보르헤스의 불교강의>와 <깨달음으로 가는 올바른 순서> 등 도서출판 여시아문의 '주머니속의 대장경' 시리즈를 비롯해 민족사의 깨달음총서 30여종 등 모두 123종의 불서를 20%~40% 특별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

책의 목록은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yosiamun.com)에서 볼 수 있으며 인터넷 구입도 가능하다. (02)732-1521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 서 명	저·편자	출 판 사
1	화(Anger)	틱 낫 한	명진출판사
2	달라이라마의 아주 특별한 선물	달라이라마	청아출판사
3	관심	법 상	무 한
4	영가천도	우 룡	효 림
5	신묘장구대다라니강해	임 근 동	솔 바 람
6	달라이라마와 도올의 만남	김 용 옥	통 나 무
7	마음에는 평화 얼굴에는 미소	류 시 화	김 영 사
8	틱낫한의 평화로움	틱 낫 한	열 림 원
9	절을 기차게 잘하는 법	청 견	붓다의 마을
10	산중에서 길을 물었더니	서 화 동	은행나무

도서 안내: (02)737-0695

인터넷 도서 주문
yosiamun.com
전화 : 02)737-0695 / 팩스 : 02)737-0696

여시아문 개점 8주년!

SALE

※ 행사기간 : 2002년 8월 24일 ~ 9월 30일까지
※ 한정수량이므로 조기에 품절 될 수도 있습니다
※ 도서할인판매 20~40%

	도 서 명	저 자	번 역 자	출판사	정 가	할인가
1	부처님이렇게오셔서이렇게사시다~	정태혁		여시아문	9,000	7,200
2	무문관혹은너는누구냐	한병조		여시아문	6,000	4,800
3	참선요지	대성스님		여시아문	5,500	4,400
4	부처님께재를털면	스타븐미첼	최윤정	여시아문	9,000	7,200
5	방편개시	혜운스님	대성스님	여시아문	6,000	4,800
6	선방일기	지허스님		여시아문	5,000	4,000
7	제가불자들위한제육윤강화	혜능스님		여시아문	6,500	5,200
8	허공의땀꾸정	이종찬		여시아문	5,000	4,000
9	보르헤스의불교강의	보르헤스외	김홍근	여시아문	5,500	4,400
10	분성이란무엇인가	다카시키	전치수	여시아문	4,500	3,600
11	법수로배우는불교	이재열		여시아문	4,500	3,600
12	생활속의불법수행	현대불교신문사		여시아문	6,000	4,800
13	깨달음으로가는올바른순서	초펠		여시아문	4,000	3,200
14	삶은고가아니다	해원스님		여시아문	6,000	4,800
15	그까지살줌있으면어때	학림		여시아문	5,000	4,000
16	중생이라는이름희부처에게	월하스님외		여시아문	7,000	5,600
17	배낭에담아온인도	김호성		여시아문	9,000	9,000
18	라다크에서찾은부처	앤드류하비	연호택	여시아문	12,000	9,600
19	어린이찬불창작꼭약보모음집	풀은벗풍경소리		여시아문	9,000	7,200
20	선의사상과역사	야나기다세이잔	추만호,안영길	민족사	6,000	4,200
21	관음경이야기	동봉스님		민족사	5,500	3,850
22	불교의지식100	편집부		민족사	5,000	3,500
23	붓다와그가르침	B.R암배르카르	박희준	민족사	7,000	3,500
24	불교와기독교의재미있는쿼즈여행	히로사치야	하유상	민족사	4,500	3,150
25	대승기신론사상연구1	박태원		민족사	8,500	5,950
26	인도의이원과불교	정승석		민족사	8,000	5,600
27	삼국사기전거론	이강래		민족사	15,000	9,000
28	한국승전문학의연구	김승호		민족사	8,500	5,950
29	신라불교여래장사상연구	이평래		민족사	15,000	9,000
30	불전해설사전	정승석편		민족사	17,000	10,200
31	신라불교사상사연구	김영미		민족사	14,000	9,800
32	한국근대불교의현실인식	김광식		민족사	15,000	9,000
33	진정국사와호산록	허흥식		민족사	15,000	9,000
34	인도철학2	인도철학회		민족사	5,500	3,850
35	인도철학5	인도철학회		민족사	8,000	5,600
36	인도철학6	인도철학회		민족사	8,000	5,600
37	인도철학7	인도철학회		민족사	9,000	6,300
38	인도철학8	인도철학회		민족사	8,000	5,600
39	인도철학9	인도철학회		민족사	8,500	5,950
40	한국불교사	가마타시게오	심현숙	민족사	6,000	4,200
41	한국종교사	제이스헌뮬리그레이슨	강돈구	민족사	8,000	5,600
42	보살의마음중생의마음	잉타큰스님		민족사	5,500	3,850
43	바람의장	석지현		민족사	5,500	3,850
44	티베트어의기초와실천	허일범		민족사	4,500	3,150
45	그대들도나처럼이깃로도라	법산스님		민족사	7,500	5,250
46	산스끄리뜨어기초와실천	스가누마	이지수	민족사	7,500	5,250
47	정병조의불교강화	정병조		민족사	6,800	4,900
48	한국과의만남	타무라엔초	김희경	민족사	5,000	3,500
49	본대로느낀대로인도기행	정승석		민족사	8,500	5,950
50	티베트불교사	아마구치즈이호외	이호근	민족사	5,500	3,850
51	중국문학과선	진송강	일지	민족사	6,000	4,200
52	중국불교학강의	여징	각소	민족사	8,500	5,950
53	중국불교사(상)	K.S케네스첸	박해당	민족사	5,500	3,850
54	중국불교사(하)	K.S케네스첸	박해당	민족사	6,000	4,200
55	중국불교의사상	다마키로시로외	정순일	민족사	5,500	3,850
56	민중불교철학	여익구		민족사	4,500	3,150
57	밀교의역사와문화	요리토미모토히로	김무생	민족사	5,500	3,850
58	불교의서구적모색	유다유타카	이미령	민족사	4,000	2,800
59	논어와선	한토다이가	최효선	민족사	5,500	3,850
60	판드라불교입문	S.B다스굽따	정승석	민족사	5,000	3,500
61	초기,부파불교의역사	후지타코타츠히	권오민	민족사	6,000	4,200
62	붓다,마르크스그리고하나님	트레버링	임옥선	민족사	5,000	3,500
63	불교사상과서양철학	에드워드콘즈외	김종욱	민족사	6,500	4,550
64	불교철학개론	팡리티엔	유영희	민족사	5,500	3,850
65	민중불교의탐구	법성외6		민족사	4,500	3,150
66	일본불교사	이시다미즈마로	이영자	민족사	6,500	4,550
67	초기대승불교의종교생활	하라가와아키라	심법제	민족사	6,500	4,550
68	인식과초월	핫토리마사아키	이만	민족사	5,500	3,850
69	금강경전서	무비		민족사	25,000	15,000
70	우리말법요집	김호성		민족사	8,500	5,950
71	인도의선종국의선	아베쵸이치외	최현각	민족사	6,000	4,200
72	중국불교사상사	키무라키요타카	장휘옥	민족사	6,000	4,200
73	천태법화의사상	다무라시로외	이영자	민족사	5,500	3,850
74	인도불교철학	카지야마유이치	권오민	민족사	5,000	3,500
75	인도불교	나라야스아키	정호영	민족사	6,500	4,550
76	선과정토	후지요시자카이	한보광	민족사	5,000	3,850
77	소승불교와대승불교	히로사치야	강기희	민족사	6,000	4,200
78	한국불교인물사상사	불교신문사		민족사	9,500	6,650
79	설법그이론과실제	정순일		민족사	7,500	5,250
80	한국불교고대명저의세계	김영태		민족사	14,000	9,800
81	달마	야나기다세이잔	김성환	민족사	5,500	3,850
82	유식의구조	다케무라마키오	정승석	민족사	5,500	3,850
83	제꽃은게가누워야지	지묵외		민족사	4,500	3,150
84	보현행원품강의	무비		민족사	6,500	4,550
85	경요	조계종편찬위원회		민족사	13,000	9,100
86	서장	조계종편찬위원회		민족사	18,000	10,800
87	선요	조계종편찬위원회		민족사	9,000	6,300
88	도서	조계종편찬위원회		민족사	13,000	9,100
89	절망도내려놓고마음도내려놓고	지원스님		불광	3,500	2,450
90	그대그대자신으로	정운		불광	4,500	3,150
91	또다른이름되어	정운		불광	3,500	2,450
92	달을보는섬	정운		불광	3,500	2,450
93	하신그다음이야기	권경숙		불광	5,000	3,500
94	내아름이꽃이되어	김재영		불광	3,500	2,450
95	5백6일명상체험기	김남선		불광	8,500	5,950
96	그냥걸수없는길	이도원		불광	7,500	5,250
97	친구여우리붓다가되자	김효철		불광	6,500	4,550
98	근본불교의이해	홍사성		불교시대사	5,500	3,850
99	법화행자초상	각자일		불교시대사	6,500	4,550
100	한국문화와불교	목정배		불교시대사	6,500	4,550
101	불교설화사적	승지홍		불교시대사	4,700	3,290
102	세계의종교	유다유타카	지승철	불교시대사	4,700	3,290
103	슬픔때마다우리곁에오는초인	김정휴		불교시대사	4,800	3,360
104	중국불교사1	카마타시게오	장휘옥	장승	12,000	8,400
105	중국불교사2	카마타시게오	장휘옥	장승	13,000	9,100
106	화엄경이야기	카마타시게오	장휘옥	장승	6,500	4,550
107	해탈꽃	고종화		장승	2,500	1,750
108	죽는법을모르는데사는법을어찌할라	조오현		장승	4,500	3,150
109	대승기신론이야기	카마타시게오	장휘옥	장승	4,300	3,010
110	네발린부터살피라	정념		장승	6,000	4,200
111	선문선답	조오현		장승	5,000	3,500
112	불교학계론강의실-입문편	장휘옥		장승	4,500	3,150
113	한역	최동환		지혜의나무	17,000	10,200
114	천수경	천명일		지혜의나무	8,000	5,600
115	참마음은엉치랄아야	법성스님		지혜의나무	8,000	5,600
116	자유로운여성이되라	오쇼라즈니쉬	손민규	지혜의나무	9,800	6,860
117	지금여기에살아라	오쇼라즈니쉬	손민규	지혜의나무	9,800	6,860
118	언제나가슴적시는그말씀대로살겠네	법성		지혜의나무	8,000	5,600
119	물속의물고기가목마르다	까비르	박지명	지혜의나무	6,500	4,550
120	살일신고	최동환		지혜의나무	20,000	12,000
121	혼돈과파천황	최동환		지혜의나무	15,000	9,000
122	천부경	최동환		지혜의나무	18,000	10,000
123	사막을건너는사람은멜을사랑해야한다	이재운		한강수	4,000	2,800
124	홍문화박사의건강장수법	홍문화		한강수	5,000	3,300
125	홍문화박사와함께건강을이야기합시다	홍문화		한강수	5,000	3,500

http://www.yosiamun.com Tel : 02-737-0695 / Fax : 02-737-0696

대선 · 안락사 · 탈북자 불교적 해법 제시

환경 등 10분야 정책연구위 구성

한국교수불자련, 백담사서 대회

집단 탈북, 안락사, 낙태, 연말 대선…. 최근 현안이 되고 있는 사회적 문제들을 불교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바라봐야 하며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한국교수불자연합회(회장 연기영)는 8월 22~24일 설악산 백담사에서 '어울림과 나눔의 세상'이라는 주제로 한국교수불자대회를 개최했다.

수련회 위주의 대회에서 벗어나 한국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적 문제점들을 짚어보고 불교적 대안을 찾아보자는 취지에서 마련한 이번 대회에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철학, 역사, 과학, 교육, 예술 등 전문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교수불자 150여 명이 참석했다. 민족화합, 정치 · 경제 · 사회, 과학기술, 환경, 문화, 예술 등 6개 분과에 걸친 30여 편의 논문 발표와 토론은 전공을 넘나들며 '교수불자'라는 이름에 값했다.

연말 대통령 선거가 비껴갈 수는 없었다. 학술발표회 전 기조발제에서 정천구 교수(영산대)와 백경남 교수(동국대)는 불교적 정치지도자상을 화두로 던졌다. 정 교수는 "그 지도자와 당이 내세우는 정치적 프로그램이 자비, 평등과 불교적 이상국가를 지향하는지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불자들에게 주문했고, 백 교수는 "정치적 일생을 이타적 삶으로 윤색하고 부처님 기본 원리인 자비 정신을 이 세상에서 실현시킬 대승적 보살정신을 가진 지도자의 출현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벌어진 분과별 학술발표회에서 윤세원 교수(인천대) 교수는 "후보자들의 지적능력과 함께 얼마나 자주성을 가지고 공공성을 유지하려는 투철한 의지와 태도를 가졌느냐를 따져봐야 한다"고 거들었다.

만약 부처님이 살아 있다면 기업의 이윤추구를 어떻게 볼까? '불교와 경영'을 발표한 노부호 교수(서강대)는 이에 대해 "무소유 개념은 이윤추구를 옳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지만 이는 결과보다 과정을 중요시하는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이윤은 정상적으로 창출되고, 축적의 개념이 아니라 건전하게 활용되어야 한다는 흐름의 개념으로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희재 교수(광주대)는 최근 세계적 논란이 되고 있는 안락사 문제에 대해 불교 교리에 입각한 입장을 정리해 눈길을 모았다. 이 교수는 '불교와 생명윤리' 주제 발표에서 "안락사의 전제조건이 환자의 존엄한 죽음이나 고통에 연유한다고 할지라도 불교적 관점에서 볼 때 그 고통은 결코 무의미한 것이 아니다"며 "불살생의 입장에서 보면, 그에게 주어진 고통은 그 자신이 짊어져야 할 업의 소멸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 과정이 생략되면 또 다른 고통이 다음 생에 짊어져야 할 빚으로 남게 된다고 보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안락사가 자비로운 동기에 의거하다고 해도 살생의 업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의사의 윤리지침이나 입법화로 나아가는 것은 인간 생명 경시의 제도화로 전화될 가능성을 안고 있다"고 경고했다.

또 윤범모 교수(경원대)는 '한국 불교미술의 진로문제'에서 불교미술의 실종과 불사 만능주의를 꼬집었다. 윤 교수는 "전국 각지에 신라 미술의 복제품이 범람하고 물량주의, 형식 우선주의가 넘치다 보니 불사는 있고 불교미술은 없다라는 냉소적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미술계의 전문성 활용을 통해 우리 시대의 미적감각과 전통에 맞는 기술을 결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종합토론과 회향법회에서 참가자들은 학술발표와 토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 문제에 대한 불교적 해법을 구체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를 위해 교불련은 사회, 과학기술, 예술, 교육, 대외정책, 경제, 종교, 환경, 통일, 문화 등 10개 분야에 걸쳐 정책 과제와 실천 과제를 연구, 개발할 수 있는 정책연구위원회(위원장 정천구)를 구성했다.



◇한국교수불자연합회는 8월 22~24일 설악산 백담사에서 수련회와 학술발표회를 겸한 교수불자대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과학기술 분과에서 참가 교수들이 토론을 벌이고 있는 모습.

학술담당= **권형진 기자** jinny@buddhapia.com

위덕대, 불교학 석사 첫 배출

일반대학원1명, 불교대학원 4명 학위

진각종립 위덕대가 불교학 관련 석사학위 취득자를 처음으로 배출했다. 지난 8월 23일 학위 수여식에서 일반대학원 불교학과 1명, 불교대학원 4명 등 모두 5명이 불교학 관련 석사학위를 받은 것이다.

일반대학원 불교학과에서는 손기무씨가 '원측의 일천제성불론 성립에 관한 연구'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불교대학원에서는 조봉상씨('지관수행의 일고찰')가 초기불교 분야에서 석사 학위를 받은 것을 비롯해 응용불교 분야에서 이정희 씨('마음의 구조에 대한 유식학적 해명')와 장준희씨('불전문학의 아동교육적 가치에 대한 연구'), 조순희씨('유식학에서의 고(苦)의 원인에 대한 연구')가 각각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위덕대는 96년 불교학과가 생긴 이래 2000년 2월 첫 졸업생을 배출했으며, 2000년 3월 일반대학원 불교학과와 불교대학원 과정을 개설했다. 불교대학원은 불교학과 밀교, 응용불교, 초기불교 전공을 운영하고 있으며, 진각종 교직자 양성을 위한 종학과(석사과정)를 2003년 개설할 예정이다.

한편 위덕대 밀교문화연구원(원장 김무생)은 '근백년 대구 경북의 지성과 운동' 연구로 교육부와 학술진흥재단이 공동 주관하는 기초학문육성 지원사업에 선정됐다. 경북대 인문과학연구소와 공동 진행하는 이 연구에서 위덕대는 '대구 · 경북의 불교계 지성사'라는 소주제를 맡아 3년간 진행한다.

인문학 분야 연구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학술 지원 사업에 불교 주제의 과제들이 잇달아 채택되고 있다. 지난 8월 5일 교육인적자원부와 한국학술진흥재단의 1차 기초학문육성 지원사업에 5개 과제가 선정된 데 이어 8월 29일 학술진흥재단이 발표한 학문 후속세대 지원사업에서도 9개 과제가 뽑혔다. 학문 후속세대 지원사업은 박사급 연구자들을 위한 연구 기반 지원 사업으로, 재정적 뒷받침이 부족한 불교학계에도 새로운 활력소가 되고 있다.

중국 초기 선종능가선법 등 9개 과제

정부 학술지원사업 선정

학술진흥재단, 16~25일 2차 공모

8월 29일 최종 발표된 학문 후속세대 지원사업에 선정된 불교 주제 과제를 살펴보면, 전문연구인력지원 분야에서 △중국 초기 선종 능가선법 연구(박건주) △중국 국가 도서관 불교장서 분석 및 영파 천일각 귀중본 불교문헌 연구를 통한 중국불교 특성 이해(허인섭) △팔리 아비달마의 마음작용에 관한 연구(임승택) △용수의 공관이 동아시아 불교의 수행론에 미친 영향(이현옥) 등 4개 과제가 선정됐고, 유교와 불교 사상의 상호 교섭 과정에 대한 연구(김제란)가 학술연구교수지원 분야에 선정됐다. 이 두 분야는 앞으로 3년간 연구비 지원을 받는다. 박사후 연수과정 지원 분야의 △16세기 조선 성리학파의 불교인식(오지섭) △인도불교에서 중관학파 공사상의 철학적 의미에 대한 연구(남수영)와 신진연구인력장려금지원 분야의 △임제선의 성립과 한국 선불교의 정통성 형성에 관한 연구(박재현) △고려 원간섭기와 말기의 사원 연구(윤기엽)는 1년 지원이다.

이와 함께 교육부와 학술진흥재단은 기초학문육성 지원사업 2차 접수를 받는다. 모두 160억의 예산이 지원되는 2차 공모는 1년 지원이 원칙이며, 온라인 접수는 16~25일, 서류 제출은 30일까지 하면 된다.

1차 기초학문육성 지원사업에 선정된 보조전서 국역에 참여중인 이덕진(고려대 강사) 박사는 "재정적 어려움 때문에 하기 힘들었던 연구를 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일정 기간 안정적인 지원을 받기 때문에 질적으로 더 우수한 연구 결과가 나올 수 있다"며 "지속적인 연구 과제 개발만 된다면 불교학 연구 기반 조성에 긍정적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천흥사 동종 남한산성서 사용"

1010년 주조…1626년 산성 완공후 옮겨와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중인 천흥사 동종(국보 280호).

현재 국내에 남아 있는 고려시대 범종 가운데 가장 큰 천흥사 동종(국보 280호)이 300여 년 동안 남한산성 동종으로 사용된 사실이 처음으로 확인됐다.

'남한산성을 사랑하는 모임'(회장 전보삼 남사모)은 "1927년 10월 간행된 잡지 〈별곤곤〉 9호에 실린 글을 통해 남한산성 동종이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된 국보 280호 성거산 천흥사 동종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8월 27일 밝혔다.

'조선의 4대 명종'이라는 제목의 이 기행문은 봉덕사, 상원사, 연복사, 천흥사 종을 조선의 4대 명종으로 꼽았으며, 천흥사 종에 대한 설명에서 "천흥사(충남 천안)가 폐(廢)한 후에 남한산성 종각에 있다가 창경원 박물관 설치 초에 가져온 것이니, 고려 헌종 원년(1010)에 주성(鑄成)한 것"이라고 적고 있다.

남사모 회장 전보삼 교수(신구대)는 "연대가 분명하게 나와 있진 않지만, 남한산성이 완성된 1626년 무렵 왕명에 의해 남한산성으로 옮겨졌다가 1924년을 전후해 다시 일제에 의해 옮겨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 교수는 또 "남한산성은 행궁 가운데 유일하게 종묘가 설치됐을 만큼 중요한 성이었다"며 "이런 곳에 천흥사 동종을 옮겨왔다는 것은 조선시대에도 천흥사 종이 우수성을 인정받았다는 말"이라고 강조했다.

공식명칭이 '통화이십팔년명(統和二十八年銘) 천흥사 동종'인 이 종은 현재 국내에 남아 있는 종 가운데 신라시대의 상원사 동종과 봉덕사 성덕대왕신종 다음으로 규모가 크다.

禪상담연구원 개원

불교 수행법 · 심리학 접목

전통적인 불교 수행법과 현대 심리학의 통합을 통해 새로운 불교적 상담 방법을 개발하기 위한 선(禪)상담연구원(원장 인경 스님)이 문을 열었다.

보조사상연구원 연구실장 인경 스님은 1일 동국대 강사 임승택 박사, 이자랑 박사 등과 함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 대영빌딩 301호에 '선상담연구원'을 개원했다.

선상담연구원은 간화선과 초기불교 수행법 등 불교 수행법을 상담심리학의 심리치료에 도입, 현대인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심리적 · 정서적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과 올바른 수행생활을 돕기 위한 대안적 방법론을 찾아 나갈 계획이다.

선상담연구원은 이와 함께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3년 과정의 교양대학을 마련해 초기불교와 유식불교, 선과 정신분석 등의 강의를 펼친다. 이론과 실습이 함께 이뤄지며, 교육과정과 연수교육을 마치면 2급 불교상담사 자격증을 받을 수 있다. (02)733-5311

학회소식

보조와 조선초기 선사상

28일 동국대서 발표회

보조사상연구원은 28일 오후 1시 30분 동국대 덕암 세미나실에서 '보조와 조선초기 선사상'을 주제로 48차 학술발표회를 연다. 김방룡 영산원불교대 교수와 황인규(동국대 강사)씨가 발표할 예정이다. (02)733-5315

불교학연구회 학술발표

14일 오후 고려대서

불교학연구회는 14일 오후 2~6시 고려대 국제관 313호에서 13차 학술발표회를 갖는다. 임승택(동국대 강사)씨가 '선정의 문제에 관한 일고찰', 안성두(충남대 강사)씨가 '유가사지론의 연기설'을 발표한다. 김재성(고려대장경연구소) · 조준호(동국대), 한자경(이화여대) · 김진태(서울불교대학원대) 씨가 각각 토론자로 참여할 예정이다. (02)2260-3128

정보화사회 불교의 대응

불교사회문화원서 포럼

현대불교사회문화원은 26일 오후 7시 문화원 교육실에서 '정보화사회에 대한 불교의 대응'을 주제로 5차 포럼을 개최한다. 유승무 중앙승가대 교수가 '정보 공유 운동과 불교적 경제관'을 발표하고 민경배 사이버연구소장이 토론자로 나선다. (02)736-6940

희소식
梵 鍾

범종이 스스로 운다(自鳴梵鍾)!!
아직도 잠자는 범종은 없습니까?
아직도 울리지 못하는 범종은 없습니까?
범종은 있으나
칠 사람이 없는 범종은 없습니까?
걱정은 이제 그만 던지십시오.
울어라! 한번만 命 하시면
봄 · 여름 · 가을 · 겨울,
원 하시는 시간에!
원 하시는 횟수대로!
영원히 크고 크게
울려 메아리 칠 것입니다.
離苦得樂을 이루고!
破邪顯正으로 맑고 밝은 氣運이!
부처님 眞理를 宣揚할 것입니다.
*年內로 하시는 寺刹은 염가로 해 드립니다.
시스템 시설은 선착순 입니다.
합장하고 소식을 기다리며
佛日增輝 法輪常轉을 千拜萬拜!!!

부영공업사 특수기계제작부
대표 신 현 직 부처님 품에서 發願祈禱!!!

☎ : 033-562-1535
H · P : 011-369-2732

당뇨·고혈압
당뇨병 혈당강하 조절제
국내약초 100%
야생약초 90% 生人정

▶ 혈액이 개선되며, 신체의 이상이 정상이 되며, 비만도 해소됩니다.
▶ 100% 우리나라에서 재배되는 약초이며, 90%는 야생약초로 사용하였습니다.
▶ 생인정은 일부는 달이고 일부는 볶아서 배합하여 생산하였으며 일체의 첨가물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 생인정은 식품으로 먹는 약재만을 사용함으로써 부작용이 없습니다.

복용시 나타나는 현상
· 소변량이 증가하고 소변횟수가 줄어듭니다.
· 신장기능 약화에 의한 불쾌감이 해소됩니다.
· 불면증이 없어집니다.
· 관절의 통증과 불편이 없어집니다.
· 일반적 무기력감과 피로가 없어지고 원기 회복이 됩니다.
· 거친피부가 고와집니다.
· 고혈압 증상이 개선되고, 어지러움과 부종이 없어집니다.
· 대변이 황금색으로 변하고 대소변을 보고난 후에 시원한 느낌이 나타나고 방귀냄새가 없어지고 속이 편안해집니다.
· 복용초기에 눈꼽이 나오는 느낌이 오거나, 위장이 나쁜 사람은 속이 더부룩한 느낌이 나타나지만 점차 없어집니다.
· 간혹 체질에 따라 아픈 곳에 통증이 더욱 심해지다가 점차 없어집니다.
· 위의 설명은 체질이 개선되는 현상임으로 안심하고 꾸준히 복용하시면 경력과 활력이 솟아납니다.
· 신약을 복용중인 사람은 생인정을 함께 복용하면서 점차 신약을 줄여 15일 정도 경과후 신약을 완전히 중단합니다.
· 생인정 복용시 대부분 2주 이내에 개선현상이 나타나고, 간혹 체질에 따라 늦게 나타나는 수도 있습니다.
· 복용중 개선현상이 의심되면 구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단, 복용분과 박스포장비 5천원을 공제하고 즉시 환불해 드립니다)



1개월분 ₩150,000

1일 3회, 1회 3~4정씩 섭취(나이와 소화능력에 따라 조절)

생 인 당
주문 및 상담 (054)281-0544

수맥으로 부터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맥 · 지전류 · 지자기의 유해파로 인해 만성피로, 불면증, 두통, 목 · 어깨결림, 우울증, 악몽, 관절 및 근육통 순환기 장애등이 발생합니다. 수험생이 집중력을 상실하기도 합니다.

또 컴퓨터나 휴대폰을 사용할때 손끝이 저리거나 눈 · 머리가 아프고 얼굴에 열이 나는 것은 전자파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분들에게 유해파를 차단시켜 건강을 회복시켜 드립니다.

특히 세대주의 이름과 번지만 알면 자택 · 사무실 · 조상묘소의 수맥 · 지자기 · 지전류 유무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양택과 음택을 원격으로 알 수 있습니다.
온천과 지하수도 찾아드립니다.

● 스님들께는 실비로 차폐해 드립니다.
● 유해파 차단은 직접 현장에 가서 해 드리며 휴대용 신개발품도 널리 이용되고 있습니다.

지기진단 수맥연구가 이 기 일
☎ 053) 255-7370
011)9596-4848

음양체형관리 자원봉사자 모집

서울 서초구 소재 보현정사(주지 보현스님)에서는 현대의 선 · 후전성 기형, 비만, 체형의 변화에서오는 병상증들이 음양체형관리에 의하여 건강을 되찾고 체력, 활력이 개선되는 것을 체험하고 자기 자신과 가족의 건강은 물론 양로원, 장애인, 고아원 등의 소외된 국민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여 스님의 수행에 도움을 드리기 위한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음양체형관리에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은 (주)음양피부체형연구회 홈페이지 www.skin-reform co.kr(com)/음양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교 육 안 내

▶ **모집기간** : 수시모집
▶ **교육기간** : 매주 수요일
오전반 AM 10 ~ PM 12시 30분
오후반 AM 7 ~ PM 9시 30분
▶ **교 육 비** : 보현정사 추천에 의하여 무료교육
▶ **교육장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79-4
진솔빌딩 B1
(주) 음양피부체형연구회
▶ **준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1통,
직장재직증명서1통 (전업주부아닌 경우)
▶ **상담 및 문의처**
보현정사 포교원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76-7호 이화빌딩 5F
전화번호 : 02)583-1080, 02)521-1415
H · P : 016)321-1080
※ 현 피부미용이나 비만 체형관리실 운영하는 분은 제외

망상은 흐르는 물 같은 것 나오는 곳에 되놓으면 일어났다 소멸되기 마련



그림 · 최주현

이렇게 더운데도 불구하고 한자리를 또 하게 됐습니다. 물론 세상이 쉬지 않고 돌아가는 걸 보면 마음과 마음이 전달돼서 한치도 쉬지 않고 돌아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로 같이 돌아가고 살고 있지만 모습은 다 각각인 것 처럼 만났다고 하고 또 헤어졌다고 합니다. 그것은 항상 말씀드리지마는 아버지가 됐다가 남편이 됐다가 아들이 됐다가 이렇게 순간순간 바뀌면서 돌아가듯, 우리가 헤어졌다 만나고 만났다 헤어지고 하는 것이 바로 그 도리입니다. 둘이 아니면서도 항상 둘로 나누어졌다가 또 하나로 뭉치고 이렇게 계속 작업이 되는 이치입니다.

우리는 어디서 왔다는 사실을 불가부득 알아야만 하겠죠. 물론 그 말을 또 하자면은 부모의 몸을 빌려서 이 세상에 태어난다고 하는 말을 해야 하니깐 말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우리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일체 생명을 막론하고 물주머니에서 나와서 물주머니에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런 소리를 들으면 한번 생각해볼 점이 있지만, 이런 소리를 듣지 않는다면 생각해 볼 점도 없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듣고 마음의 진로를 넓히고 좁히는 데에 대해서 작용을 할 테니까 말입니다.

우리가 간단히 생각한다면 덥고 바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와야 되는지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겁니다. 우리는 지금 한치를 벗어날 수 없는 어항 속에서 사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한 치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증명하건대 우리가 공기 없는 데서 한발짝을 벗어나서 살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 도리를 알고 배우고 증득해서 그 어항 속을 벗어나야만이 자유로운 삶음의 보람을 느낄 수 있다는 얘깁니다.

지금 세상에는 테레비를 보고 듣는 것도 너무 많고, 보는 것도 너무 많아서 모두 아는 게 많기 때문에 이 공부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좀 모르는 듯하고 어리석은 듯해야, 옛날에는 선지식들이 화두를 주면 그냥 무지막지하게 밀고 넘어갔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화두선(話頭禪)이 맞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아는 게 많기 때문에 그렇게 들고 있으면서, 얼른 쉽게 말해서 물질로 치닫는가 하면 형상으로 치닫고, 형상으로 치닫는가 하면은 정신세계는 무시하고 돌아가는 경향이 많다 이겁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디 그렇습니까? 만물만생은 다 마음과 마음으로 전달을 하고 또 우리 인간은 말과 말로 전달을 하면서 그것도 모자라서 통신으로 전달하면서 우리가 살아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음과 마음으로 전달되는 도리를 여러분이 하나도 몰라요. 그저 시급한 대로, 불끈 화가 나면 화가 나는 대로 그냥 말해버리는 경향이 많이 있거든요. 자기를 자기가 구워먹고 삶아먹고 찢어먹고 갈갈이 뜯어먹는 경향이 그런 데서 벌어진다고 봅니다. 우리가 하나도 걸림이 없이 돌 위에 세워놔도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긁어서 고(苦)를 만들고, 자기가 긁어서 애고(哀苦)를 만들고, 자기가 긁어서 모든 병고를 만들고 이럽니다. 그러니 이 노릇을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생각해보십시오. 우리가 사대(四大) 육신이 한데 합해서 이 세상에 나와 가지고 또, 지수화풍으로 뭉쳤다고 본다면 지수화풍을 먹고 지수화풍을 또 내놓습니다. 먹는 대로 내놓습니다. 그럼 내놓는 것 가지고 어떻게 활용이 되느냐는 겁니다. 바로 증발이 되고 모두 화(化)해서 일체 만물만생에게 도로 전달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전달한 까닭에 다시 또 먹습니다. 그러니 내놓으면 먹게 되고, 먹게 되면 내놓는 작업이 계속되는 거죠. 우리가 이 도리를 상세히 알아야지, 부처님 법이다 해서 절에 가서 목탁 치는 것만 불교가 아니다라는 얘깁니다.

불교라는 것이, 전체 삼라만상 하는 거는 과거에 살던 것, 미래로 인해서 오늘 현실에 오는 것을 말합니다. 삼세(三世)라고 그러죠. 삼심(三心)이라고 그럽니다. 그러고 또 삼독(三毒)이라고 합니다. 굴러오면서 교차하면서 살아 나온 자기가 인과 업이, 선하게 행을 했다면 선행의 업이 있을 거고 악행의 업이 있다면 악행의 업으로서 진행되는 것이 여러분 몸 속에 다 있다는 얘깁니다. 구성돼 있다 이 소립니다. 그래서 나는 항상 여러분한테 구성된 그 구성팀들을 교화를 시키는데 여러분 마음의 채찍이 필요하다, 여러분이 위로는 자기 주인공을 진실히 일체제불과 둘 아닌 마음으로 진실히 믿고, 아래로는 믿는 마음으로서 채찍질을 한다면 내 몸 속의 중생들은 스스로서 제도가 된다는 뜻입니다. 상구보리(上求菩提) 하화중생(下化衆生)도 그런 뜻에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마음 자체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부처가 되느냐 중생으로 그냥 남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내 마음은, 즉 말하자면은 깨닫는다고 합시다. 깨닫는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돈오(頓悟)라고 한다면 자생중생들을 제도해야 하기 때문에 점수(漸修)가 또 들어갑니다. 나를 깨우치는 거는 쉬워도 둘 아닌 도리와 둘 아니게 나투는 도리를 포착하려면 그만큼 어려움이 따른다 이런 겁니다. 그건 왜냐하면 자생중생들이 내가 바깥으로 끄달리는 것을 모릅니다. 안으로 놓고 들어가야 통신이 돼서 마음과 마음이 전달이 돼서 제도가 되는데, 바깥으로 끄달리면 절대로 통신이 되질 않아서 제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안에서 제도가 못 되는데 어찌 내가 제도가 되겠습니까?

이런 말이 있죠. 정(定)에 들어야 한다, 이 뜻이 뭐냐? 그냥 정에 들라 하면은 아무 생각 없이 틀고 앉으면 정에 드는 줄 알지만 그게 아닙니다. 양면을 다 작용하면서, 지금 우리가 내면에다 놓고 들어가는 작업을 하는 것이 정에 드는 방법입니다. 마음과 마음이 전달돼서 그 묘법과 묘용(妙用)과 광대무변한 법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빛으로 화(化)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도리를 전 세계에서 알면은 좋겠는데, 가만히 보면은 전부 타의에다 기도하고 상대에다 빌고 기도하고 잘되게 해달라고 하지, 자생중생을 제도하면서 자기를 자기가 채찍질하면서 완성을 하는 데에 노력하는 작업을 하는 사람이 아주 적어요. 한다고 해도 직접적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도리를 취하고 있어요.

우리가 죽으면 고만이이라고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어차피 이렇게 난 거 아무렇게나 하면서 잘 먹고 잘 입고 살면 되는 거지'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옷을 입었다가 더러우면 벗어버리고 다시 새 옷을 입습니다. 안 그럽니까? 그런데 몸도 젊어서 병들든 늙어서 병들든 옷이 다하면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게 돼있습니다. 새 옷만 입을 뿐이지, 즉 말하자면 싹만 없어졌다 뿐이지 뿌리는 그대로 남아있다 이 소립니다. 봄이 오면 새 풀이 또 다시 나듯이, 그 뿌리가 죽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불씨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일체 만물만생이 다 그러하며 저 별성이나 혹성도 다 그렇습니다. 수명이 짧고 길고의 차이일 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죽으면 고만이라는 소리는 아예 하지도 말아야죠.

우리 육체 자체도 실상이며 영원한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것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주어집니다. 옷이 말입니다. 세련되고 아주 좋은 옷으로 입느냐, 또 나같이 이렇게 못나게 옷을 입느냐, 하하하, 그렇지 않으면 짐승의 탈로 옷을 입느냐, 독사의 옷을 입느냐, 여러 가지 옷이 많고 많은데 자기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주어지거든요.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살고 있는 경험대로 주어지는 거예요.

배우가 어떤 영화의 배역을 맡는데 있어서 자기가 평상시에 역할을 잘 소화하는 쪽으로 배역을 맡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어떻게 살고 어떻게 마음을 쓰느냐에 따라서 가난하고 부자로 살고 이래서가 아니고, 없든 있든 자기가 어떠한 생각을 하고, 어떠한 행을 하고, 어떻게 말을 하고, 상대성 원리로서 폭넓게 살았느냐 폭넓지 못하게 살았느냐, 악하게 살았느냐 선하게 살았느냐가 자기가 산 대로 심은 대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듯이 그렇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불교라는 것도 이름입니다. 애당초에 불(佛)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불로 하여금 우리는 바로 생산처를 개발하게 됐고, 교(敎)라는 자체는 바로 우리가 마음과 마음을 전달하고, 말과 말로 전달하고, 통신으로 전달하면서 나가는 그 자체, 개미들도 자기네들 말을 하고 속삭거립니다. 개미뿐만 아닙니다. 개미도 약은 것들은 굴에서 흙을 파 가지고 나와서 앞턱에다가 탁탁 놓습니다. 좀 듬직하고 앞을 내다보고 사는 사람같이 개미도 앞을 내다보고 앞에다 놓지 않고 쓱 나와서 멀찌감치 놓고 들어갑니다. 그와 같이 인간도 그렇게 아주 능수능란하게, 지혜롭고 진실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모두가 똑같이 진실하게 살지 그러냐? 그건 마음 탓입니다. 앞뒤를 생각 안 하고 말입니다. 그러나 앞뒤를 들어봤어야 알지, 앞뒤를 들어보지도 않고 어떻게 아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깐 먹어봐야 알고, 마셔봐야 맛을 알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종교라고 하기 이전에 생활이 종교라는 겁니다. 우리 생활이 종교니까 그대로 넓히고 못생긴 사람이든지 낮은 사람이든지 여자든지 남자든지 간에, 아이의 말이라 해도 옳바른 말을 하면 귀담아 듣고 흘리지 말아라 하는 거죠. 사람만 스승이 아니라 일체 만물만생이 스승 아닌 게 하나도 없습니다. 보십시오. 저 나무들도 봄이 되면 피어났다가 가을이 되면 단풍이 들고 단풍이 들면 떨어집니다. 떨어져서 겨울 내내 하얀 눈과 비를 다 맞고, 비바람에도 조금도 끄떡없이 인내하면서 봄을 기다리는 거를 보면 마음을 보는 듯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참는 게 있고 기다리는 게 있고 여유가 있어야지 빛을 보고 화목을 가져올 수 있고 복을 받을 수가 있지, 인내가 없이 불끈불끈 그냥 화가 나는 대로 행동한다면 그거는 포근한 화목을 가져올 수도 없거니와 또는 재물을 늘릴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재물도 생각이 있거든요. 들어오려고 까딱까딱하는데 그 집이 시끄러우면 '에이! 이 집에 들어가봤자야 이리 찢기고 저리 찢기고 귀찮다!' 그러곤 딴 데로 가요. 만물이 다 그러해서 스승 아닌 게 없다고 하는 겁니다. 나무를 봐도 스승이요, 풀 한 포기를 봐도 스승이요, 물 흘러가는 걸 봐도 스승이요, 집들을 올망졸망 짓고 사는 것도 스승이요, 비가 오는 것도 스승이요, 비가 안 오는 것도 스승이요, 모두가 스승 아닌 게 하나도 없으니 그걸 보고 모두 배우라고 하는 게 팔만대장경 아닙니까? 팔만대장경에만 써있는 게 아니라 우리 눈으로 듣고 보고 같이 공생(共生) 공용(共用) 공체(共體) 공식화(共食化)하고 돌아가는 자체가 팔만대장경이요, 모두가 스승입니다.

그러니 망상을 칼로 끊듯이 끊는다면 끊어집니까? 그 도리를 물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말없이! '내가 흘러가는 것을 너희들이 아무리 잘라 봐라, 내가 잘라지나!' 이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생(共生)으로서 돌아간다는 자체를 알고 마음과 마음이 이어져서 돌아간다는 걸 알면은 망상이라고 끊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는 얘깁니다. 끊으려고 하지말고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악업 선업이 인연이 돼서 내 몸 속에 있으니, 즉 말하자면은 숙명통이라고 합니다마는, 숙명통 하면은 다섯 가지가 한데 합쳐진 컴퓨터입니다.

인간에게는 누구나 자동적인 컴퓨터가 다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그 컴퓨터에 입력이 된 대로 지금 현실에 자꾸 나오는 것을 망상이라고 한다면, 그 망상을 끊기보다는 나오는 데다 되 입력을 시키면은 앞서의 입력된 거는 없어지지 않나, 이게 하나로 돌아가지 않나 이겁니다.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안 없어지는 것도 아닌, 즉 말하자면 일어났다가 꺼지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끊으려고 애를 쓰고 잠을 몰아내려고 애쓰니 잠이 몰아내지며 망상이 끊어지는 겁니까? 그래서 물은 나처럼 살라 하고 저렇게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산천초목은 초목대로 나같이 살라 하고 저렇게 푸르게 있고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아나가는 데에 어떻게 해야만이 편안하게 살 수 있으며, 항상 얘기하지만 마음으로 인해서 오는 병고가, 즉 말하자면 세균성 · 업보성 · 영계성 · 인과성 · 유전성 이 자체가 전부 마음으로 인해서 오는 거다 이겁니다. 그런데 전자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온다 하더라도 지금 그렇게 오는 거를 오히려 재료로 알고 몽땅 집어넣어 다시 입력을 한다면, '너만이 해결할 수 있고 너만이 낫게 할 수 있어!' 하고 또 놓고 가야 한다는 겁니다.

나무 뿌리가 말입니다. 제 뿌리가 제 나무를 돕지, 딴 뿌리가 내 나무의 뿌리를 돕는 게 아니죠? 그러기 때문에 기복으로 만날 딴 나무 뿌리에다가 빌어도 주어지지 않는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나 지금 수분이 적어.' 한다면 자기 뿌리가 수분을 흡수해서 올리지만, 딴 나무의 뿌리가 목을 축이게 해주지 않습니다. 그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에게 빌지 말아라, 상대에게 기도하지 말아라, 궁색하게 노예가 되지 말아라, 지금 노예 노릇을 하면 세세생생에 노예가 된다, 내 뿌리에서 나온 싹이니까 내 뿌리를 믿고, 너만이 이 병통을 고칠 수가 있다고 맡기라는 겁니다. 인간의 뿌리는 보이지 않는 뿌리입니다. 그리고 나무도 자기 뿌리를 못 봅니다. 인간도 자기 뿌리를 못 보듯이 나무도 흙이 덮여서 자기 뿌리를 못 봅니다. 인간은 무명이 덮여서 못 본다 이겁니다.

그래서 반야심경이나 천수경을 뜻풀이 해놓은 것은, 여러분이 마음공부를 하려면은 전부 개선을 해서 뒤집어 놔야겠다 해서 한 겁니다. 부처님 당대에 그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 훗날 경전이 수없이 나오다 보니까, 편집을 하다보니까 그냥 기복으로 자꾸자꾸 글자 풀이만 해서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그 뜻을 알고 좁혀 들어간다면, 금강경을 봐도 납득이 좀 될 겁니다. "여래의 몸이 있다고 하겠느냐? 크다고 하겠느냐? 했다고 하겠느냐?" 이런 말들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말들도 우리가 이러한 자리에서 서로 대화를 안 하면 납득을 못 하죠. 어떻게 납득을 합니까? 만날 글자 풀이만 하다가 볼일을 못 보죠.

나는 어떤 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길을 걷다가도 야, 이 광대무변하고 말로는 해결할 수 없는, 말로는 알게 할 수 없는 이 도리를 쉽게, 말로 입을 뗄 수가 없는 광대한 법을, 또 말로는 어떻게 떼어서 가르칠 수가 없는 거를 어떻게 책에다 쓰고 어떻게 말로 하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항상 여러분한테 왕창 그냥 한꺼번에 가르쳐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관계상 길을 가다가도 고개가 푹 떨어집니다. 고개가 푹 떨어지는 것은 '내가 너무 부족하구나!' 부족해서 몸둘 바를 모를 때가 많아요. 껄껄 웃다가도 말입니다. 웃음이 그냥 휙 들어갈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한분 한분을 생각하고 일체 생명들이 모두 공용을 하고 공생으로 돌아갈 때에 모든 거를, 가만히 생각한다면 나 아님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 여러분에게 그 도리를 다 이해를 시킬 수 있는가? 이해를 시킬 수 없는 자체가 내가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웃음을 웃다가도 '내가 이렇게 웃을 수 있는가?' 하고 그냥 멈칫해서 돌아가고, 걸음을 걷다가도 '부족한 네가 이렇게 싱그럽게 웃을 수 있을까. 싱그러운 마음으로써 즐거운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쯧!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 모르면 모르는 대로 알면은 아는 대로 해야지 어쩌겠나? 그릇대로 담아줄 수밖에 없는 것이지 낸들 어떻게 하나?' 그러고서는 옆도 쳐다볼 수가 없어서 고개를 푹 수그리고선 생각을 하면서 가다 보면은 돌부리에 채이기도 하구요, 이럴 때가 많이 있죠. 검을 만드는 사람이 혼을 다 불어넣어서 진실하게 하지 않으면은 신검을 만들지 못하듯이, 내가 전력을 다하지 않는다면 여러분한테 이익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한테 이익을 줬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익이 없죠.

알고 본다면 그저 부처님 앞에 가서 빌어도 나를 위해서지 딴사람을 위해서가 아니죠. 남편을 위해서라든가 자식을 위해서라든가 해도 결국은 자기 위해서 비는 거지 그 상대를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죠. 내가 보기가 안됐고 내가 살기가 어지럽고 내가 당장 좋지 못하니깐 비는 거죠. 그렇듯이 식구가 열 명이라 해도 가설이 다 돼있습니다. 이건 한 집안에 불을 켤 수 있게끔 가설이 되어 있어요. 가설이 다 돼있으니까 불을 켜야죠. 그러니깐 바깥으로 불을 켜려고 앨 쓰지 말고, 불은 안에 들어와요. 스위치가 눌러지지 않으니까요. 통신이 되지 않으니까요.

주인공은 바로 불씨와 에너지라고 할 수 있죠. 불씨와 그 불씨로 인해서 마음을 내는 게 있죠. 마음을 내면은 육신이 움쭉거리죠. 삼합이 같이 돌아가는 그 자체를 주인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주인공을 못 믿는 건 바로 자기를 못 믿는 게 되니, 자기가 이 세상에 나오고부터 모든 게 벌어지고 아는 거지 자기가 없이 뭐가 있습니까? 자기가 있기 때문에 식구들도 있고, 자기가 있기 때문에 생활도 있고, 자기가 있기 때문에 나라도 있고, 자기가 있기 때문에 종교도 있는 거지 자기가 없는데 뭐가 있습니까? '내 주먹만 믿으라는데 거길 가면 뭘해?' 이러지만요, 그것도 아니에요. 내 주먹만 믿으랜다고 해서 교과서만 가지고 있고 학교에 가지 않으면 배울 수가 없는 것과 같은 것이죠. 물

☞ 18면으로 계속

둘 아니게 진실히 믿고 믿는 마음으로 채찍질해야 자생중생 스스로 제도

"하나도 걸림없이 살 수 있는데 자기가 긁어서 고를 만들고 자기가 긁어 애고 · 병고 만들어"

☞ 17면에서 계속

내면에다 놓고 들어가야 정(定)에 들어

질세계와 정신세계가 합류화가 될 수가 없죠. 지혜가 넓어질 수도 없구요.

내 얘기는 여기까지 마치고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살면서 어떠한 거래도, 생활이 이렇게 안되는데 어떠할까, 납득이 가지 않는 일이 있으면 질문하셔도 됩니다.

▲사회자: 질문에 앞서서 포항 권영석 불자님께서 스님의 가르침을 받고 염원을 성취한 감사와 더불어 그 체험담을 잠깐 말씀드리겠다고 합니다.

▲질문자1: 먼저 스님들과 한마음선원 전 신도님께 소인이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에 대해 감사한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여러분은 다 성인입니다. 자식이 태어나서 세 살 이전에 뇌성소아마비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에 정말 아픈 마음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그 자식이 걸으리라 생각하고 병원마다 다니면서 구걸하다시피 하면서 치료를 했습니다마는 나이 스물 한 살까지 걷기는 걸었습니다만 제대로 의젓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지난 93년 8월 27일날 선원에 와서 조상님 천도재를 지내고 그 날 두 내외는 스님에게 "자식이 이렇게 잘 못 걷고 있습니다. 마음을 내주십시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재를 지내고 내려갔습니다. 9월 3일 저녁, 딸애는 강릉에서 포항으로 왔습니다. 포항에 와서 기쁜 마음으로 저녁을 같이 하고 그 자리에서 내외는 딸에게 스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고, '놓고 믿고 맡기고 관(觀)을 해라. 주인공! 내가 처녀인데 몸이 이렇게 불편해서 걷는 게 흉하잖아. 사람들에게 이쁘게 보이도록 걸을 수 있게 해.' 하고 관하라고 시켰습니다.

11시 이후에 저희 내외는 잤습니다. 그러나 딸애는 혼자서 응접실에서 불을 끄고 아마 관을 하고 연습을 했을 겁니다. 12시경 문을 똑똑 두드려서 보니깐 딸이 들여다보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더니 2분 후에 다시 들어와 또 두드리면서 좀 보자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가보니깐 뒤꿈을 한번도 땅에 딛지 않고 걷던 딸애가 뒤꿈을 땅에 딛으면서 걷고 있는 겁니다. 저희 가족은 전부 다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스님께 또 선원 여러분에게 고마움을 올렸습니다. 소인의 이 마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깊게, 높이 전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님: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내가 했다 내가 해줬다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안 계신다면 내가 어떻게 있겠습니까? 공용으로서 같이 진실하게 마음이 통신이 됐기 때문입니다. 안으로 통신이 되면 거기에선 통신 받은 대로 자기 분야에 작용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한 치도 믿지 못하고 평상시에는 이름만 브르다가 좀 급한 일이 닥치면 아예 그냥 떼밀어버리는 거예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깐 여러분한테 모든 게 달려 있지 나한테 있는 게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저 태양빛이 빛을 쬐지 말라 하고 빛을 쬐라 하더냐. 너희가 태양을 받으려면은 문을 열어놓고 가려진 것을 걷으면은 태양 빛이 들어오지 않느냐. 가려놓으니까 태양 빛이 들어오지 않지 않느냐." 물론 태양은 똥 구덩이든 아름다운 정원이든 다 비쳐지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우리들의 마음에 따라서 태양 빛을 받고 안 받듯이.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 말 하다가 생각이 나는 게 있는데요. 태양 빛보다 우리네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마음으로서 들어가는 빛은 깊은 바다 속까지도 들어갈 수 있지만, 태양 빛은 바다 속까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땅 속에도 태양 빛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빛은 땅 속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혜로운 마음으로서 응통성 있게 진실하게 믿고 생활에 어떠한 문제가 있어도 타파해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기르십시오.

▲질문자2: 이렇게 뵙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서 불가의 인연이 있었습니다. 외할머니의 언니 되시는 분이 전라도 광주에 있는 어느 절의 주지스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조계사도 다니고 각 사찰에 많이 다녔습니다마는 실제로 부처님 앞에서 절만 하면 모든 일이 다 되는 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심정희 회원의 인도로 선원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제가 스님을 뵈려고 광명선원에도 갔었는데 가까이 뵐 수 있는 시간은 그리 많지 않았고, 오늘 이렇게 뵙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한마음 요전도 보시 받아서 읽고, 또 설법하신 비디오 테이프도 저희 가족들과 같이 보기도 했고, 카셋트 테이프도 누차 많이 들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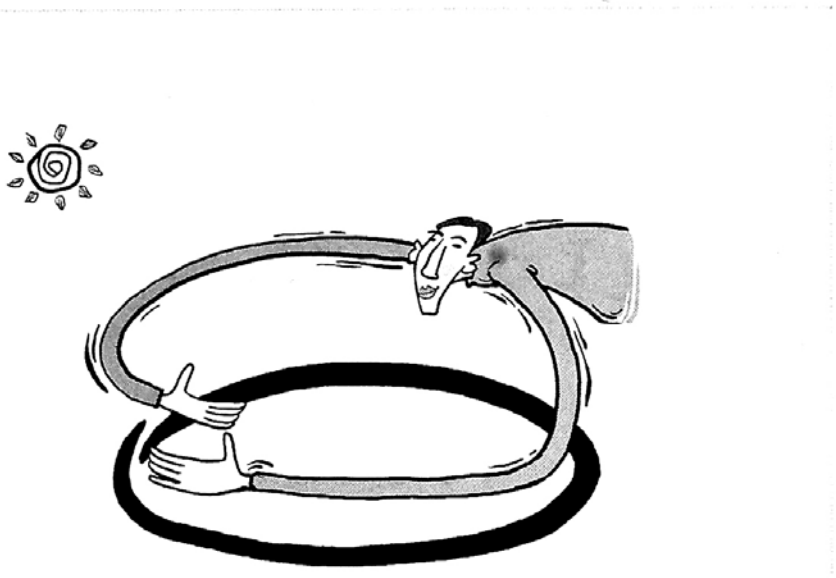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그런데 말씀하신 오점이 '믿고 관(觀)하라.' 는 말씀이셨거든요. 그런데 믿고 관하라는 그 말씀 중에, 저는 조그만 중소기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과 항상 같이 생활하다보니까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모든 걸 네가 한 것이니 믿고 관하라. 아는 것도 네가 알 것이고 모르는 것도 네가 알 것이고 다 믿고 관하라.' 그런데 믿고 관하라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역행하는 것 같습니다. 항상 하시는 말씀이 '믿고 관하라.' 고 하셨는데, 그리도 여러 번 했는데 왜 그 말을 못 알아듣느냐고 말씀하실 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진실하게 믿고 어떠한 문제든 타파해나갈 수 있는 능력 길러야

▲스님: 중소기업을 운영한다고 그랬죠? 그러니 바깥이나 안이나 얼마나 모든 점에서 고달프겠어요? 사람도 다루어야 하니 그렇고, 모든 것을 운영을 해나가려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모든 것을 직접 하는 거지 내가 해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관(觀)하라고만 일러주면 자기가 생활 속에서 용도에 따라서 다가오는 거를 '너만이 할 수 있다.' 하고 거기다 놓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관이에요.

그러니 모든 것을 다요. 자기 몸 건강하고 안 건강하고까지도요. 인간은 심부를 굳입니다. 자생중생들의 심부를굳이요, 또 자생중생은 부처님의 심부를굳이요, 자기의 심부를굳, 육신의 심부를굳입니다.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둘이 아닌 한마음이지 뭡니까? 하하하.

▲질문자3: 불법에서 보면은 우리가 모두 인연따라 살아나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있기 때문에 나로 인한 원망과 미움도 생긴다고 봅니다. 이렇게 인연따라 맺어지는 내가 있기 때문에 인연이 맺어지는 모든 사람들에게 좀더 좋은 방향으로 제도할 수 있는 길이 있겠습니까?

▲스님: 아까도 얘기했던 바와 같이 마음은 체가 없어서 지구 바깥에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내면에 통신이 되면은 통신이 되는 대로 그 통신을 받고 바로 빛보다 더 빨리 움죽거려서 응신으로서 나투어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가 도살장에 간다든가 또 싸움을 해서 구타를 당한다든가 하는 문제가 있을 때도 내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마음에 달려 있는 것이 뭐냐 하면 마음으로서 남한테 해치기만 하고 일가친척인데도 그냥 뜯어먹으려고만 하고 이러면 마음이 가질 않죠? 마음이 가지 않으니깐 건져지지 않는 겁니다. 이런 도리를 배우는 사람에 한해서만이 그런 얘깁니다. 내면에 '둘이 아닌데 모두가 불쌍하잖아.' 하고서 거기다 맡겨을 때에 바로 무명이 벗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도 불이 들어오게 돼있어요. 그게 건지는 겁니다.

요즘 이런 예가 많이 있습니다. 단전호흡을 하다 잘못돼 가지구요. 몸을 부들부들 떨고 그냥 미친 사람 모양으로 밥도 못 해먹는답니다. 밥도 떠먹지 못한답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둘이 아니에요. 그래서 왜 그렇게 긁어 부스럼을 만들어 가지고 오느냐고 그러고선 오는 대로 가르쳐주었더니 지금은 아주 괜찮게 나았어요. 그러니 그게 마음에 달려 있지 않습니까?

마음에서 통신이 되면은 모두 작용을 해주기 때문에, 작용만 해주는 게 아닙니다. 몸도 혹성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대기권에서 대기를 해야만 됩니다. 세포 하나 하나에 들아가는 생명들이 우주간 법계를, 법계라고 합니다. 그럼 지구에도 그런 법계가 있느냐? 지구에도 세포가 있죠. 인간에게도 세포가 있고, 세포가 있기 때문에 대기권에서 대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렇듯이 인간에게도 항상 마음으로서 전달을 하면 안에서 누진(屢盡)으로 해서, 즉 골수로 해서 사대(四大)로 통신이 됩니다. 통신이 되면은, 군인들이 왜 통신을 받으면 재깍 들진하죠? 재깍 일어나서 작용하죠? 그렇듯이 재깍입니다. 재깍인 대신에 빛보다 더 빠르다는 건요, 고 순간에 미국도 갑니다. 고 순간에 지구를 벗어날 수도 있구요.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이 실험을 통해서 체험을 안 해보면은 전연 모릅니다. 마음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고, 마음이라는 게 보배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보배를 보배로 쓰지 않고, 허허! 뭘로 쓸까요? 독사처럼 쓰기도 하고 또 강도처럼 쓰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요 다음 생에는 그냥 그 모습을 해가지고 또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조금도 에누리가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한 대로, 그런데 이 공부를 하게 되면요, 깨우친 사람에게는 잘해도 잘한 거고 못 해도 잘한 겁니다. 그걸 못하질 않으니까요, 잘못된 사람이 '왜 남들하고 똑같이 고쳐지지 않습니까?' 이러거든요. 그건 마음이 삐뚤어져서 자꾸 달아나가는 걸 어떡합니까? 그럼 달아나가는 대로 내버져두는 겁니다. 막다른 골목이 되면은 그때는 다시 들아서게 돼있거든요. 그렇게 해야 부러지지를 않죠. 그런 일입니다.

(다음 호에 계속 이어집니다)

※위 법문은 1993년 9월 5일 법형제 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인터넷 방송(www.hbtv.org나 한마음방송국)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현대불교 1천원 법보시운동에 동참합시다

군부대 · 교도소 · 복지시설에 자비의 법등을 밝힙시다

'현대불교'는 우리의 소중한 이웃인 군부대, 경찰서, 교도소, 병원, 복지시설 등에 '현대불교 보내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법보시는 부처님 법을 다른 사람들에게 심는 것으로 선근을 자라게 하여 개인에게도 무량한 공덕이 됨은 물론 우리 사회를 한층 밝고 따뜻하게 하는 씨앗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도 〈육취윤회경〉에서 "보시의 공덕은 이루 헤아릴 수 없다. 경전의 가르침을 보시하면 큰 지혜를 얻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 동참방법
매월 1,000원 이상 자동이체 또는 수시 온라인 입금(문의시 상세히 안내)
또한 보시하는 불자님이 직접 법보시 대상자나 단체를 정하셔도 됩니다.

■ 참여방법
예금주 성명, 은행명(우체국 수협은 제외), 계좌번호, 예금주 주민번호, 이체희망일자, 연락처를 전화로 알려주시면 자동이체로 후원금이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 신청 및 문의
고객부 (02)737-0090(直) (02)737-8881(代)

현대불교신문사

법공양페이지는 동참을 원하는 종단 · 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에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종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하며 개인 물지의 경우는 특정 종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중풍 **귀하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풍(風)의 치료법은 아직 확립된 것이 없는 상태입니다.
풍(風)! 예방이 제일입니다.

단, 2회 복용에 평생 뇌졸중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 저희는 예로부터 전래되어온 체질개선요법에 의한 (뇌졸증 예방 식품요법)을 10여년전부터 실험하여 많은 분들께 복용시켜 왔고 이와같은 식품요법을 실행하신 분들은 아직 단 한분도 발병한 사실이 없음을 확신하여 보급하게 되었습니다.
- 이런 증상이 뇌졸증(중풍)을 경고하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즉, 갑작스러운 (두통), (마비), (저림), (심한 현기증), (구토), (눈의이상)등이 나타나면 뇌졸증(중풍)의 위험 신호인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저희는 관계기관이 제조 영업하가를 받았으며 인체에 유해한 불법 건강식품이나 다단계판매, 허위과장 광고등 위법판매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부모님께 효도선물로 최고 인기 식품입니다.』

· 본 식품요법 (1인 2회복용 : ₩120,000만원)이 귀하를 지켜드릴 것입니다.

"폴시노"는 뇌졸증 예방요법의 식품입니다.

본 식품요법은 일본의 규슈가고시마현 구니와께시 지방에서 시작되어(게이쇼엔) 양로원의 여러노인들이 비법을 증언하고 일본내에서 선풍적인 유행을 하였습니다. 이미 수만명의 사람들이 실험하였고, 일본 의학회와 국내 학회에도 소개된 바 있습니다. 사용하신분은 한사람도 뇌졸증으로 쓰러진 사람이 없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성분 : 란백액, 매실, 머위 등)

- 현대해상책임보험 1억 가입
- 복용 : 100일 후 발병시 1000% 보상

◐ 상담문의 ☎ (02)3437-8282 ◑

간(肝)이 간염 지방간 간경화 …

건강해야 장수할 수 있습니다.

지리산자락 신비의

참다슬기 농축액



토종 웅담과 비길만한 자연산 참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재래식(가마솥) 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를 열어줍니다.

◘ 다슬기 농축액 : 지리산 자락 계곡 맑은 물에서 채취한 참 다슬기와 구슬알 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해금 시킨다. 다음 다슬기 10kg을 분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통비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때까지 48시간을 다린다. 여기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입니다. 농축액은 60포 단위로 포장합니다.

◘ 다슬기 기름 : 다슬기 15Kg을 항아리에 넣고 왕겨 9가마니를 덮은 뒤 왕겨에 불을 붙여 그 열로 다슬기가 땅속에 묻어둔 빈 항아리에 녹아 흘러내리게 합니다. 다슬기 기름을 만드는데 왕겨가 다 타들어 가기까지 꼬박 8~9이 걸립니다. 한달분은 1.8리터입니다.

「농축액을 개발하여 KBS TV "6시 내고향"에 방영된 이래로 "생방송 좋은아침" MBC TV "고향은 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소개 됨」

자료신청 : 055) 963-9583 · 상담문의 : 055) 355-5626
산마을 토종 (민속농원)

밝은미소 · 건강한 마음 · 보람찬 인생

편안한 노후생활, 자연과 함께 여유로운 삶을 보낼수있는 곳

성라실버타운 (유료양로원)



▶경기도 가평소재

▶ 시설안내 ◀

- 숙 실 수 : 96실(2인 기준) • 동 · 층수 : A동, B동 - 지하 2층, 지상 4층
- 숙실평형 : 9.5평
- 부대시설 : 행사시설, 의료시설, 생활시설, 운동시설, 온천탕(시공중) 등.

[입주비용]

	구 분	입주보증금	월생활유지비	비 고
평생입주 및 휴양입주	1실 1인	50,000,000	500,000	
	1실 2인	50,000,000	900,000	1인 25,000,000
	구 분	입주보증금	평생생활유지비	비 고
평생입주	1실 1인	50,000,000	46,000,000	96,000,000
	1실 2인	50,000,000	70,000,000	120,000,000
	구 분	입주헌납금	월생활유지비	비 고
입주금 헌납입주	1실 1인	70,000,000	없음	
	1실 2인	100,000,000	없음	

[입주상담 및 문의] 강선구 총무이사 011-9971-3743

"노후생활을 보람있게 보내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성라원장 석 정 화

※ 공양주, 행자스님 모십니다.

사회복지법인 성라원 · 성라실버타운
본부사무소 : 서울시 성북구 성북 2동 285번지
☎02)743-0294 / 743-4026
가평사무소 : 경기도 가평군 상면 봉수리 49-4번지
☎031)585-3323~5

"한자 배우면 불교 쉬워진다"

◆한자교육 인터넷 사이트

	주 소	내 용
단 체	한국어문교육연구회 http://www.hanja.re.kr/	한국한자능력검정시험 안내
	한국한문학회 http://user.chollian.net/~kohanhak/	한문으로 표기된 한국문학 연구 학술단체
	한자교육진흥회 http://www.hanja114.org/	한자급수자격평가, 중국간화자, 기출문제
	한문교육지도사중앙연수원 http://www.cyberhanmun.com/	한문교육지도사 자격증 소개, 한문노래교실
	한자급수자격검정회 http://www.hanja.net/	한자급수 자격시험 안내
교 육	사이버서당 http://www.cybersodang.co.kr/	전통문화연구회 운영 사이버서당. 사자소학, 명심보감, 동몽선습 온라인 강의
	아이한자 http://www.ihanja.com/	초등, 중등 한자교육. 만화 고사성어, 게임, 한자능력검정시험 제공
	한국사이버서당 http://www.kr-seodang.com/	한문능력검정시험 대비, 사자소학, 학어집 강의
사 전	정강 한자전자사전 http://hanja.chga.pe.kr/	한자 옥편, 부수, 음가 검색, 이체자 정보
	존 한자사전 http://www.zonmal.com/hanja_dic/	
	고려대장경연구소 한자자전 http://211.46.71.249/handic/	

"관자재보살 행심반야바라밀다시"

법회 때마다 독송하는 반야심경은 불자라면 거의 누구나 외우는 경전이다. 하지만 한문경전은 한글로 번역된 것을 본다 해도 한자를 모른다면 진정한 뜻을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다. 우리말 어휘의 70% 이상이 한자말이기 때문이다. 한자를 배울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가장 쉬운 방법은 한자 교재를 사서 공부하는 방법이다. 최근 들어 〈제대로 배우는 한자교실〉(김경일 지음, 바다출판사)이나 〈손에 잡히는 한자〉(한자사랑 모임회 엮음, 지구촌) 등 알기 쉽게 한자를 익힐 수 있는 다양한 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불교천자문〉(덕진 엮음, 우리출판사)이나 〈수심보경〉(금강 엮음, 솔바람), 〈부처님 말씀과 함께 하는 어린이 한자교실〉(미공 엮음, 현대북스) 등은 한자는 물론 부처님의 가르침까지 함께 배울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불교천자문' 등 쉽게 익힐 책 쏟아져
'사이버서당' 등 인터넷 통해 배울 수도
금오·삼전복지관 등 무료 한자교실 운영

전통문화연구회가 운영하는 사이버서당(http://www.cybersodang.co.kr/)이나 에듀넷이 제공하는 한자공부(http://cyber.edunet4u.net/hanja), 게어한자(http://www.airhanja.co.kr) 등의 인터넷 사이트에서는 고사성어와 퀴즈와 게임을 통해 한자를 배울 수 있으며 옥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도 있다.

시간이나 노력은 많이 들지만 직접 강좌를 듣는다면 단시간에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동산불교대학이 지난해 개설한 2년 과정의 불교한문학과는 현재 120여명의 수강생이 있다. 또 금오복지관(054-458-0230)과 삼전복지관(02-421-6077), 길음복지관(02-985-0161), 남구복지관(053-476-7700) 등은 무료 한자교실을 운영한다.

한자도 다른 어학 공부와 마찬가지로 중도에 포기하기 쉽다. 이럴 때는 뚜렷한 목표 세우는 것도 한 방법이다.

1990년대 초부터 생겨난 한자 자격시험은 현재 '한자능력검정시험', '한국한자급수자격평가'를 비롯해 8종이 있으며 시험마다 자격급수와 준비방법이 다르다. 최하 100자부터 최고 5000자 내외의 한자를 알아야 응시할 수 있다. 국가공인을 받은 한국어문회가 주최하는 한자능력검정시험 1~4급을 제외하면 모두 민간 자격증을 발부한다.

여성 담당=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한가위, '한복' 바르게 입자

남자 외출시 두루마기 갖춰 입어야
여자 저고리 입을 때 속적삼 안보이게

우리의 전통명절에는 차림새 고운 한복이 잘 어울린다. 예쁘고 잘 어울리는 한복을 고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신경을 써야하는 것이 바로 제대로 입는 법이다. 한복 맵시를 살려주는 방법을 알아본다.

한복을 잘 입는다는 것은 속옷부터 버선, 장신구에 이르기까지 깨끗하고 맵시 있게 갖추어 입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속옷을 제대로 갖춰 입는 것은 기본이다. 요즘엔 대체로 속바지와 속치마만 입는데, 속치마는 겉치마보다 2~3cm 짧게 입는다. 겉치마는 겉자락이 왼쪽으로 여며지게 입는데, 여며지는 정도는 뒷중심에서 양쪽으로 약 7~10cm쯤 되게 입으면 된다. 이때 치마 오른쪽 끈은 치마 말기 안쪽으로 빼면 흘러내리지 않고 잘 고정된다.

저고리는 깃고대와 어깨솔기를 약간 앞으로 숙여 입어야 제멋이 난다. 이때 속적삼과 치마허리가 저고리의 도련 밑으로 나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깃은 저고리의 길이에 비례하도록 짧게 바짝 달아서 입었을 때 목둘레를 단아하게 감싸준다.

버선은 수눅(바느질한 솔기)의 방향이 오른발은 오른쪽으로, 왼발은 왼쪽으로 가도록 양쪽을 잘 잡아 당겨 신으며, 신발은 가죽신이나 고무신을 신는다.

남자의 경우 바지를 오른쪽으로 바짝 당겨 왼쪽으로 접고 허리끈을 매면 된다. 대님을 맬 때는 사폭 시접선을 복사뼈 안쪽에 대고 원폭을 밖으로 한 바퀴 돌려 제자리에 오게 한 후 대님을 두번 돌려 리본으로 묶은 뒤 5~7cm정도의 고를 남기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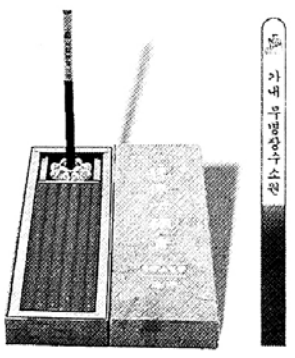
한복은 대부분 명절이나 행사 때만 입기 때문에 입은 다음 손질이 중요하다. 치맛단이나 고름, 앞섶의 오물은 벤졸에 물을 적당히 섞어 수건이나 거즈에 적셔 닦아주면 깨끗이 지워진다. 옷의 수명을 길게 하려면 옷에 구김이 덜 가도록 큼직하게 개켜서 서랍장이나 상자에 넣어 보관하는 것이 좋다.

실내 악취제거 … '현상소원향'

연소된 후에도 재가 부서지거나 쓰러지지 않고 소원을 나타내주는 현상 소원향이 나왔다. 이 향은 연소 후 재 위에 부처님의 형상과 함께 삼재소멸, 왕생극락, 사업번창, 학업성취, 무병장수 등의 글씨가 나타난다.

클릭 ! 불교문화상품
www.mahamall.co.kr

자단향, 모과향, 목향, 백단향 등으로 만들어져 정신을 맑게 해주고 담배냄새와 악취를 제거하여 실내 공기를 맑게 해준다. 12개입, 3만원.



여성단신

여성부, 여학생 백일장 개최
12~13일 중소기업 전시장

여성부가 전국 여학생을 대상으로 백일장을 개최한다. '미래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주제로 열리는 백일장에는 전국 초·중·고 여학생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서울 중소기업 여의도 종합전시장에서 12일, 13일 양일에 걸쳐 열리는 이번 백일장에 참가를 원하는 학생은 여성부 홈페이지(www.moge.go.kr)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제출하면 된다. (02)3443-6613

예지원, 가을학기 회원 모집
생활예절 등 3개월간 교육

(사)예지원 광주지회(원장 이영애)가 가을학기 회원을 모집한다. 제6기 예지반에서는 3일부터 12월 17일까지 매주 화요일 10시부터 생활예절, 가정의례, 식탁예절, 언어예절, 우리 옷 바로입기, 인사예법 등을 교육한다. (062)526-3325

주부 신행담

열반의 화음 온누리에 下 강형진 (나르바나 실내악단장)



나르바나 실내악단이 출범한지 벌써 3년이 흘렀다. 그동안 많은 어려움과 좌절의 순간이 있었지만 주위의 도움과 기도의 힘으로 이겨나갔다. 매년 한 번씩 해인사 백련암에 가서 7일 밤낮동안 매일 3000배를 올렸다. 백련암 기도 후에는 집에서 600배를 올리는 100일 기도를 하기도 했다.

이후 정기연주회 때마다 헌신적으로 노력해주신 본각스님은 물론 교계행정부처와 여러 소중한 인연 그리고 단원들의 피나는 노력 덕분에 나르바나 실내악단은 창단 후 지금까지 서울 조계사를 비롯해 진천 보탑사 등 전국 각지에서 50여회에 걸친 사찰음악회와 정기연주회를 가졌다.

50여회 사찰 정기연주회 가져
다양한 연주로 불교발전 기여할 터

또한 동유럽의 명지휘자 안드레이 안드레예프(마케도니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수석 지휘자)를 초청해 연주하기도 하고, 소프라노 정률 스님 테너 윤승호 씨, 블자 중창단 L.M.B 싱어즈 등과 함께 다채로운 무대를 꾸미기도 했다. 특히 매년 정기연주회 때에는 우리 전통음악에 기초한 창작음악을 선보이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아직 가야할 길은 멀다. 나르바나 실내악단이 불교계에서뿐만 아니라 음악계에서 인정을 받고, 나르바나만의 색깔을 가지기 위해서는 더욱 피나는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올해는 부처님 오신 날 기념 봉축음악회와 월드컵기간 중 세계민속음악축전 두 개의 큰 연주를 했다. 그리고 청담큰스님 탄신 100주년 기념 기획행사를 도선사에서 했다. 너무 심혈을 기울인 탓인지 좀 지치는 듯 하기도하고 실내악단운영에 전반적인 재검토를 위해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다. 그동안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을 준 남편과 조금 이른 피서를 갈 겸 함께 여행을 떠나기로 했다. 9박 10일 동안 미황사와 쌍계사 등 전국의 사찰 12곳을 다니며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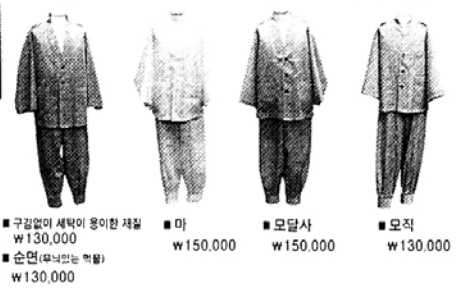
마음을 정리하고 돌아오니 기쁜 소식이 나를 반겼다. 내가 2002년도 행원문화상 예술부문에 선정됐다는 것이다. 너무 감사하고 큰 선물을 받은 기분이었다. 그동안의 어려움이 눈 녹듯 사라지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올가을에는 봄부터 도선사에서 해온 청담큰스님 탄신 100주년기념 기획 콘서트를 잘 마무리하고, 봉녕사와 불영사 산사음악회에 참가해 연주할 예정이다. 그리고 수서에 위치한 비구니회관에 상주하는 단체로써 바이올린교실을 개설하여 불자 및 지역사회에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월례행사로 매월 마지막 금요일 저녁에 금요콘서트를 개최할 것이다.

'동양의 정신을 서양언어로 펼쳐나가는 니르바나 실내악단'은 불교음악뿐만 아니라 동서양의 크로스오버, 클래식, 가곡, 가요, 팝송에 이르기까지 걸림없이 연주하여 사찰문화를 꽃피우고 발전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다. (끝)

승복, 법복안내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항상 처음 이라는 자세로 변함없이 제품 생산 · 연구에 임하는 저희 업체에서는 부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정성껏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고급 재질에 세련된 디자인으로서 저렴한 가격으로 스님 및 불자님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부족한 점이 있으시면 많은 지도편달 바라며, 최선을 다하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 에동승복 직원일동 -



※ 장삼, 가사, 바랑 및 기타의류는 맞춤주문 받습니다

해동승복
대구 고속터미널 ↔ 동부정류장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 4동 399-1
TEL : 053)741-8131
FAX : 053)741-8132
H.P : 011)549-8130
※ 지역 대리점 모집

고차원치유에너지 활용법 전수! 이제 전세계 비만인의 고민은 사라진다!!

비만완전탈출!! 지도자모집

세계최초 부산에서 전격 지도자 양성. 질병으로 변형된 DNA를 정상적인 DNA로 복원시키는 체계화된 학문교육, 약이나 氣등의 도움이 없다.

대 상
◆ 가족의 난치병 간호에 고통을 겪고 계신분
◆ 해외이민 희망자
◆ 先見之明의 지혜를 가지신 남 · 녀
◆ 인기폭팔 비만 및 피부미용 샵 운영 예정자

교육과정
◆ 비만 및 난치병 조정법 6일간의 속효 조정법으로 최고의 고등본능 방법술 전수
◆ 십이종 지능과 십이종 의식 구조학의 고난도 책융합방법 전수
◆ 부작용이나 요요현상이 없다

본학문을 전수받고 난후 당신은 아래와 같은 능력자가 된다!
1. 배운대로 하면된다 (살찌게 하는 DNA를 교정, 마르게 하는 DNA를 교정)
2. 피부가 더욱 아름다워진다
3. 상대를 하루 1~2시간 6일을 조정해주면 된다
4. 6일 이후 부터 비만 당사자는 자율적으로 자기본래의 표준골격을 되찾기 위하여 불필요한 체지방을 몸밖으로 자동배출 하게 된다. 부분비만은 물론 제아무리 거구의 비만인이라하더라도 옛날에 입었던 옷을 꺼내입게 된다
(도대체 믿어지지 않는다! 놀랍다! 과연신기하다! 라고들 하나 믿기 어려운 기적같은 현실임)
5. 감기도 암도 같은 맥락에서 원상회복된다
6. 난치의 비정상 세포를 몸밖으로 배출시키고 복원시키는 비전의 학문을 전수받으시기 바람

※ 종교와는 무관하며 이법을 세상에 보급할 때가 되었으므로 지도자를 양성하며 인연닿는분 필히배워두시길 배워두면 성공한다!

문의처 부산시 진구 전포2동 608-1
051) 805-3568~9 019-831-8351

高次元治癒에너지 人體適用硏究學會

영가천도 「책자 무료보급」
인간의 길흉회복을 좌우하는 영가의 영향력!
인간의 고통중에서 절반이상이 영가의 장애로부터 온다!
집안의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영가의 영향력!
가정불화, 사업부진, 자녀문제, 불의의 사고나 재난,
이중에 절반 이상이 영가의 영향으로부터 온다.
"100% 영가천도 영험도량"

책 자 내 용

제1장 영가의 실체.
1. 영가천도에 대하여
2. 영가(고혼) 천도의 의미
3. 영가란 무엇인가?
4. 착신현상이란 무엇인가?
5. 영가의 장애와 천도의 필요성

제2장 천도재에 대하여...
1. 영가천도와 업장소멸.
2. 영가천도의 공덕.
3. 천도재와 위령제의 차이.
4. 수자령영가에 대하여.
5. 효행중의 효행.
6. 지장보살의 시대.
7. 천도재 법문.

제3장 영가천도로 안락한 삶을 영위하다.
● 영가가 천도가 되었을 때 나타나는 사례.
● 영가가 착신 되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
● 천도재를 지낸 분들의 체험수기.

그밖에 여러 사례들 - 영가천도 책자 참조 -

100%의 확실한 영가천도가 절실히 필요한 시기!
천도재가 위령제의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된다. 영가천도를 했는데도 영가의 장애라고 느끼거나 삶의 변화는 별로 없다고 하소연하는 불자가 늘고 있다. 전국에 조상령 혹은 수자령 영가가 천도가 안되어 이로인해 고통을 받고있는 이들이 상당 수에 이른다.
「미륵이 출세할때까지 중생들을 모두 해탈시켜서 영원히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고 부처님의 수기를 받도록 하리라!」
- 지장경 중에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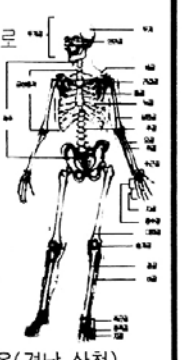
매월 합동 천도재 봉행, 천도재상담 전화 및 무료책자 신청
대한불교 조계종 지장도량 성 거 사
천안시 목천읍 송전리 283번지(독립기념관 IC)
041) 567-6820, 041) 567-6822

관 절 염
자생환(自生丸)

관절염 류마티스 초기 퇴행성관절염 혈액순환장애 디스크 → 약간의 활동이나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이 쑤시고 저리는 경우 자생환(自生丸)을 복용후 1개월부터는 확실한 효과가 나타남

선천성 냉체 산후바람 낭습진 → 자생환(自生丸)을 2~3주만 복용해도 효과가 나타남

참고 - 심각할 정도로 나쁜 상태는 별도로 상담바랍니다



"자생환(自生丸)의 뛰어난 효과 때문에 입에서 입으로 소개되어 많은 고객으로부터 주문 및 문의가 쇄도"

▸ 주의사항 심장질환자, 폐질환자 임산부, 음주전후에 복용금지

※ 발명자 : 민속의학자 권재우 옹(경남 산청)

주문 및 상담전화 (055)972-4054

한방을 선도하는 기업
骨仁製藥(株)

기혈마사지
경락수기

손만 있으면 통증 '無'

칼을 대는 외과수술이나 레이저를 이용한 치료 과정 없이 두 손만을 이용해 통증을 없앨 뿐아니라, 피부 트러블은 물론 부분 비만까지 해결하는 기혈순환 마사지와 경락수기요법 등 대체의학요법이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기(氣)치료 요법들은 오십견을 비롯해 식욕부진, 비만해소, 생리불순, 퇴행성 관절염 등에서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오십견 · 식욕부진 · 생리불순 등 치료에 효과

기혈순환 마사지

"팔을 위로 올리거나 뒤로 돌리면 어깨가 깨지는 것처럼 아프다." "어깨가 너무 아파 머리를 감거나 옷을 입고 벗을 수도 없다." "어깨 통증으로 제대로 잠을 잘 수 없어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다." 서울시 서초동 이근숙씨(전업주부 · 44세)는 불과 1년전까지만 해도 류머티스 관절염과 오십견으로 수년간 고생하다 기혈순환 마사지 덕을 톡톡히 봤다.

"통증 사라지고 피부탄력 생겨"
집에서도 가족끼리 치료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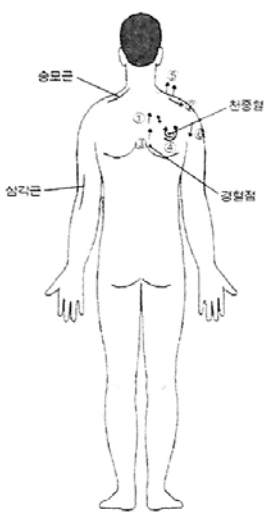
이 씨는 "오십견이 진행되면 밤에 통증이 심해 옆으로 누워 잠자기조차 곤란해지고 잠이 들었다가도 금세 깰 정도였다"며 "5개월 정도 마사지를 하고나니 통증이 사라진 것은 물론 늘어졌던 피부에 탄력도 생겼다"며 환하게 웃었다.

기혈순환 마사지는 기혈의 원활한 순환을 도와주는 것이 기혈 순환 맛사지의 기본 원리"라며 "특히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어 간단한 원리만 알면 가정에서도 가족들끼리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말한다.

도움말= 옥지미 교수
(음양체형연구회장)

오십견 환자를 위한 기혈순환 마사지법

①팔을 뒤로 꺾어 견갑골 사이가 홍추와 벌어지게 한다.
②손바닥이나 손끝으로 풀어준다.
③화살표 방향으로 풀어준다.
④천종혈을 위주로 하여 시계방향, 시계 반대방향으로 누루면서 파등을 준다.(흔들어준다)
⑤목과 연결된 승모근을 마사지해 준다. 이때 위쪽방향으로 한다.(이때부터 팔을 뒤로 꺾은 자세는 풀어준다)
⑥팔과 연결돼 있는 근육인 삼각근을 마사지해 준다.



경락수기

경락 마사지 기법을 도입한 한방 경락수기요법의 핵심은 손바닥과 엄지손가락, 척추를 중심으로 자리한 수양명 · 대장경 · 족양경 · 방광경 등 12경락의 기혈을 두 손으로 다스리는 것이다. 바로 누르고 비비고 꼬집듯이 경혈 부위의 살점을 집어 기혈을 활성화시켜 신체의 밸런스를 찾아 주는 것. 치료 단계는 3단계로 나뉜다. 신체의 중심인 척추의 균형을 잡는 1단계, 뼈를 둘러싼 근육을 강화시키고 뭉친 곳을 푸는 2단계, 뼈대와 근육을 싸고 있는 근막의 균형을 잡는 3단계로 이뤄진다. 복부와 허벅지 등 특정 부위의 부분 비만도 척추의 균형을 바르게 잡아 주면서 해결한다. 족양명위경 · 수소양삼초경 · 수궐음심포경의 경혈에 자극을 주어 다스리면 오장육부의 기능을 활성화시켜 부분 비만을 해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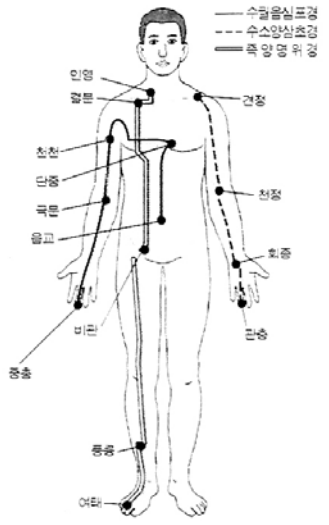
"질병 근원 바로 잡는 자연요법"
3개월 정도면 효과 볼 수 있어

한방 경락수기요법을 시술 중인 이광진 효성당한방병원 원장은 "척추 변형은 만병의 근원이다. 이 요법은 질병의 근원을 바로 잡는 자연요법으로 만성피로와 스트레스가 많은 현대인에게 적합한 치료 요법이다"고 설명한다.

어떤 질병이든지 문제가 되는 부분만을 마사지해서는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먼저 몸 전체의 상태를 정확히 체크해 기혈의 순환이 약한 부분은 원활할 수 있도록 스트레칭을 시키며 너무 강하게 굳은 부분은 반드시 이완을 시켜야 한다. 이렇게 전신순환을 원활히 한 다음 장기나 근육 그리고 바른 골격을 위한 마사지를 해줘야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

순환관리나 장기운동을 원활히 하기 위한 복부마사지, 늘어진 근육 마사지 등 순서와 횟수 등은 각 개인의 몸 상태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1주일에 1~2회씩 3개월 정도 꾸준히 해준다면 복부비만은 물론, 생리불순, 식욕부진, 소화불량 등 가벼운 증상의 병들은 금방 효과를 볼 수있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도움말= 이광진 원장
(효성당 한방병원)



'역사의 향기에 취해 보세요'

관광공사 추천 9월 여행지 4곳



◇안양루 밑에서 바라본 우리나라 목조건축의 백미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무더위가 한풀 꺾이고 아침 저녁으론 선선한 바람이 창틈으로 솔솔 들어온다. 어디론가 떠나기 안성마춤인 계절이다. 여름 한철여행이 피서를 핑계로 눈과 가슴을 위한 것이었다면 이번에는 아이들과 함께 머리를 채우는 여행이 적당할 듯하다. 한국관광공사에서 9월에 갈만한 역사 · 문화 체험여행지 4곳을 추천했다.

'지산동 고분군' 등 볼거리 다양
고령 대가야

경북 고령은 한반도 남쪽에서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던 가야의 잊혀진 역사가 숨쉬는 곳이다. 우리나라 최초의 것으로 확인된 순장묘 '지산동 고분군', 선사시대의 암각화, 그리고 빛깔고운 도자기 등을 만날 수 있다. 이중 지산동 고분군은 당시 왕족과 귀족의 막강했던 권력을 실감할 수 있는 곳. 죽은 후의 내세를 믿었던 당시 사람들은 죽은 사람의 소장품은 물론 부리던 하인 등도 함께 무덤 속에 넣었다. 최신식 돔 형식으로 만든 대가야 왕릉 전시관을 찾아볼 만하다. 순장석곽, 철기, 도자기 등 많은 유물이 전시되고 있다. 고령군청 문화체육과 (054)950-6060

유학과 불교의 만남 현장
소수서원과 부석사

유학과 불교 문화의 만남을 경험할 수 있다. 소수서원은 우리 유학의 정신을 대표하는 곳. 1543년 풍기군수였던 주세붕이 원나라에서 최초로 주자학을 들여온 고려의 학자 회헌 안향(1243~1306)을 기리기 위해 만들었다. 소수서원 인근에 있는 부석사에는 무량수전 국보 제18호를 비롯해 5점의 국보와 당간지주 등 4점의 보물이 있다. 신라의 의상대사가 문무왕 16년(676년)에 부석사를 세웠고 무량수전은 고려 현종 7년(1016년)에 원융국사가 부석사를 중건할 때 지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 된 목조건물 중 하나이자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로 꼽힌다. 영주시청 문화관광과 (054)639-6062

반봉건 농민혁명의 숨결
동학혁명 유적지

정읍은 1894년 갑오동학농민혁명의 신호탄인 고부 농민봉기가 일어났던 곳이다. 정읍시에서는 그 의미를 돌아볼 수 있는 당시의 유적을 찾아 볼 수 있다. 전봉준 장군의 고택은 혁명 이후 불태워졌던 것을 다시 재건했다. 정읍시 고부면 신중리 주산마을은 혁명거사가 논의된 곳. 마을 입구에 동학혁명 모의탑이 세워져 있다. 송두호의 집에 들르면 현재 거주하는 임부영 할아버지로부터 동학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정읍시청 교통관광과 (063)530-7224

초가집 등 옛 건물 그대로 보존
외암리 민속마을

아산에는 볼 것과 느낄 것이 많다. 설화산 기슭의 외암리 민속마을이 그 첫째이다. 예안 이씨 집거촌으로 기와집과 초가집 등 옛 건물이 모두 남아있고, 주민들도 여전히 그 안에서 생활한다. 조롱박, 호박 등 덩굴 식물이 들담을 덮고 있다. 맹씨행단(杏壇)은 조선 청백리의 대표적 인물인 맹사성의 옛집을 일컫는 말. 고려 말 최영 장군이 살던 집으로 최장군이 손녀 사위인 맹사성에게 물려주었다고 한다. 아산시청 문화관광과 (041)540-2468

레저 담당= 김주일 기자 jkim@buddhapia.com



(7)



김승수
한의학 박사 · 송암한의원 원장

관절염과 수중운동치료

관절염은 가장 흔한 질병 중의 하나이다. 모 신문사의 조사에 따르면, 50세 이상 인구의 30% 이상이 크고 작은 관절질환으로 치료중이거나 치료 경험이 있다고 한다.

관절염은 관절부위가 아프고, 뻣뻣하며, 붓고, 열이 나기도 하며, 덜 움직여지다가 심해지면 관절이 변형돼 움직일 수 없게되는 질환이다.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퇴행성 관절염과 류마티스 관절염을 들 수 있는데 이는 한의학적으로 비증(痺證)이나 역절풍(歷節風)과 유사하다. 이때 비(痺)란 '막혀서 소통이 되지 않는다'란 뜻인데 관절염도 바로 관절에 기혈(氣血)이나 기타 생리적으로 필요한 물질들이 원활하게 순환되지 못해 생기는 질환이다. 이런 관절염(痺證)을 치료하기 위하여 한방에서는 한약을 복용하기도 하고, 침이나 뜸, 부항을 사용하기도 하며, 최근에는 벌침을 응용한 봉독(蜂毒)약침, 테이핑 등을 활용하기도 한다.

일반적인 치료 이외에 관절염 환자에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수영이나 물 속에서 걷기 등 수중운동을 꼽는다. 그 중 수중운동 혹은 수중치료는 따뜻한 물 속에서 부력, 수온, 수압을 이용하므로, 지상에서 보다 쉽게 걷고 움직일 수 있어서 관절주변의 근육을 강화시키고, 물 속 환경이 관절연골을 보호하며, 관절의 가동 범위를 넓혀 주고, 또한 많은 칼로리 소모로 체중의 감소도 가져오기 때문에 가장 이상적인 운동요법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기존의 치료법과 병행하면 더욱 효과적인 치료가 될 수 있다. 아직 우리나라에는 대중화되지 않고 있지만, 미국의 경우 관절염재단에서 수중운동치료를 보급하고 있고 여러 병원에 수중운동치료실이 설치되어 있다고 한다. 동의보감에도 팔다리가 쑤시고 아픈 경우에 따뜻한 물 속에서 치료한다고 되어 있다.

생리적 물질 순환장애 때 생기는 질환
부력 · 수온 · 수압 이용한 운동 효과적

한편, 관절염이 완치되느냐의 여부를 따지기보다는, 병을 잘 조절해서 일상생활에 불편을 줄인다는 자세로 치료받는 것이 중요하다. 마치 당뇨나 고혈압이 완치는 어렵지만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꾸준한 치료와 조절이 필수적인 것처럼 관절염도 꾸준한 치료와 조절이 요구되는 것이다. 관절염 환자에게 지속적인 운동요법이 중요한 까닭이 바로 이것이다. 또한 특정 음식을 먹고 안 먹고 하는 것은 관절염 치료에 중요하지 않으며 균형 있는 식사를 통해서 적절한 영양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송암수중체조교실 (02)530-8220 www.soojoong.com

동양의학에 약재로 쓰는 나무의 액기스로 만든
대나무수액 시트
(우리대나무죽초시트)
발에 붙이면 건강해 집니다
마디식물대나무가
관절(마디)를 돕는다
발바닥은 인체반사구의
집합소 죽초가 목초보다
성분이 강하다
※ 불자님께 사은 선물
100매 구입시 W90,000
숯팔지 9미리 단주증정(판매가 W45,000)
수량한정품
(보석같이 단단한 비장탄으로 깎은 수가공품)
(병을 고치려면 먼저독을 빼라 : 책증정)
숯을 전문연구개발하는
한국목탄연구소 02)925-0300
송금 조흥은행 359-03-004847

退職者有給研修
생계보조비 : 월150만원
구성원 평균소득 최상위권을 자부하는 시스템코리아 고려홍삼중앙회에서 퇴직불자 여러분의 경제대열 복귀지원을 통한 상호 이익 차원에서 퇴직자 유급연수를 실시합니다.
연수기간 | 인 원 | 기본급·만근수당 | 연 령 | 경 력
3개월 | 男:00名 女:00名 | 월 150만원 | 40~50代 | 분야에 관계없이 공사직 중견 간부 이상 경력자
※ 생계보조비는 정상연수자 모두에게 생계지원을 위한 기본급·만근수당 150만원이 지급되며, 연수기간 중 예상소득 500만원 및 조기 사업실장 위촉 가능
⊙연수후 대우 : 연수자는 月단위로 재 선정되며, 3개월 연수후 회사자본 사업실장 위촉
⊙구비서류 :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우편·내사·팩스접수)
⊙접수처 :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5가 120 국제화재B/D 2층 조춘제 실장 앞 (내사상담 2층 사업국 조춘제 실장)
⊙접수마감 : 2002년 9월 9일(월)18:00 까지
⊙적격자발표 : 2002년 9월 9일(월) (개별통보)
⊙면 접 : 2002년 9월 10일(화) 오전 : 10시 30분
※ 면접은 서류 심사후 적격판정 통보자에 한함.
⊙전화 문의 : 02)774-3868, FAX : 02)774-5336
(주)시스템코리아 고려홍삼중앙회
KORYO RED GINSENG ASSOCIATION

萬里四柱특강
- 변만리 선생 직강 및 약력
日刊 社會日報 주필, 月刊 陰陽과 韓方 社長
社會團體 韓國陰陽研究會長
현대 삼성 대우 롯데 선경 두산 동부 삼미 등
국내외 은행 및 400여처에서 동양철학과 건강관리 강좌
만리사주의 좋은점
사주의 중국사주는 10년을 공부해도 미완성이고, 어렵기만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주의 기본인 오행과 상생 상극을 글자대로 풀이하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중국사주의 오행과 상생 상극, 격국과 신살을 완전히 백지화하고, 진리와 상생 위주로 사주와 운세를 종횡 무진으로 분석 판단하였습니다.
사주 공부가 어려우십니까? 만리사주를 배워보십시오.
40년 강의 경력과 노하우를 초보자도 알기 쉽고 흥미진진하게 배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주는 매우 논리적이고 상식적인 학문입니다.
정확하게 핵심을 배워나간다면, 결코 어려운 학문은 아닙니다.
중요 목차 및 내용
● 육신 - 인물, 인격, 환경, 운명을 판단한다
● 왕쇠강약
● 부귀빈천의 사주
● 육친관계 보는법
● 궁합 보는 법
● 택일 하는 법
● 적성 직업 보는 법
● 인생의 대항로 대운 보는 법
● 12운성과 성격 보는 법
● 일년신수를 척척 보는 법
● 운명의 격동기 보는 법
● 당면문제 감정법 - 주택문제, 진학과 고시문제, 기억문제, 재판과 형사문제, 결혼과 이혼문제 외 다수
교재(5권) + 강의 테이프(총 60개) = 85만원
스님 및 포교사 할인판매 (만세력 프로그램 50% 할인 판매 함)
문 의 : 016-460-2378 (담당자 직통)
상세한 안내서와 견본테이프 무료 우송함
판매처 : 도서출판 한국음양연구원

실기훈련 위주의
說法방법실기
단시일내에 대법사가 될 수 있는 길
부처님의 오종설법, 개차법, 대기설법
비유법등을 원론적 기준으로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성공적인 법회운영을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와 자료의 재구성능력이 확보되야 합니다.
과목 ● 설법방법론, 실기훈련, 설득, 상담기법 ● 음성, 태도, 修辭, 원고작성법, 회의진행법 등
연수안내
▶기 간 : 2개월 과정 ※ 수시접수
▶강 의 : 매주 목요일 오후 3시 ~ 5시
▶장 소 : 본 연수원 ▶지도교수 : 金哲會 박사
※ 출장 개인지도 가능합니다 ※
◆ 문의 및 신청 ◆
☎ 02)747-1567 / 02)737-1567
H·P 011)248-1567
韓國說法研修院
서울 종로구 종로 3가 20 (영흥 B/D 4F)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 구인 · 구직 규격 50.000원 / 일반업체 규격 70.000원
· 전화 : 02)732-1522 (直) 02) 737-8881 (代)
· FAX : 02) 737-0697

기도스님 행자님 모심

공기맑고 숲이 있는 대구 근교에 위치한 정법도량입니다
011)9317-9181

비구 비구니 스님 불심있는 보살님 처사님 산세좋고 물좋은 조용한 암자에서 불사하며 가족처럼 사실 분 연락바랍니다 (나이불문)
017)708-0635

행자 및 수행 함께할 보살님, 처사님 모십니다 산세수려한 기도영험도량에서 함께 기도하며 평생을 살아갈 인연을 찾습니다.
031)868-1833
011)289-0476

제의식, 불공 등 임시로 스님 필요한 곳은 연락 바랍니다
055) 387-0361
016) 428-6665

가족처럼 일하실 공양주 보살님과 처사님 구함
▷대 구
053)652-3219

산세 수려한 도량에 복 지으실 보살님을 모십니다
011)545-2375

공양주 보살님 구합니다
▷정릉 보림사
02)914-6187

심야전기 온돌

▶전기온돌은 우리전통의 온돌방식을 심야전기를 이용하여 현대화한 바닥 난방방식으로 따끈하게 데운 방바닥의 열을 24시간 지속적으로 유지합니다.
▶보일러실이 필요없고, 난방비는 기름값의 30%

● 축열식 전기 온수기
● 축열식 전기 보일러
● 축열식 전기 온풍기
● 원적외선 전기 온풍기
● 온수식 온돌 판넬

설계시공 A/S 상담

한전승인업체
남강기전 02)338-0400

자비간병인 교육대학 후원회 모집안내

자비간병인 교육대학은 2002년 8월 5일(2개월 과정)부터 개강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자 하는 불교 포교 활동과 지역사회복지 · 보건을 위한 전문간병인 양성교육기관으로, 본 이념에 뜻을 같이 하고자하는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제 2기 수강생을 수시 접수 합

후원회 법보시 입금계좌번호
▶대구은행 006-05-003306-1 ▶조흥은행 802-04-483739 (자비간병인 교육대학)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 2동 531 ● 전화 : 053-255-7573, 7583
대한불교조계종 자비간병인 교육대학장 합장

동성불교사

개금 · 천불 · 범종 · 동불전문
代表 李相萬 법명:보환
TEL : 031)575-2532
FAX : 031)575-2647
자 택 : 031)563-8733
031)563-8771
H · P : 011)255-3286

배우자를 구합니다

▷(여)30대후반~40대
▷사람위주
011)9675-5008

사찰건립에 도움을 주실 분 전화주십시오
● 절지을 땅(안동시 임야) 3000평 있습니다.
● 절건립에 동참하실 스님 또는 보시, 불사, 시주하실 분을 기다립니다.
● 절건립을 도와주실 목수 미장공 기타 처사, 보살 공양주 께서도 전화주십시오
천불사 승려일동 드림
054)856-4804

천도의식 · 불공 안택 등

임시로 스님이 필요한 곳은 연락바랍니다
055)336-5691

공양주 모십니다

▷전북 부안 변산반도
063)583-7281
063)583-7284

◈ 구운 마늘환 ◈

- 100% 토종 육쪽 마늘 -
기적을 일으키는 놀라운 마늘의 효능
심한피로 / 정력강화
간기능 획기적 개선
혈압/혈당치를 낮추고 장 변비 개선
손발냉증, 피부 고와짐
감기에 강한 체질로
동양물산 080-375-7575

사찰안내

● 위치 : 경기도 안양시내
● 대지 : 270평
● 법당 : 30평
● 요사 : 30평
● 양도 : 8억(대출가능)
● 뒤는 산세좋으며 앞은 안양중심가를 관망할 수 있음
● 위치 : 서울시내 국립공원 소재 전통사찰
● 부지 : 800평
● 법당 : 30평
● 요사 : 40평
● 양도가 : 20억
● 천연고찰로 산세 및 계곡이 절경임, 차량진입 가능

한국최고의 사찰컨설팅 한국불사 02) 561-7791/011)530-1975
전국소재 사찰, 암자 양도, 양수할 스님께서는 전화 상담 환영합니다.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주소 : 충남 천안시 광덕면 지장리
041)567-5539

토굴 안내

● 위치 : 경주시에서 15분 거리 고속도로 진입 상하행선 10분거리 절까지 차량진입
● 터지 : 120평 건물 2동 (한동은 임법당으로 신축)
● 방 3개 주방 1개 주지실과 욕실완비 공기 청청한 마을에 제일 윗집으로 대나무와 소나무 숲으로 어우러진 토굴기도처임
● 가액 : 5500만원
011)838-3689

토굴 안내

● 위치 : 경북 외성군 봉양면
● 나무와 황토로 지은 'ㄱ' 자 한옥 기와집
● 암자나 토굴로 적합(부처님 모셨음)
● 걸망 풀고 쉴 수 있는 곳
● 마을에서 맨끝 집이며 제일 높은집
● 대지 : 170평 건평 : 26평
● 가액 : 4천 3백만원
011)9376-4684

포교당(급)안내

● 위치 : 동작구
● 면적 : 23평(옥상사용)
● 보증금 : 300만원 월세 30만원 시설비 약간

※ 전국 사찰 암자 양도 양수 하실 분 전화상담 환영 부전스님 공양주 보살님 연결하여 드립니다

광진불사 02)723-4082

역학 수강생 모집

■ 과목 : 사주, 작명, 신수, 궁합, 택일, 육효, 대정작괘법 관상, 풍수지리
■ 기간 : 수시모집
■ 강사 : 30년간 청운역학원을 경영하고 있는 청운 엄윤문선생이 직접 강의합니다.
※ 교재는 이석영선생저서 사주첩경으로 강의합니다.
저 서 명학비해격국용신론을 위시로 30여권을 저술 하였음

청운역학원 02)723-7449 / 011)9638-8229

사찰 안내

● 위치 : 청송
● 대지 : 약 2000평
● 법당 : 20평
● 요사채 : 20평
● 가액 : 2억 2천
※ 영천에서 45Km 보현산 아래
※ 계곡과 산세가 기가 막힘
● 위치 : 백암온천(울진)
● 대지 : 약 500평
● 법당 : 30평(한옥)
● 가액 : 1억 5천
※ 백암온천에서 10분거리
※ 목조 황토방으로 아주 잘지음

부산 영남지방 풍수컨문 사찰 컨설팅(양도, 인수하실 스님 상담환영, 절대 보안유지)
佛國불사 018-563-9575 (홈페이지 www.pungsu-serve.com)

포교당(급)안내

● 위치 : 대구광역시 달서구 도원동
● 건물 : 2층 건물 2층(40평)
● 석가모니불, 소불 108불 '지장, 신중탱화
● 가액 : 보증금 1천만원 (월세 50만원)
● 시설비 : 2000만원(절충가능)
053)636-9306
011)9598-4193

포교당 안내

● 위치 : 광안지하철역 1번출구 3층건물 중 3층
● 건평 : 65평
● 보증금 : 3000만원 (월세 70만원)
시설비 : 4,000만원(조절가능)
011)677-8742

사찰(터)안내

● 위치 충남 공주
● 부지 1,100평 대지 200평 국유지 5만평 인접
● 건물 20평 전기 전화 완공
● 시가 3억 6천만원
● 특징 바위 밑에 대웅전터 최근약수 200평 석수 7미터 락차 폭포수 예정 빈석위로 계곡물 뚝기를 흘고 있는 거북바위
※ 현장 - 공주간 4차선국도와 고속도로에서 10분거리
041)858-1331
041)855-5621

사찰(급)안내

● 위치 : 화성시 팔탄 (도로근접) 뒤에 야산을 띠고 있음
● 법당 : 23평
● 산신당 : 5평, 요사채 : 70평
● 부지 : 240평
● 가액 : 3억 절충가능
- 관심있는 분만 전화요망 -
011)785-5670

탈종공고

● 사찰명 : 통일사 ● 주 지 : 진 관
● 주 소 : 경기도 안성시 안성읍 당왕동 108번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탈종을 공고합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총무원장 법하

사찰 안내

● 위치 : 마산지역
● 법 당 : 25평(포집)
● 지장전 : 10평(포집)
● 요 사 : 80평
● 부 지 : 4,600평
● 가 액 : 8억 5천
● 위치 : 부산
● 법 당 : 50평
● 요 사 : 170평
● 부 지 : 567평 (시유지 포함)
● 가 액 : 9억
● 위치 : 경기의정부
● 법 당 : 20평
● 법 당 : 40평
● 법 당 : 1600평
● 법 당 : 7억

※ 대리 상담 및 중간 소개자 상담 거절 합니다.
보안유지 확실히 하오니 양도, 양수 하실 스님 직접 연락바랍니다.
청송기획 02) 998-1994 / 011) 713-5634

사찰안내

● 위치 : 남원시 소재
● 대지 : 120평(실사용 200평 이상)
● 법당 : 약 30평, 요사채 (스님전용방 3칸, 욕실 1칸, 신도방 3칸) 공양실 1동(공양주 방1칸)
아담한 사찰 (비구 비구니스님 적합함)
● 주차장 완비 ● 가액 : 7천5백만원
016)850-8778

포교당 안내

● 위치 : 광진구 화양 사거리
● 25평(거실, 방, 주방, 욕실, 법당)
● 권리금 1700만원
● 코증금 : 800만원
월 55만원
011)251-5287

포교원(급)안내

● 위치 : 김해 최고 요지
● 법당, 삼존불, 지장, 산신, 용왕, 지장소불108불, 영가단, 후불촛탱화, 신중탱화, 지장탱화, 산신탱화, 용왕탱화
● 평수 : 3층, 50평 방 3개, 주방, 샤워실, 주차장완비
● 가액 : 전세 3천만원, 월 47만원 (절충가능)
시설비 : 2000만원
017)556-5691

포교당 안내

● 시설 임법당(삼존불) 주방 따로 거실, 다용도실, 다락(총12평)
● 대전역 10분거리로 도로변 포교장소로 최적지
● 가액 : 시설비 350만원 보증금 : 무, 월세 28만원
042)222-5387

탈종공고

● 사찰명 : 정림정사 ● 주 지 : 석정림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탈종을 공고합니다
근본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법하

사찰 안내

● 위치 : 부산
● 법 당 : 23평
● 요 사 : 50평
● 부 지 : 166평
● 가 액 : 3억 7천
- 포교당 -
● 위치 : 인천지역
● 법당 및 요사 : 120평
● 임대료 : 6000/150
● 시설비 : 1억 2천만원
● 위치 : 부산지역
● 법당 및 요사 : 70평
● 임대료 : 2000/80
● 시설비 : 1억 1천만원
- 즉시 법회가능, 시설특급, 시설비 절충가능 -

※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분 연락바랍니다
※ 부전스님 및 공양주 보살님 연결하여 드립니다.
청송기획 02) 998-1994 / 011) 713-5634

포교당 안내

● 위치 : 동작구 사당동 (7호선 남성역 1번출구에서 약 500 m)
● 평수 : 약 35평
● 특징 : 아미타 주불, 신중탱화 모셔져있음
● 가액 : 보증금 1000만원 월 80만원
● 시설비 : 답사 후 결정
02)598-1326

포교당안내

● 위치 : 서울 도봉구 방학동 761 강북 중심상가(신동아APT) 단지 옆 아파트 밀집지역
● 건평 : 4층건물에 3층 35평
● 가액 : 보증금 1000만 월 80만원
● 시설 : 삼존불, 신중, 지장, 탱화모심 특A급, 스님해외발령
02)955-6411
011)289-0476

사찰 터 안내

● 위치 : 충남 부여 옥산
● 크기 : 약 7000평
● 특징 : 연못, 산세수려
● 가액 : 평당 5만원
041)833-7860
011)9038-3390

암자를 운영하실 비구니스님 모십니다

● 암자 운영 무료
● 나무를 사랑하실 스님
● 추진력 있으신 스님
● 건강하고 외식을 집행하실 줄 아시는 스님
● 농촌을 사랑하는 스님
● 위치 : 경북 의성군
● 창건중
017)813-9126

사찰 안내

● 위치 : 울산시 울주군 웅천면
● 종교용지, 대지, 전답, 임야 합 8000평
● 100년된 전통사찰
016)9307-6548

포교당 안내

● 위치: 인천 부평 대로변 2층 45평
● 전세 : 4500만원 시설비 권리금 : 2000만원
031)454-0217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북 의성군 안계면 안정리 528의 1
● 대지 : 140평 ● 건평 : 48평
● 시설 : 삼존불 모셔져 있고, 50명가량 법회가능한 법당, 거실(80명수용) 방, 주방, 욕실시설 완비
● 특징 : 아산돌자락 경관수려하며 주차여건도 매우좋음
● 가액 : 2천 2백만원
053)587-1829
016)537-4927

포교원 안내

● 위치 : 경기도 구리시내 버스정류장 위치, 아파트, 주택단지, 주차10대가능)
● 평수 : 60평(법당40평 방3개,부엌,5층에5층)
● 특징 : 특A급(삼존불 신중,칠성,수미단, 영단 시주인연 아직 정하지 않았음)
● 가액 : 보증금 5000만원(월세 110만원), 시설비 4000만원
● 곡 하실분은 보증금, 시설비 포함 4000만 즌비연락
011)9087-0426

사찰부지안내

● 서울 관악산 10,000평
● 용도 : 사찰 및 복지시설
● 평당 : 25만원
● 경기도 이천 땅 5천평
● 평당 2만원
011)241-0408

사찰 안내

● 위치 : 노원구 수락산 부근 전철역에서 3분거리
● 부지 : 약 320평
● 평수 : 건물 45평 법당 20평 방 3개 차량 주차 10대
● 가액 : 2억 5천만원
011)9756-4845

토굴 안내

● 위치 : 안동시 시청에서 5분거리
● 평수 : 20평, 방3개, 주방, 거실, 욕실(기와집)
● 특징 : 삼면이 산으로 되어있음 수행처 및 절집 가능
● 주차 : 바로 집앞 120평
● 텃밭 : 150평(일년도지 5만원)
● 가액 : 전세 6백(시설비 약간)
054)855-0109

포교당 안내

● 위치 : 부산 금정구 남산동
● 평수 : 3층, 52평
● 법당, 주방, 방 2개
● 보증금 1,000만원 월 50만원 3,000만원 월 30만원
● 시설비 3,000만원
011)686-6614
051)582-8505

포교원 안내

● 위치 : 경남 합천 산가
● 법당 : 25평, 요사 : 30평, 20평
● 특징 : 용왕당 자연수
● 대지 : 250평
● 가액 : 답사 후 절충
016)421-9154

사찰 안내

● 위치 : 충남소재 영호남 기차역 10분거리 고속 IC 20분거리
● 등기이전 S30 실제사용 1300
● 법당, 산신, 요사채 80평
● 가액 : 1억 1천만원
뒷산과 대로변에 강이흐르는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장기도 도량으로 불사중에 있음
011)381-1102

사찰 안내

● 위치 : 부산 광역시 소재
● 부지 : 약 400평
● 법당 : 30평(목조 단청 3포)
● 요사 : 2동 90평
● 기타 : 산신각, 석탑, 석등
● 가액 : 6억원
● 특징 : 도심인근에 위치한 100년의 역사를 가진 전통사찰로 뒤는 산이며, 고목과 노송으로 둘러쌓인 아주 좋은 도량임
● 위치 : 경북 고령군 고령읍 소재
● 부지 : 580평
● 법당 : 30평(목조)
● 요사 : 3동 90평
● 기타 : 산신각(목조), 석등
● 가액 : 5억원
● 특징 : 영탑분양 및 납골당 분양을 위한 모든 준비가 된 정통사찰입니다

▷ 사찰, 절터, 양도, 양수 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좋은 인연됩시다 -
동진불사
서울 ☎ 02)326-1060
대구 ☎ 053)754-0454
H·P 018)689-0455

포교원 안내

● 위치 : 인천 부평구청 전철역 5분거리
4층 건물 중(3층) 34평
● 법당, 주방, 주지실, 화장실별도
● 3존불, 지장보살, 신중탱화 영단, 앰프시설 불기 일체
● 전세 2000만원 월 15만원
시설비 : 1200만원(답사후절충가능)
031)454-0217

사찰안내

● 위치 : 계룡신도시 아파트 3만세대 밀집지역
● 대지 : 150평
● 건평 : 99평(법당, 요사, 식당) 3층건물
● 특징 : 현재법당 불사 중 심야보일러
● 가액 : 3억 1천만원
011)436-7529

토굴(터)안내

● 위치 : 경북 봉화군 춘양면 백두대간, 산세좋고 전망좋은
● 밭1991평, 터정리 완료 (볼사가능)
● 토굴은 블럭으로 조성
● 방 1, 부엌 1(재래식)
● 가액 : 5천만원
011)9542-2537

사찰 안내

● 대지 : 192평
● 요사채 : 70평, 법당 : 20평
● 방 6개, 욕실 2개
● 주방 3개, 거실 3개
● 법당 단청했음, 미륵부처님 모셨음, 산세 수려함, 큰스님 병환으로 급매
● 임진강 앞이 보이고 자유로 앞에 있음
● 가액 : 3억 2천, 답사후 결정
031)952-7905

사찰 안내

● 위치 : 마산시 진북면
● 평수 : 100평(토굴) 집 3채, 산신각, 관세음보살, 약사여래 모시고 있음
● 가액 : 3천만원
055)271-3291

사찰 안내

● 위치 : 서부 경남
● 평수 : 총 210평
● 법당 : 20평 요사 : 15평
● 화장실, 수세식, 목욕탕
● 주차완비 국도에서 300m
● 주지스님 이동시에 축원카드 등 일체를 일임 함
017)552-7350

남 활법사 · 지부장모집 여

교육기간
● 정규반 - 16주(1주 3시간)총 48시간 ● 속성반 - 4박 5일(1일 8시간) 총40시간
교육후 필기와 실기시험을 통과하여 협회의 자격증을 부여합니다 숙식제공(단 1명이라도 교육함)

교육내용
1. 활법기초이론(해부학, 생리학) 2. 활법교정술(경추, 흉추, 요추) 3. 스포츠 마사지교육 4. 기공술 6. 운동회복법(저항운동법) 9. 내장부활운동법 10. 발관리교육

※ 한번회원이 되면 평생회원이 되며 3개월에 한번씩 세미나등 개최하며 자격취득자는 중국안마(추나)자격 및 침구사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해외연수 기회부여.
※ 언락주시면 자세한 안내서 우송해드립니다.

세계건강활법협회 중부연수원 054)855-6461, 02)2212-8815, 011)522-1122
http://www.hwalbup.or.kr E-mail:wooh57kr@yahoo.co.kr

사찰 안내

● 위치 : 경북 봉화군 춘천면 현동에서 택시로 20분 거리
● 부지 : 건물 2동 논,밭 6천평
● 특징 : 산세수려하고 승림을창한 적정처
● 주위에 송이버섯 많이 남 꽃나무 유실수 다수 정원 꾸며져 있음 전기 전화 있음
● 가액 : 6천만원
051)257-0052
018)762-4387

사찰 안내

● 위치 : 경남 밀양시 인근
● 부지 : 2000평
● 대지 : 420평
● 법당 : 가건물 20평
● 요사 : 45평
● 가액 : 2억 5천만원
● 전세 : 5000만원
016)868-5517

사찰 안내

● 위치 : 마산시 내서읍
● 법당, 요사채 2동
● 가액은 답사 후 결정
011)9534-2555

사찰 안내

● 위치 : 경남 진주시 명석면 우수리
● 대지 : 300평, 법당 8평, 요사채 40평
● 가액 : 1억 7천만원
055)744-2167
011)541-8420

사찰안내

● 위치 : 부산시 토성동
● 대지 : 30여평 건물 요사 20여평
● 법당 10여평(2층)
● 가액 : 1억 7천만원
토성동 지하철역에서 300m 위치 도심지 역 사찰운영 할 분 적합
016)417-4744

사찰 안내

● 위치 : 군산시 성산면 소재 사찰
● 가액 : 3.5억
● 입야 600평 종교용지 : 268평
● 군산에서 이름있는 사찰로써 현재 모두 개인소유이고 오성산을 등지고 동쪽을 향함
코리아 공인중개사
063)471-8040
016)895-6379
전북 군산시 나운동 156-6 영창상가104호

부산불교계, 아시안게임 '코리아 서포터즈' 참여

봉사하며 포교도 한다

참가선수단과 결연 안내 · 응원등 맡아

선수촌에 불교관…예불 · 선 · 다도 체험케

제14회 아시아 경기대회를 25일 남겨둔 가운데, 아시아 경기대회를 포교와 전법의 장으로 승화시키기 위한 부산불교계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부산불교계는 부산불교연합회를 주축으로 사찰 및 신행단체 등이 적극 나서 아시아 경기대회 자원봉사단인 코리아 서포터즈에 참여하는가 하면, 선수촌 내에 한국불교와 문화를 알리는 불교관을 운영한다.

참가국별로 자매결연을 맺어 선수단 입국시 환영, 안내, 경기장 응원 등의 활동을 펼치게 되는 서포터즈에는 범어사, 삼광사, 여여선원 등의 사찰을 비롯하여 부산여성불자회, 한나래문화재단, 보현의집, 불국토 등의 신행단체와 복지단체도 가세했다.

현재 동참한 사찰이나 단체는 30여 곳이지만 43개 참가국 모두에 불자 서포터즈가 참여하기 위해 삼광사, 동명불원 등은 여러 나라의 서포터즈로 활동하기도 한다. 불교계의 '붉은 악마'로 활약하게 될 불교계 서포터즈는 노란색 상의로 의상을 통일하고 경기장과 선수촌 등에서 한국 불자들의 친절과 따뜻한 정을 아시아로 전하게 된다.

특히 사찰들은 응원이나 환영행사 외에도 자매결연을 맺은 국가의 선수들을 사찰로 초청, 법회를 열고 한국불교와 전통문화를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코리아 서포터즈는 9월초 국가별 서포터즈 회장단 회의를 열고 중순께 합동 발대식을 가진 후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아시안 경기대회 기간 중에 선수촌 내에 설치되는 불교관은 오는 28일 전야제부터 10월 14일까지 조계종, 천태종, 법화종이 기간을 나눠 운영한다. 선수촌 내 초등학교 교실 4개소에 설치되는 불교관은 법당, 불교문화 홍보관, 선방 겸 다도체험관의 시설을 갖추고 선수들에게 개방된다. 특히 선방 겸 다도체험관은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명상은 물론 한국의 선문화를 체험하고 분위기를 맛볼 수 있는 영상프로그램과 다도시연 및 시음 등의 다채로운 행사를 마련할 예정이다.

불교관 상임법사를 맡은 장산 스님(동명불원 주지)은 "불교관은 한국불교를 아시아에 전하는 전법의 공간이 될 것"이라며 "참가 국가별로 선수들을 초청, 함께 예불을 봉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부산불교연합회는 "이번 대회는 불심의 도시, 부산에서 열리는 대회답게 전체 자원봉사자 중 30~40%를 불자들이 차지할 정도로 불자들의 참여도가 높다"며 "포교와 신행이 조화를 이루는 불교 축제로 승화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만행, 하버드에서 화계사까지>의 저자로 익숙한 현각스님과 한신대학교 교수 김경재 목사는 8월 29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신학연구위원회(위원장 김영일 목사)가 한국기독교회관 2층 강당에서 주최한 목요신학마당에서 '종교의 폭력성과 평화'를 주제로 대중강연을 가졌다.

"인류를 위협하고 있는 '종교속의 폭력'은 맹목적인 믿음과 타 종교에 대한 무지 등에서 비롯되고 이를 극복하기위해서는 종교간의 선의의 경쟁, 내적 성찰로서의 신앙관 등이 모색되어야 한다."



◇8월29일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열린 '목요신학마당'에서 강연중인 현각스님. 왼쪽으로 김경재 목사, 유석성 서울신학대 교수.

"종교폭력 근원은 맹목적 믿음"

현각스님, 한국기독교협의회서 강연

특수성 인정 · 상호 존중하는 마음 가져야

김경재목사 "물신주의 배격 · 선의 경쟁"

이날 강연회에서 현각스님은 "한국은 종교의 다양성이 인정되는 몇 안되는 나라다. 그러나 종교간의 이해가 필요한 것 같다. 손도 가까이 있으면 그 특징을 잘 모른다. 조금만 멀리 떨어져서 보면 몰랐던 부분이 보이는 것과 같이 종교도 서로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상호 존중하는 마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또 "맹목적인 믿음이 종교 폭력의 시발점이다. 예수님도 전도하실 때 '하느님이 마음의 왕국안에 있다'고 하셨다. 맹목적인 신앙보다는 내적 성찰의 신앙으로 개인의 말, 행동, 신념부터 바꾸지 않으면 종교의 폭력은 지속될 것이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부터 자신의 마음을 바꾸자"는 대안을 제시했다.

김경재 목사도 "어리석음과 교만, 이웃종교에 대한 무지, 맹목적인 신앙형태 등이 종교안의 또는, 종교간의 폭력성이 잠재되었다 표출되는 요인"이라며 "이웃종교에 대한 이해와 종교물신주의 배격, 자유 평화를 위한 종교간 선의의 경쟁 등이 그 대안"이라고 말했다.

김두식 기자

'바이오 엑스포' 성공기원 청주청원불교연 각종행사

청주청원불교연합회(회장 이두스님)는 7일 오후7시 청주 무심천 로울러 스케이트장에서 연등대축제 행사를 갖는다.

이번 행사에서는 충북에서 열리는 '오송 바이오 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기 위한 충북도민 소망등 제작 시현과 기념법회, 음악회 등 다양한 행사를 가질 예정이다. (043)294-0107 김재경 기자

내년 2월까지 군법당 순회법회

포교사단 · 불교TV, 실황 매주 수요일 방영



◇포교사단은 8월25일 호국백일사에서 '평화통일 기원'을 주제로 첫번째 군법당 순례법회를 봉행했다.

조계종 포교사단(단장 김대중)과 불교TV(사장 이수덕)는 '군불교 진흥의 해' 원년을 맞아 4일부터 내년 2월까지 포교사 및 스님들이 지원하는 군법당 순례법회를 갖고, 불교TV 정규 프로그램(월 2회 방송, 2회는 재방영)으로 방영한다.

두 단체는 첫 방송으로 8월 25일 호국백일사에서 포교원장 도영, 포교국장 용하스님 등을 초청, 십선계 법회를 진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수계장병 113명과 포교사단의 김대중 단장 등 포교사와 호국백일사 신도회, 진관사합창단 신도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군법당 순례법회는 격주로 총 12편 제작돼 매주 수요일 방영된다. 포교사단은 8일 과천 수도경비사령부 통혜사에서 다음 법회를 봉행할 계획이다. 김재경 기자

부산불교신용협동조합 개점10돌 기념법회 봉행

부산불교신용협동조합(이사장 사상호)은 8월 27일 건축사회관 12층 강당에서 개점 10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고산스님을 초청법사로 열린 이날 법회에는 박수복 부산불교실업인회 회장을 비롯한 5백 여명의 조합원 및 사부대중이 동참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사상호 이사장은 "자산 1천억원을 달성해 불교발전에 기여하도록 더욱 정성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천미희 기자

목탁소리 달라이라마 초청 '딜레마'

김 원 우 (취재1부 차장)

최근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스님이 달라이라마 방한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교계는 물론 일반사회, 그리고 이웃나라 일본, 중국에서까지 여론의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그 동안 달라이라마 방한에 반대 혹은 손놓고 있는 것으로 비춰졌던 한국불교 대표종단인 조계종의 추진소식에 국내외 언론이 큰 의미를 부여한 것.

하지만 조계종 총무원은 이들의 호들갑에 의외로 조용하다. 아예 내외 언론의 스포트라이트에 난처해하는 표정이 역력하다.

조계종은, 이번 일로 원상복귀되기는 했지만, 한중수교 10주년을 맞아 공식 초청한 중국 종교국 엽소문 국장 등이 갑자기 방한을 미루는 홍역을 겪었고, 주한 중국대사의 강한 항의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부, 2일 몽골을 방문하는 달라이라마가 울란바토르 항공편을 이용하기 위해 인천공항에서 환승하는 것도 반대한 것으로 알려져 예전과 입장이 변한 것은 하나도 없는 것 같다.

이런 상황을 대변하듯 최근 종단 일각에서는 달라이라마 방한이 김대중 대통령 임기 중 이뤄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단정적인 얘기들이 흘러나오고 있다.

"좀더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모르겠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는 시기상조론부터 "원장스님이 달라이라마는 언젠가 방한해야 하고, 그럴 경우 조계종에서 해야 한다는 것이지 올해 내 방한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잘못 알려진 것"이라는 해명이 그것이다.

요즘 분위기를 보면 달라이라마 방한이 올해 내 성사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번 일을 겪으면서 또다시 느끼는 점은 대한민국이 엄연한 주권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국익을 위해 달라이라마의 방한을 막고 있는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다. 아마도 조계종의 딜레마도 '국익'과 '종교의 자유' 사이에서 어느 쪽에도 기울 수 없는 위치 때문이 아닐까.

은해사 불교교양대학 개설

10월2일 개강, 2개월 과정 200명 모집

조계종 제10교구 본사 은해사(주지 법타)가 영천, 하양, 외촌, 신령 등 인근지역 불자들을 위해 2개월 과정의 '불교교양대학'을 개설한다.

오는 10월 2일 개강하는 불교교양대학은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와 오후 7시 두개의 반으로 각 200명씩을 모집, 불교 기본교리에 대한 강의를 진행한다. 은해사에서 불교교양강좌가 개설된 것은 이번이 처음.

은해사 재무국장 장적스님은 "사찰을 교육의 장으로 개방하고 잠재적인 불교신도인 지역 시민들과 함께하는 도량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는 은해사가 법회 뿐만 아니라 신도교육에서도 앞서가는 사찰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은해사 신도회장 안종학 거사는 "지금까지 영천 및 인근지역의 불자들이 제대로 된 교리교육을 받기 위해 대구나 경산시까지 나가야 했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게 됐다"며 "은해사 불교교양대학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본사 신도회 차원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054)335-33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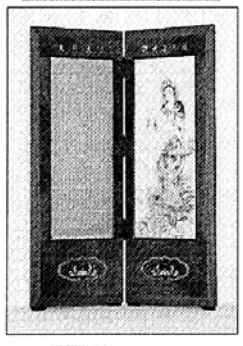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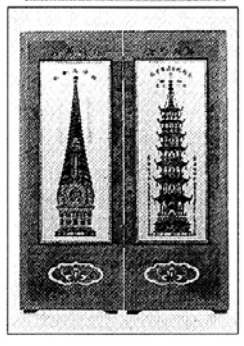
대구=박원구 기자

태국 길상사 부처님사리 고성 옥천사로 옮겨 봉안

고성 옥천사(주지 지성)는 오는 10월경 태국의 달마 길상사에 봉안중인 부처님 진신사리를 모셔온다.

평소 인연있던 태국 고승인 연위이야 스님은 오는 10월 옥천사의 극락보궁 삼존불 봉안 및 만등불사 소식을 듣고 지난 7월 26일 옥천사를 방문해 자매결연식을 가진 후 진신사리 봉안을 약속했다. 지성스님은 100일 기도중이다. 김재경 기자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에 대한 답이 여기 있습니다.
밝은길 아바타 센터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경전의 이 말씀을, 당신께서 투자하는 단, 9일간의 내면 여행으로 터득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서울 종로구 평창동 45번지
☎ 02)396-2736 · HP 016)228-2358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bokbat@kornet.net
마스터 / 위저드 김희균

"집안의 어느장소이든 펼쳐만 놓으시면 그앞이 법력(法力)과 법기(法氣)로 충만된 영험스러운 기도처가 되는……
관음(觀音)병풍 과 불탑(佛塔)다라니병풍
▣ 관음병풍

▣ 불탑다라니병풍

규 격 (2폭)높이:153cm 폭:120cm 무게:30kg
◘ 보급가 : ₩1,300,000(한품당)
<신용카드할부구입가능)
※카다로그를 원하시면 연락주시는 대로 보내드립니다.
특 징
① 집안내의 어는 장소이든 구애 받음이 없이 펼쳐 놓을수 있으며, 어느공간이든 본 병풍을 펼쳐 놓으면, 그곳이 법력과 법기로 가득찬 영험스러운 기도처가 됩니다.
② 병풍은 전체가 모두 두꺼운 무늬목 목재로 되어 있어 변형되지 않고, 영구적이며, 백의관세음 보살님은 황동판위에 모시어 훼손 될 염려가 전혀 없으며, 불탑다라니와 관세음보살 보문품경은 황동 판위에 양각으로 새겨서 금도금을 한후 표면에 특수코팅처리를 하였기 때문에 오랜 세월이 지나도 때가 묻거나 변색되지 않으며 먼지등이 묻었을 때에는 고운 융걸레로 닦으시면 됩니다.
③ 불자 집안의 가보로서 대대손손 물려주실수 있는 성품(聖品)입니다
⊙ 카다로그를 보실때보다 본 병풍을 직접보신 불자님들은 모든분이 한결같이 환희심을 내시어 집안에 모셔가겠다고 마음을 내실 정도의 성품이므로 본회에서도 직접보여드릴방법을 강구하고 있아오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관음병풍과 불탑다라니 병풍은 그효험이 똑같이 나타나기 때문에 인연따라 마음에 닿는 한 병풍만 택하시면 됩니다.
⊙ 현재 큰스님방에 펼쳐놓으시도록 시주하시는 신도분들도 계시고 본인의 집과 분가한 자녀들의 집에 한품씩 놔 주시는 불자님도 계십니다.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 (능원빌딩 3층)
전화 : 031)334-9490, 334-9491
야간 : 031)706-3060

하기책자 3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내 용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내 용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상담문의 및 책 자 신 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 (능원빌딩 3층)
전화 : 031)334-9490, 334-9491 야간 : 031)706-3060



◇동화사 백고좌법회가 대구지역 불자들의 소심고양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8월23일 하안거 해제 및 백중을 겸한 동화사 조실 진제스님 법회에는 3천여 사부대중이 동참해 뜨거운 발심의 자리가 됐다.

동화사 백고좌법회 연일 성황

"원로대덕 큰스님 법문 들을 좋은 기회"

대구시민 큰호응…평일에도 7백~1천명

요즘 대구지역 불자들은 오전엔 다른 약속을 하지 않는다. 8월20일부터 시작된 동화사 백고좌 법회에 참석하야 하기 때문이다.

'남북통일과 교통안전 기원' 등을 목적으로 오는 10월 27일까지 열리는 동화사 백고좌 법회는 평일에도 7백~1천여명의 신도들이 참가한 가운데, 연일 성황을 이루고 있어 감로법문에 목마른 지역불자들의 큰 호응을 받고 있다.

8월 23일, 하안거 해제일에도 3천여명의 사부대중이 모인 가운데 동화사 조실 진제스님의 백고좌법회가 봉행됐다. 하안거 해제와 백중 법문을 겸한 이날 법회에서 진제스님은 "부처님의 법인 해탈법을 불자들이 깨닫기 위해서는, 꾸준한 법문 습득과 함께 일상생활 속에서의 참다운 나를 찾고자 하는 각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라고 설했다.

이날 법당 밖에까지 자리를 빼곡히 메운 참가대중은 막바지 무더위 속에 흘러내리는 땀방울에도 아랑곳 않으며 스님의 말씀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잠시도 눈을 떼지 않고 법문을 경청했다.

하루도 빠짐없이 백고좌법회에 참석하고 있다는 보현행보살(52 · 대구 달서구)은 "이렇게 한자리에서 원로대덕 큰스님들의 법문을 모두 들을 수 있으니 이보다 더 좋은 기회가 어디에 있겠냐"며 "백고좌 마지막날 법회까지 빠지지 않고 나오고 싶다"고 말했다.

매일 오전 10시에 열리는 동화사 백고좌 법회는 계속해서 7일 암도스님(전 조계종 포교원장), 12일 성수스님(법수선원 조실), 23일 무비스님(조계종 교육원장), 30일 성타스님(불국사 회주), 10월3일 링 린포체, 10월6일 보성스님(통도사 부방장), 10월23일 도문스님(대각사 조실) 등으로 이어져 10월 27일 진제스님의 회향법문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린다.

이와함께 동화사는 2일부터 모두 3차례에 걸쳐 교통안전 기원을 위한 전단과 단주 등을 나누어주는 거리 캠페인을 벌이며 30일까지 교통안전 표어 및 수기를 공모, 각종 상장과 상패를 수여한다. (053)982-0101

대구=박원구 기자

고등학교 국어 · 철학 · 사회문화 과목 교과서

불교관련내용 오류 · 편향 조사

제7차 교육과정 교과서에서 실린 불교관련 내용이 전부 분석된다.

파라미타청소년협회 부설 청소년문화연구소(소장 김형중)는 9월 9일 오후6시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의실에서 월례세미나를 열고, 지난 6월 1일 발표한 '제7차 교육과정 초 · 중 · 고 교과서 불교교리 오류 및 종교편향서술 실태 분석'에서 다루지 못했던 고등학교 국어, 철학, 사회문화 과목의 불교관련 내용분석을 마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명성여고 김형중 교법사를 비롯해 이병철, 문진환 교사 등이 고등학교 철학, 국어, 사회문화 교과서에 실린 불교관련 내용분석에 대해 발표한다.

청소년문화연구소 김형중 소장은 "빠르면 9월 중순까지 지난번에 분석한 내용과 함께 자료집으로 묶어낼 계획"이라며 "조계종 총무원과 긴밀히 협의해서 내년도 교과서 개정에 불교관련 기술 오류와 종교편향 사례들이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차 세미나에서는 초등학교 교과서, 중학교 도덕 · 국어 · 국사 · 수학,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에 실린 교리 및 신앙 등 불교관련 내용 가운데 기술 오류 12항목, 종교편향 7항목 등 총 19항목의 문제가 지적됐었다.

김철우 기자

조선 · 중앙 · 굿데이紙 불교비하내용 만화게재

조계종, 공식사과 요구

조선일보, 중앙일보, 굿데이가 8월 29일 일제히 불교비하 만화를 게재한 것과 관련해 종교편향대책위가 공식사과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중앙일보는 29일 1면 '김상택의 만화세상'에 '마지막 후보'라는 제하의 만평에서 현재의 총리선출문제와 관련하여 조계종 총무원장을 희화화했다.

조선일보도 A2면 '신경무 조선만평'에 '털어서 먼지 안나는 사람 찾아라'라는 제하로 실린 만평 내용에서 종교인들을 희화했으며, 굿데이는 23면 '바이러스' 만화에서 우리 사회의 정신적 보루인 불교의 수행자를 등장시켜 불교를 폄하하고 수행자인 스님의 이미지를 왜곡시켰다.

김원우 기자

해인사 납골추모관 개관

고양 미타원서 13일 법회

합천 해인사 부설 납골추모관 개원식이 13일 오전 11시 고양시 대자동 미타원에서 개최된다.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스님과 해인사 주지 세민스님을 비롯 각계 인사들이 참가하는 이날 개원식은 개원대법회와 함께 장묘문화 개선을 위한 서명식, 축하공연 등의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김원우 기자

"전쟁 · 재앙 해결위해 불교 적극 동참해야"

그래엄 호주불교협회장 강연



호주불교연합회장인 라이얼 그래엄경(卿 · 사진) 초청 강연회가 '불교와 인류의 미래'를 주제로 8월 28일과 31일 광주와 서울에서 각각 열렸다.

광주 · 전남교수불자연합회(회장 김기형) 주최로 조선대 치과대학 대강당에서 열린 초청강연에서 그래엄경은 "불교를 비롯한 모든 종교와 사상은 한 울타리 속에서 서로의 존재와 다양성을 인정하고 다양한 문화와 생각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근, 전쟁과 같은 고통과 재앙을 해결하기 위해 불교가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계불교도총회 집행위원이기도 한 그래엄경은 퀸즐랜드 정토불교협회장, 세계종교인평화회의 회장 등을 역임했고 세계평화국제불교협력회의, 국제종교협력회의 등에 참여하고 있다.

주용직 광주지사장

북한산관통도로 노선조사위 4일 인선완료

10일 첫 회의…운영방법등 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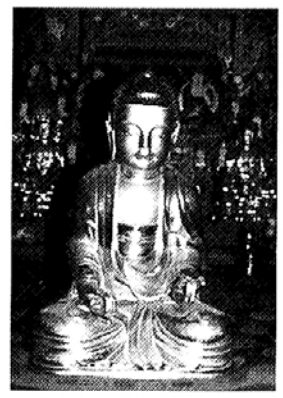
불교계와 건설회사가 북한산 관통도로 노선조사위원회 인원수 및 구성방법 등에 대해 합의하고 10일 첫 회의를 갖는다.

조계종 공동대책위는 "서울고속도로 관계자와 만나 노선조사위 구성 인원과 향후 일정 등에 합의했다"며 "4일까지 20여명으로 노선조사위 인선을 마치고, 10일 첫 만남을 통해 노선조사위 운영 방법과 재정 충당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고 8월 29일 밝혔다.

이번에 발족하는 노선조사위는 불교계가 추천한 8명, 정부 및 건설회사가 추천한 8명, 관할 지자체인 서울과 경기도가 추천하는 각 2~3명 등 총 20여명으로 구성되며, 불교계는 환경관련 전문가, 불교계 인사, 환경운동가, 지역주민 등이 참여시킬 계획이다.

조계종 공대위 김용구 간사는 "노선조사위가 구성되면 그 안에서 수락산 · 불암산 관통도로 공사 중단 문제도 검토될 것"이라고 밝혔다.

강유신 기자



◇경남 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된 거창 심우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심우사 여래좌상등 7점 도문화재 지정

경남도는 최근 도문화재위원회를 열고 거창 심우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산청 율곡사 목조 아미타삼존불좌상, 통도사 창녕포교당 목조석가여래좌상, 양산 통도사 감로탱 현왕탱 등 7점을 도 유형문화재로 지정했다. 또 산청 정취암 목조관음보살좌상과 양산 통도사 사명암 감로탱, 심우사 삼장탱화 등 3점을 문화재 자료로 지정했다.

김원우 기자

수재민돕기 모금운동

조계 · 천태종 등

조계종은 전국적으로 내린 집중호우로 많은 수재민이 발생했지만 모금액이 예년의 반에도 못 미치는 등 수해민을 위한 온정의 손길이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라 6일까지 범종단차원에서 모금운동을 펼치고 있다.

조계종 총무부장 원택스님을 비롯한 각계 종교지도자들은 8월2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수재의연금 모금 동참을 호소했다.

문의전화 02)735-5864. 계좌번호(국민은행)023-25-0011-991 예금주:(재)불교중앙교원.

천태종도 관문사, 삼광사, 정광사, 광수사 등 전국 각 말사에서 모은 성금 5,400여만원을 수재의연금으로 전달했다.

김원우 기자

석굴암 유물전시관 논란 재연

이달중 문화재위원회서 위치 등 재심

석굴암 역사유물전시관 건립을 둘러싼 학계의 논란이 재개될 조짐이다.

경주시는 불국사가 제출한 석굴암 역사유물전시관 설계안에 대한 검토를 마치고 최근 문화재청으로 넘겼다고 8월 30일 밝혔다. 문화재청은 빠르면 9월중 문화재위원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역사유물전시관의 건립 위치 등에 대해 재심의할 계획이다.

문화재청은 지난 해 10월 건조물분과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통해 석굴암에서 동남쪽으로 100여m 떨어진 곳에 본존불 모형을 포함한 지하 1층 지상 1층 규모의 역사유물전시관을 짓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올 4월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부 학계와 환경단체 등으로부터 "현 위치에 역사유물전시관을 짓는 것은 석굴암 경관 훼손"이라는 반대에 부딪혀왔다. '석굴암 토함산 훼손 저지를 위한 대책위원회' 위원장 이상해 교수(성균관대)는 "모형관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현 위치에는 안된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불국사가 최근 경주시에 제출한 설계안은 당초 계획대로 현 위치를 고수하고 있어 문화재위원회에서 앞으로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 불교계 안팎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권형진 기자

그린벨트내 사찰 2배증축 가능

관련법적용 건물연면적 기준으로 변경돼

그린벨트 내 전통사찰의 증축면적이 2배까지 확대됐다.

조계종 총무원과 구기동 금선사는 8월27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그동안 사찰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증축가능 면적을 상정토록 했던 법해석이 별도의 건축물 대장을 갖고 있는 경우라면 독립된 대지내의 건축물단위로 연면적을 산정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증축면적이 2배로 확대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종교시설이 개발제한구역 지정(76년) 이전부터 독립된 대지에 입지하고 각각 건축허가를 받아서 별도의 건축물 대장을 갖추고 있는 경우 연면적 150㎡(50평) 미만은 300㎡(100평)까지 증축이 가능하다.

금선사 주지 법안스님은 "그린벨트에 소재하고 있다고 하여 공적기능을 담당하는 사찰의 시설물 증축을 제한하는 것은 문제"라며 "종단과 협조하여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원우 기자

당신의 전생을 보여드립니다





당신의 슬픔과 고통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바로 당신의 전생에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나는 왜 여기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 물음에 대한 진정한 답을 '최면-전생'을 통하여 찾아보십시오.

점(占)과 철학으로 사람의 운명을 상담하던 시대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최면-전생 요법으로 당신의 전생과 미래의 삶의 모습을 마음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십시오. 그래서 이생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 영혼의 완성을 위한 배움터 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각각의 전생의 카르마(業)에 의해 예정되어져 있습니다. 그 예정되어져 있는 영혼의 프로그램을 최면-전생을 통하여 확인하십시오.

최면전생 특강 내용

(1) 최면으로 하는 제령 천도(天道) - 자신의 몸속에 있는 영가(靈歌)나 빙의령(憑依靈)이 영계로 떠나가는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게 하는 기법
(2) 전생퇴행 최면 - 무의식속에 기억되어져 있는 전생의 사건과 경험들을 재생시켜서 보게하는 기법
(3) 원격 제령 최면
제 3자가 최면에 들어 원하는 사람의 몸속에 있는 영가를 천도 하는 기법. 최면 당사자가 그 사실을 확인하고 볼수 있음.
(4) 최면 파동요법
사람이나 영가는 저마다 고유한 주파수(영파(靈波))를 가지고 있는데 영혼파동기법으로 그사이클에 초점을 맞추어 영가(靈歌)를 불러내어 제령 천도하는 기법. 영가가 어디에 있으며 어떻게 떠나 가는 가를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기법.

강의 안내

◎ 개강 : 수시접수 ◎ 시간 : 매주 토요일 3시간, 3개월 과정 ◎ 특강 : 지역별 그룹특강 가능

※ 저서 '우리는 태어나기 이전부터 존재했었다.'

법운 선생님 약력
2001년 SBS '호기심 천국' - '최면술의 놀라운 진실' 출연
2002년 KBS 'VJ특공대' - '최면의 세계' 출연
동래고등학교 졸업
한양대학교 졸업
세계 아미포 기공협회 회장
동방 최면전생 연구소 소장
현 '삼경그룹' 고문으로 재직

동 방 최 면 전 생 연 구 소

◆문 의 처 : 017-587-0777, 051) 806-8500, 817-6156
◆홈페이지 : www.dongbang21.co.kr

옛날 직지사 산문께는 장승이 서 있었다고 한다. 나이 든 토박이들은 지금도 '장승백이골'이라는 이름을 기억하고 있다. 이 장승은 임진왜란 이후 절집을 지키기 위해 세워진 수문장이다. 지금 남아있는 대둔사 장승이며, 벽송사 장승이며, 남장사 장승이며, 관룡사 장승이며 모두가 그렇게 해서 세워졌다. 장승들이 사라진 절집일수록 주변 환경이 나쁘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사찰생태연구소 · 현대불교신문이 함께하는

108사찰 생태기행

(5) 황악산 직지사

글 · 사진 김재일(사찰생태연구소장)

관음의 산자락…가을 맞이 한창

요즘 직지사 산문을 돌아오는 능여계곡의 물이 몇 달째 탁류이다. 김천시가 민박마을과 문화공원을 조성한답시고 수만평의 직지사 들머리를 파헤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산문 코밑에다 수백평의 대형 식당을 짓겠다고 땅주인이 나서 이래저래 직지사가 골치를 앓고 있다.



◇'황악산 직지사', 이호신 作(30×51cm), 2000년.

직지사 일주문 기둥은 1천년 묵은 싸리나무라는 전설이 있지만 실제로는 느티나무이다. 절집 전설에서는 느티나무가 흔히 싸리나무로 둔갑한다. 느티나무는 무늬가 아름답고 재질이 단단해서 예부터 불상이나 사리함의 재료로 많이 사용되기 때문이다.

예전 천왕문 옆에는 사명당의 출가전설이 깃든 은행나무가 있었다고 한다. 사명당은 어린 시절 황악산 기슭에서 유학을 배웠다. 당시 주지로 있던 신묵대사가 참선 중에 천왕문 옆 은행나무 밑에 황룡이 또아리를 틀고 있는 꿈을 꾸고는 급히 일어나 갔더니 한 소년이 은행나무를 베고 잠들어 있었다. 신묵은 부처님의 뜻이라 여기고 소년을 문하에 거두어 들였다는 것이다. 애석하게도 그 은행나무는 지금 사라지고 없다. 절의 외양은 예전보다 커졌지만 현재 직지사에는 베고 누울 만한 큰 나무가 없다. 직지사뿐만 아니라 한국불교의 오늘이 그렇다.

웅향각 댓돌 곁의 상사화가 마지막 꽃망울을 남기고 있다. 댓돌 위에 놓인 스님의 하얀 고무신과 여름 내내 싹을 해온 상사화는 절집에 있어야 가장 잘 어울리는 꽃이다. 상사화는 옛 스님들이 중국으로 유학 갔다 돌아오는 길에 처음 가져왔다는 꽃이다. 향적전 담장 아래 옥잠화, 자주달개비, 참나리, 며문동 등이 꽃을 피우고 있다. 배롱나무, 구기자, 불두화도 이웃하고 있다.

부처나비 한 마리가 풀잎 위에 앉아 깊은 명상에 들어있다. 우리 학자들이 굳이 부처나비라고 이름 붙인 것은 이 나비의 학명이 '고오타마(gotama)'이기 때문이다. 애벌레들이 주로 벼과 식물들을 먹고 자란다는 점도 다른 나비와 구별된다.

응진전 앞에는 제철을 만난 파초들이 우람하고, 사명각 주위엔 요염한 배롱나무꽃이 한창이다. 절집 안의 식생을 돌아보노라면 옛 수행자들의 생태적 안목에 놀랄 때가 많다. 은행나무를 비롯해 파초, 배롱나무, 불두화, 상사화 등도 그들에 의해 전래된 식물들이다. 특히 파초는 '탈속'이라는 꽃말로 해서 절집에 더욱 잘 어울린다.



◇은선암에 오르는 길에 핀 마타리꽃.



◇직지사 사명각과 명부전 사이에 배롱나무꽃이 한창이다.



◇홍단딱정벌레는 황악산의 생태지표이다.

↓◇깊은 명상속의 부처나비.



응진전 앞 파초·배롱나무·상사화

절 상수원 능여계곡 1급수 자랑

비로전 석탑을 지나 황악루에 이르면 '염주나무'로 불리는 피나무와 경내에서 가장 나이가 많다는 측백나무와 벽오동나무가 한 그루씩 나란히 서 있다.

벽오동(碧梧桐)은 줄기 색깔이 푸르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간혹 일반 오동나무와 헷갈리기도 하는데, 벽오동꽃은 연자주색 오동꽃과 달리 연노란색이다. 벽오동은 한 해에 한 마디씩 자라므로 마디 수를 세어보면 나이를 알 수 있다.

산중다원에서 차 한잔을 음향하고 나서면 등산로가 보인다. 은선암, 중암, 백련암, 운수암 등의 산내 암자들이 모두 이 등산로 주변에 있다.

황악산은 이름이 주는 느낌과는 달리 산세가 우아하고 부드러운 육산이다. '黃岳'을 더러 '黃鶴'으로 표기해도 용서되는 것은 황악의 산세가 학의 잔등처럼 부드럽기 때문일 것이다. 등산로도 그렇게 급하지 않아서 여유롭게 산을 탈 수 있다.

혼효림 가운데로 은선암으로 가는 오솔길이 나 있다. 숲을 찾아들면 햇볕 좋은 풀섶들이 여기저기 자리하고 있다. 싸리꽃, 누리장꽃, 물봉선, 맥문동, 질경이꽃, 며느리밥풀, 마타리, 까치수영, 구절초, 쑥부쟁이, 칡꽃, 닭의 장풀, 달맞이꽃, 꿀풀, 좁쌀풀… 가을을 마중 나온 꽃들이 피어있다.

여름날 은선암은 농소화가 한창이다. 높은 석벽이며 대웅전 마당이며 온통 농소화로 뒤덮혀 있다. 능소화 역시 옛 수행자들이 중국에서 들여온 식물로 알려져 있다. 색상이 화려하고 기품이 있어서 조선 유교사회에서는 '양반꽃'으로 불렀다. 그래서 상민 집에서는 함부로 심지 못했다.

홍단딱정벌레·부처나비 등 서식

황악산 정상엔 드넓은 억새밭

능여계곡은 직지사의 상수원으로, 이끼가 전혀 없는 1급수이다. 인간의 몸은 약 70%가 물이다. 몸 속의 물이 2% 부족하면 인간은 갈증에 시달리고, 5%가 부족하면 혼수 상태에 빠지며, 10%만 부족해도 생명을 잃는다. 산도 마찬가지이다. 지하수를 비롯해서 물이 5%만 부족해도 식물들이 종자를 맺지 못한다. 10%가 부족하면 그 산의 짐승들이 살지 못해 서식처를 옮긴다고 한다. 산중에 흘러내리는 물이라고 마냥 쓰고 버릴 게 아니다.

등산로를 따라 올라가면 삼거리에 관응스님이 주석하는 중암으로 가는 길이 나 있다. 길에서 벗어나 숲 속으로 들어서면 햇볕량이 많은 초지가 군데군데 흩어져 있다. 구절초, 참취, 참나물을 중심으로 한 들국화 종류가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들국화류 말고 꽃꼬투리가 오리를 닮은 진범, 초롱 모양의 연보랏빛 모시대, 화려한 주홍색의 동자꽃, 바람개비처럼 생긴 흰송이풀, 분홍색의 산오이풀, 사위질빵, 각시원추리, 누린내풀, 이삭여뀌 등이 보인다. 머지않아 초롱을 닮은 더덕꽃도 피어날 것이다.

날개 가장자리가 검은 대만흰나비를 비롯하여 긴꼬리제비나비, 왕자팔랑나비, 네발나비 등이 장삼자락 휘날리듯이 날개짓을 하며 앞서 길잡이를 한다. 아행성인 나방은 숲 속에서 미동도 없이 낮잠을 즐기고 있다.

황악의 숲에서 볼 수 있는 딱정벌레 가운데 가장 눈길 끄는 것은 홍단딱정벌레이다. 우리나라 딱정벌레류 가운데 가장 덩치가 좋아 몸 길이가 4센티미터에 이른다. 머리와 딱지날개는 흑록색의 금속광이 나고, 가슴께는 붉은 광택이 난다. 딱지날개는 끝이 뾰족하고 길며, 7개의 검은 흑과 세로줄이 있다. 낮에는 돌이나 낙엽 밑에 숨어 있다가 밤에 활동한다. 직지사 숲의 생태지표종으로 이의가 없다.

백련암은 비구니 암자이다. 그래서 그런지, 백련암으로 오르는 걸음이 조심스럽다. 암자로 가는 숲길에 각시원추리 한 송이가 외롭게 피어있다. 햇볕을 찾아 사슴처럼 목을 길게 내민 모습이 너무 안쓰럽다. 바람결에 땀도 씻을 겸 그의 짝이 되어주기 위해 곁에 앉았다.

감동은 오로지 개인적인 체험이기에 같은 사물에 대해 느끼는 감동의 크기도 각기 다를 수밖에 없다. 자연의 아름다움은 그가 자연을 사랑한 만큼 볼 수 있다. 아름다운 만큼 감동하는 것이 아니라 감동한 만큼 아름답다. 백련암 텃밭께 잘 자란 초피나무 두 그루가 인왕처럼 서 있다.

백련암을 내려오면 정상인 비로봉(1,111미터)까지는 운수암을 지나 쉬엄쉬엄 1시간 거리다. 더덕 냄새 풍기는 산길은 여전히 모로 누운 여인의 허리처럼 완만하고 부드럽다.

정상에 이르면 '비로봉' 표석이 있고, 드넓은 억새밭이 펼쳐져 있다. 동북 방향으로는 추풍령을 지나 속리산으로 이어지는 산줄기가 유연하게 뻗어있고 남서쪽으로는 삼도봉과 덕유산으로 산줄기가 흘러가고 있다. 포대기같은 황악의 품안에 직지사가 안겨 있다. 황악은 그대로가 관음이다.

위덕 7년, 7대 성취 - ● 취업률 전국대학 4위 (3년 연속 80% 이상) ● 2000 대학종합평가 우수대학 ● 2000 교육대학원 최우수대학 ● 2000 대학재정지원평가 우수대학 ● 2001 교양교육 우수대학 ● 2002 IT 특성화대학 ● 2002 교육개혁 우수대학

위덕대학교 불교문화학부가
불교의 성지, 천년 고도 경주에 있습니다

경주는 신라 천년의 불교문화와 예술의 보고입니다.
불교문화 및 예술은 21세기 새로운 학문분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위덕대학교 불교문화학부는 문화의 세기를 맞아 새로운 모색을 통하여
불교문화의 이해증진에 앞장서겠습니다.

● 입학전형 (수시 2학기 모집요강)
• 모집단위 : 불교문화학부(불교학전공 · 불교문화전공)
• 모집인원 : 23명
• 전형방법
【불교계추천 입학전형】
– 불교성직자의 추천을 받은 자
– 학생생활부와 면접전형
【고령자 및 주부 입학전형】
– 만 30세 이상인 자와 주부
– 학생생활부 100%
• 장학제도 교내외 불교장학 및 성직자 장학
• 입학원서 교부 2002. 8. 26(월)
– 본 대학 정문, 전국 주요서점
• 입학원서 접수 2002. 9. 10(화)~9. 13(금)
• 합격자 발표 2002. 11. 11(월) 이전

※ 장학상담은 불교문화학부와 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목표
체계적인 불교학 · 창의적인 불교문화의 정립
• 불교학전공 불교학을 체계적으로 연구하여 새로운 현대 불교학의 가치를 탐구한다.
• 불교문화전공 불교문화를 창의적으로 계승하여 미래의 불교문화를 새롭게 창출한다.

● 교육과정
불교학과 불교문화의 영역별 교과과정으로 체계적이고 다양한 교육을 실시한다.
• 불교학을 바탕으로 하는 실용적인 불교문화를 직접 체험한다.
• 현장중심의 불교문화 교과목을 통하여 실질적인 불교현장에 대한 경험을 얻는다.
• 교과목과 개별적인 진로지도를 연계하여 각 분야의 전문인을 육성한다.
• 기타 모든 학부의 전공을 복수 전공하여 자신의 능력을 함양 할 수 있다.

● 연구회 설치 및 복수전공
• 종학 연구회 종학의 기초 함양(종비생 위주)
• 원전 연구회 원전 연구능력 함양(일어 · 중국어 및 산스크리트어 · 티벳어 독해)
• 불교교육 연구회 어린이 불교학교, 자성학교, 청소년 등의 교육 (교직과정 · 아동학부 복수전공자)
• 불교사회복지 연구회 불교사회복지의 경험(사회복지행정학부 복수전공자)
• 불교문화예술 연구회 불교 문화예술의 체험(불교문화예술 수강자)
• 불교전산연구회 불교전산 이론과 실기 불교학의 전산화와 관련한 전산연구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참조(www.uiduk.ac.kr/~ipsi)
또는 입학학생처 입학과(054-760-1061~4),
불교문화학부 사무실(054-760-1510, 1513~5)로 문의

천년 古都, 강한 대학
위덕대학교
UIDUK UNIVERSITY